

2014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일 시: 2014년 3월 29일(토), 12:30-6:10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4층 BRICS홀 및 강의실 402호

| | | | | | |
|---|---|--|---|--------------------|---|
| 등 록 | 12:00-12:30 | | | | |
| 개 회 | 12:30-12:35 | 정호정 | 학회장 | | |
| 세션 1 일반세션 | 12:35-1:00 | 이혜승 수원대 | Russia Focus 노-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지식중개 방법 고찰: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 | |
| | 1:00-1:25 | 김도훈 부산외대 |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 | |
| | 1:25-1:45 | 토론: 서유경(한국외대), 윤선경(한국외대) | | | |
| | 1:45-2:00 | 휴 식 | | | |
| 세션 2 특별세션: 공공번역 실태조사 및 사례 발표 | 2:00-2:25 | 박현주 한국외대 | 국내 공공번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번역 결과물 분석을 중심으로 | | |
| | 2:25-2:50 | 왕기맹 중앙대 | 한중 공공번역의 현주소 | | |
| | 2:50-3:15 | 임순정 이화여대 |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 수립을 위한 한불 번역 실태 조사 | | |
| | 3:15-3:40 | 이승재 경희대 |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과 추정연구 | | |
| | 3:40-4:00 | 토론: 조재범(한국외대), 강수정(숙명여대), 이주연(한국외대) | | | |
| | 4:00-4:15 | 휴 식 | | | |
| 세션 3 신진연구자 세션 | 세션 3-A 좌장: 이태형 (한양대) 4층 BRICS홀 | | 세션 3-B 좌장: 이지은 (이화여대) 대학원 402호 | | |
| | 4:15-4:40 | 이정순 중앙대 | 한중 동시통역 시 동시성 확보방안 연구: 선형동시통역기법과 사역문을 중심으로 | 김훈밀 한국외대 | 어휘지식, 독해능력, 주제지식과 번역과의 상관관계: 학부생 데이터를 중심으로 |
| | 4:40-5:05 | 정영란 이화여대 |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번역 양상 고찰 | 송연석 한국외대 | 이데올로기 전파 도구로서의 번역: 뉴스타임 '나는 꿈수다' 관련기사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
| | 5:05-5:30 | 이주은 부산대 | Theme 분석을 적용한 통역 품질 평가 | 홍설영 이화여대 |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
| | 5:30-6:00 | 토론: | 한정은(한국외대) 허지은(이화여대) | 토론: | 성승은(한국외대) 김순미(숙명여대) 최문선(이화여대) |
| | 폐 회 | 6:00-6:10 | 정호정 | 학회장 | |

세션 1

일반세션

12:35-1:45

일반대학원 4층 BRICS홀

좌 장: 임 향 옥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발표자:

이 혜 승 (수원대) Russia Focus 노-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지식중개 방법 고찰: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1

김 도 훈 (부산외대)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17

토론자: 서 유 경 (한국외대), 윤 선 경 (한국외대)

Russia Focus 노한 번역에서 나타난 지식중개 방법 고찰: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이 혜 승
수원대학교

I. 서론

상이한 언어권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번역사는 번역 과정에서 원문 독자와 번역문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의 간극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한다. 공통의 사회, 역사, 문화적 대상과 경험에서 비롯되어 사물과 가치, 세계에 대한 인식 및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체계는 그것을 공유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도, 반대로 어렵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공유의 여부, 더 나아가 공유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판단에 이르기까지 번역사는 양 언어권 독자들의 지식을 중개하기 위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원문이 한국 독자들 대상의 번역문으로 재생산되는 데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중개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러시아 RBTH(Russia Beyond The Headline)사와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Russia Focus 지이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단편적 소개에서 벗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담은 러시아 독자 대상의 기사를 한국 독자들에게 번역,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시사 번역 저널이다. 시사 전반에 대한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고, 러시아 내에서 자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생산된 기사를 한국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 러시아 연구와 교육, 더 나아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번역 방법의 분석에 앞서 2장에서는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관찰되는 지식과 정보의 결합, 그리고 번역과의 상관성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3장에서 제시되는 구체적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 중개에 대한 번역사와 번역문 독자들의 실제 수요 조사이다.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를 위해서는 Russia Focus에 게재된 기사들의 한국어 번역문을 원문과 비교해서 지식 중개를 위해 원문이 변경되거나 추가적 정보가 제시된 부분을 추출하고, 그 유형을 제시한다. 지식 중개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를

위해서는 잠재적 번역사와 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결과를 취합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한국 독자들이 러시아 독자를 대상으로 쓰인 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체적 번역 방법을 논의,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관련성 이론과 지식의 전달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새로 제공되는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의도했던 추론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 상담차 A, B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중 A가 내일 자신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 일찍 만나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고 B에게 말한다. 그 말을 들은 B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봐야 해서요.”라고 대답한다. 이런 B의 발화를 듣고 A가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일찍 학교를 가야한다면 일찍 만날 수 없다’라는 기존에 공유되어 있던 지식에 ‘상대방이 일찍 학교에 가기를 원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결합되어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이 만들어진 것이다. 의사소통에 참여한 B가 의도했던 바를 A가 추론할 수 있게 해준 B의 발화는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이 된다.

스퍼버와 윌슨(Sperber & Wilson, 1986)은 “발화를 해석하는 데에 사용된 전제의 집합(p.15)”으로 맥락을 규정하고 청자가 속한 인지적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런 측면에서) 맥락이란 당장의 물리적 환경이나 바로 전에 있었던 발화에 대한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기대, 과학적 가정, 종교적 신념, 일화에 대한 기억, 일반적인 문화적 가정, 화자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생각 등이 모두 (발화)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perber & Wilson, 1986, pp.15-16)

위의 경우 기존에 공유되어 있던 ‘일찍 학교를 가야 한다면 일찍 만날 수 없다’는 지식은 맥락에서 비롯된 가정(contextual assumption)이 되고 새로 도출된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없다’는 새로운 결론은 맥락적 효과(contextual effect)라고 할 수 있다. A는 B가 발화를 통해 새로 제공한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야한다’는 정보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찍 학교를 가야 한다면 일찍 만날 수 없다’는 맥락적 가정을 통해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없다’는 새로운 맥락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때 B가 발화를 통해 의도했던 바를 이해하는 데에 A가 들이는 노력이 적을수록,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맥락적 효과가 클수록 B의 발화가 가지는 관련성은 높아지게 된다. “다른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역시 자원에 대한 최적의 활용이라는 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의사소통의) 최적화는 곧 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Gutt, 2000, p.28). 화자는 청자가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적절한 맥락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말을 하게 되고, 청자 역시 그러한 가정 하에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번역은 “2차적 의사소통 상황”(Gutt, 1992, p.27)으로 규정된다. 기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맥락적 가정과 새로 주어지는 정보, 그리고 그것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청자의 해석 즉, 새로운 맥락적 효과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반면 2차적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화자가 적절한 맥락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가정했던 청자가 기존의 청자와 전혀 다른 맥락적 가정을 가지게 된다. 그로 인해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도 화자가 의도했던 맥락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불필요한 노력 없이도 적절한 맥락적 효과가 가능하다는 “소통 가능성의 조건(condition of commucability)(Gutt, 1992, p.28)”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필리핀 casiguran에 거주하는 두마갓족을 대상으로 신약 성서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의 예를 들면서 구트(1992)는 번역문 독자가 해당 텍스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맥락이 달라서 그 효과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면 독자는 결국 읽기 즉, 의사소통 행위를 중단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독자가 성서의 내용과 기존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관련성을 확보하고, 의도된 맥락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번역사가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부가적인 역사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용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 텍스트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인지적 환경에서 충분한 맥락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Gutt, 1992, p.32)

제복이 입혀진 인형이 장병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무엇이든 닮아있는 다른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윌슨과 스퍼버(Wilson & Sperber, 1988)의 언급을 인용, 구트는 해석적 유사성(interpretive resemblance) 의 틀 안에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완벽한 동일성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관계를 규정했던 등가, 충실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번역문이 원문을 해석적 측면에서 닮아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한 언어 내에서 타인의 발화를 다른 제3자에게 전할 때, 글자 그대로 모든 표현을 옮기지 않고 청자에게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만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번역문은 번역문 독자들에게 관련성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원문과 가까이 닮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문에 의도된 해석을 번역문을 통해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적절한 맥락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관련성 이론에서 맥락적 가정으로 규정한 화자와 청자 사이 공유되어 있는 지식 체계는 곧 공통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식 체계, 개념적, 정서적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는 스키마(schema) (레이코프와 터너(Lakoff & Turner), 1989), 틀(frame)(필모어(Fillmore), 1982),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클라크와 마샬(Clark & Marshall), 1981, Schöffner, 1997 재인용), 인지적 축적물(bagage cognitif)(르데레르(Lederer), 1994), 더 나아가 지식, 능력, 지각의 총체이자 사회적 행위 및 규범으로 확장되는 광의의 문화 개념과 맞닿아 있다. Cheong(2003)이 강조한 것처럼 후천적으로 취득되는 지식체계가 공유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의사소통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번역

활동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된다. 번역사가 번역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지식 중개의 필요성에 대해 샤프너(Schäffner, 1997)는 클라크와 마샬(Clark & Marshall), 1981)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원문은 원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원문의 저자는 공유된 상호 지식을 가정해서 일부의 정보를 함축적으로 남겨둘 수가 있다. 번역문 독자들은 원문의 문화와 관련된 특정 배경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사는 지식을 갖춘 중개자로서 이렇게 부족한 배경지식을 고려할 것인지, 고려한다면 가장 적절하게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Schäffner, 1997, p.129)

원문과 번역문 독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지 않은 지식 체계,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적 함축을 번역하는 방법으로 쿠즈마울(Kussmaul, 1995)은 생략과 대체, 외연화 등을 제시했는데, 이는 독자에게 번역문이 가진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번역사가 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 맥을 같이 한다. 원문에 제시된 정보가 번역문 독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전의 지식 즉, 맥락적 가정과 결합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맥락적 효과를 거두지 못할 때, 다시 말해서 부족한 맥락적 가정을 보충 설명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시해도 이해를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때 번역사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축소하게 된다.

조정래의 인간 연습(2006)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논의 중 일부를 소개한다.

(1)

“박 동... .”

윤혁은 말을 꿀꺽 삼켰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병원이었다. ‘동지’란 단어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다. ‘동무’라는 호칭은 아예 안 되지만, ‘동지’라는 말도 남들의 눈초리를 끄는 호칭이었다.

(조정래, 2006, p.19)¹⁾

위의 예는 한국 사회에서 세분화된 호칭을 번역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 ‘정치 사상이 서로 같은 사람’을 지칭하거나 ‘(사회주의권에서) 이름 다음에 쓰이는 존경의 뜻을 가진 호칭’인 ‘동지’, 그리고 본래는 친하게 어울리는 사이를 뜻했지만 북한에서 ‘혁명을 위해 같이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동무²⁾’가 한 문장 안에 등장한다. 병원에 입원한 비전향장기수 박동혁을 다른 비전향장기수가 ‘동무’는 당연하고 ‘동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과거 공산주의 시절 ‘동지’의 두 번째 뜻으로 러시아어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товарищ는 현대 러시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혁명과 관련해서 북한과 연관된 색채를 강하게 지닌 ‘동무’는 친구를 뜻하는 друг, соратник, дружище 등의 표현으로도 남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공산주의적 호칭

1) 본 장의 예문들은 이해승(2010)에서 부분적으로 발췌했음을 밝힌다.

2)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한국어 뜻풀이는 연세한국어사전(2006)을 참고하였다.

이라는 함의를 전달할 수 없다. ‘동지’와 ‘동무’가 가지는 차이 역시 타문화권 화자들에게 관련성 있게 다가갈 만큼 작품 전체에서 함의가 크지 않다.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정작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인의 러시아 원어민 번역사가 참여한 한국문학번역원 한국 문학 러시아어 번역 강의에서 본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 실습을 해본 결과, 실제 러시아어 번역에서는 러시아어권 독자들에게 관련성이 적은 ‘동무’와 ‘동지’가 가지는 의미상의 차이점, 함의를 전달하기보다 товарищ 한 단어로 통일시켜서 동무와 관련한 부분은 축소,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번역문 독자가 더 적은 노력으로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문의 정보를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2)

“아니, 아니, 내 다 이해해요. 자당님 입장도 이해하고, 춘부장님 입장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타당해요. 그리 복잡한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소.”

(p.31)

(2)의 경우 다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이 분화된 경우인데, 타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달리 부를 수 있는 호칭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러시아어로 그대로 옮길 경우 원문의 자당, 춘부장이 줄 수 있는 의사소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어머니로 대체해서 단순화, 일반화시키는 번역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추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번역문 독자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던 지식을 보완함으로써 원문의 정보가 번역문 독자에게 가지는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번역사는 독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맥락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주게 된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곽성희(2000:85)는 “(1)본문 내에서의 확대, (2)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설명 추가, (3)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설명 추가와 역주 표시, (4)각주, (5)권말의 용어 해설” 등의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3)

‘유신’바람이 일어나고 벌어지기 시작한 일이었다. ‘혁명공약’ 1조를 줄기차게 실천하는 셈이었다. 뒤늦게 안 일이지만 5.16 직후에 북에서 잠입해 들어온 황태성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박 정권의 반공주의였다.

(p.14)

예문 (3)의 경우 ‘유신’과 ‘혁명공약’, ‘5.16’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나오고 있다. 사실들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원문의 이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 번역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그것의 합리화에 사용된 혁명공약의 내용, 이후 3선 개헌을 통해 다시 독재 유지를 목적으로 발효한 헌법이 ‘유신’이라 불린다는 사실을 하나든 여러 개든 각주나 보충 설명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실제 번역 실습에서는 각각의 어휘에 별도의 각주를 첨가하는 방법과 동일 페이지

아래 하나의 각주로 통일해서 1960년대 유신 시대 한국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 위 사건들의 연관성을 상세하게 전달해줄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청자에게 새로 제시되는 정보는 기존의 지식과 맞물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소통 효과를 거두게 된다. 지식 체계가 공유되지 않은 생소한 두 언어권 독자들을 중개해야 하는 번역사는 매순간 어떻게 지식 체계의 간극을 메우고 원문과 번역문이 독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해석적 유사성을 담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생략, 대체, 추가정보 제시 등 번역사가 원문과 번역문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식 중개 방법으로 통칭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제 자료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러시아 포커스의 노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지식 중개 방법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 잠재적 번역사와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지식 중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 그 방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I. 분석 데이터: Russia Focus

Russia Focus는 러시아 정부의 법령, 성명 등이 공식적으로 게재되는 관영신문인 로시스카야 가제타³⁾가 세계 27개 유력 일간지와 제휴 하에 매월 증보판 형식으로 발행하는 신문으로 국내에서는 2012년 9월 이래 총 8회에 걸쳐 중앙일보사의 증보판으로 일반 독자에게 배포되었다. 로시스카야 가제타 이외에도 유력 러시아 일간지에 게재된 러시아 독자 대상의 다양한 기사들이 번역되어 실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을 접하게 할 뿐 아니라 현대 러시아 독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보도 및 분석 관련 텍스트의 수사적, 유형적 특성을 관찰할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Russia Focus 인터넷판⁴⁾에 실린 오피니언⁵⁾ 기사 중 원문이 실제 러시아 언론에 실려 공개되어 있고 RBTH사가 원문 공개에 동의한 총 27개의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 방법을 분석했다.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 번역문 상에 원문이 수정되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제시된 경우를 추출, 지식 중개가 이루어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지식 중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파일럿 스터디의 일환으로 실제 인터넷판에 게재된 바 있는 기사 중 한 편을 선정, 잠재적 번역사와 잠재적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번역사에게는 원문을, 독자에게는 원문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번역문을 보여주고, 번역사의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번역사와 독자가 지적

3) 이러한 공식적 기능 외에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여타 일간지와 마찬가지로 뉴스 보도와 함께 사건, 논평, 분석 기사들을 제공한다.

4) 지면판은 2012년 9월 1호가 발행되었으나 2013년 3월호를 다시 1호로 개정하면서 이후 매월, 격월로 발행되었고, <http://russiafocus.co.kr/> 사이트에 있는 인터넷판의 경우 지면판 기사를 포함, 지면판에 실리지 않은 다양한 기사 번역문을 주제 및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5) 오피니언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사건, 사실 보도를 벗어나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들 사이 특정 정보의 공유를 전제로 쓰이게 되고 공유되지 않은 정보가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사항을 비교, 지식 중개에 대한 두 주체의 수요에 있어서 공통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번역 방법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 본문 안에서의 정보 추가, 본문 내에 괄호 첨가 등이 나타났다.

1) 다른 표현으로 대체

Временно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эра Москвы Сергей Собянин и его команда были ошарашены сравнительно невысоким результатом: его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для победы, но мало для убедительности и безоговорочной легитимизации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ы.

(Уроки выборов, Глеб Черкасов)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 권한대행과 그의 선대위는 예상을 밑도는 선거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승리는 했지만 자신의 완벽한 정통성을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결과였다.

(선거의 교훈, 글레프 체르카소프)

위 예문은 모스크바 시장 선거 결과 발표 이후,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여당 후보의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 야당 후보로 출마한 인권운동가 나발니이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모스크바 시 정부의 입장을 묘사하고 있다. 밑줄 친 원문 нынеш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ы는 ‘러시아 수도의 현 지도부’라는 표현으로 직역된다. 논란의 중심이 된 모스크바는 기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원문의 독자와 번역문의 독자 모두 전후 맥락을 통해 모스크바 시장 선거 결과가 주요 주제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세르게이 소바닌이 선거 전까지 모스크바 시장대행을 맡고 있었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는 정보는 기사 전체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으며 위 문장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 주체로서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세르게이 소바닌이 곧 러시아 수도의 현 지도부를 뜻한다는 사전 지식을 러시아 독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한국 독자들은 그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수도의 현 지도부’라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주게 되면 한국 독자들은 ‘러시아 수도의 현 지도부’를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 권한대행과 그의 선대위’와 독립된 별개의 주체로 인식할 수도 있게 된다. 공유된 지식의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이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번역사는 ‘러시아 수도의 현 지도부’라는 표현을 ‘자신’으로 축소, 대체함으로써 역으로 세르게이 소바닌이 곧 모스크바 현 지도부를 뜻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И на этом фоне Россия и НАТО продолжают хмурить брови друг на друга и обмениваться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жестами. Рискну предположить: даже самые

убежденные ястребы в Пентагоне или на Арбатской площади не в силах пре-
дставить себе, что в Европе вспыхнет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с участием ве-
ликих держав.

("Искандеры" в Калининграде - пережиток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Федор Лукьян-
ов)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나토는 서로에게 인상을 쓰며 상징적인 행동을 주고 받고 있다.
유럽에서 강대국들이 개입된 군사 충돌의 발발은 미국이나 러시아 군부의 아무리 강경한
'매'파라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 감히 말해본다.

(‘이스칸데르’ 칼리닌그라드 배치... 냉전의 ‘회고전’에 불과, 표도를 루키야노프)

러시아가 유럽연합과의 접경지역에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를 배치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유럽과 러-
시아, 더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긴장감, 갈등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이다. 밑줄친
원문의 표현은 ‘펜타곤이나 아르바츠키야 광장에 있는 매파’이다. 펜타곤은 미국의 국방부가 위치한
곳, 아르바츠키야 광장은 러시아의 국방부가 위치한 곳을 의미하며, 두 경우 모두 두 개체 사이의 인-
접성(contiguity)에 바탕을 두고 있는 환유에 해당한다. 펜타곤에 미국의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
에 펜타곤이 미국의 군부 세력을 통칭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 독자들이 어느 정도
주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츠키야 광장은 지명 자체가 생소할 뿐 아니라 그곳에 러시아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고, 러시아 군부를 지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 독자들이 아닌 경우 유추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르바츠키야 광장에 있는 매파’라는 원문의 정보는
아르바츠키야 광장에 러시아 국방부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전 지식을 공유하지 못한 한국 독자들에게
‘러시아 군부’라는 새로운 맥락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다. 관련성-
을 확보하기 위해 번역사가 선택한 방법은 위 예문에서 보여진 대로 ‘펜타곤에 있는 매파’와 ‘아르바-
츠키야 광장에 있는 매파’를 미국의 군부, 러시아의 군부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2) 본문 안에서의 정보 추가

Освобождение Ходорковского, напомнившее многим высылку(только не чер-
ез Берлин, а через Франкфурт) в феврале 1974 года Солженицина, еще внеш-
не походило на спецоперацию по обмену шпионами. Что любопытно, в День
чекиста.

(Почему Кремль отпустил Ходорковского, ГеоргийБопт)

많은 이들에게 1974년 2월 솔제니친의 국외추방(당시는 베를린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가
무대였다)을 떠올리게 한 호도르콥스키의 석방은 그 모양새가 스파이 교환 작전을 방불케했
다. 푸틴 대통령의 전 직장인 정보부 종사자들을 기념하는 국경일 ‘정보부의 날’에 그가 석

방됐다는 점도 흥미롭다.

(크렘린은 왜 호도르코프스키를 석방했나, 게오르기 볼트)

러시아의 대표적 반정부인사인 호도르코프스키의 석방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다룬 위 기사에서 밑줄로 강조된 원문 표현은 День чекиста(체키스트의 날)이다. чекист(체키스트)라는 표현은 볼셰비키 혁명 당시 혁명에 찬성하지 않던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레닌이 만든 ‘반혁명 및 방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특수위원회(Всероссийская чрезвычай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борьбе с контрреволюцией и саботажем)’의 약자인 НК(체카)에서 비롯된 것으로, 러시아에서 과거의 KGB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부 사람들을 지칭한다. 기사에서 원문의 저자는 푸틴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도르코프스키가 형량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갑자기 석방될 수 있었는가를 역사적 사실, 현실 정치 상황과의 연관선상에서 분석하고 있다. 자신에게 반기를 든 대표적 올리가르히 정치인인 호도르코프스키를 푸틴이 자발적으로 석방했을 리는 만무하고, 원문의 저자는 그것을 강제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호도르코프스키의 석방이 유독 ‘정보부의 날’에 이루어졌음을 꼬집는다. 정보부 출신인 푸틴이 정적을 석방하면서도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사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모태나 다름없는 ‘정보부의 날’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푸틴이 과거 소련의 대표적 정보기관인 KGB 출신이며, 아직도 러시아 정계에서 정보부 출신의 정치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독자들은 호도르코프스키의 석방이 정보부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째서 흥미로운 일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사는 ‘정보부의 날’ 앞에 ‘푸틴 대통령의 전 직장인 정보부 종사자들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раздосадован и обижен на Януковича за провал Вильнюсского саммита, так что, вероятнее всего, поддержит политически и морально любую силу, которая выступит против него.

(Для Украины нет хороших сценариев, Федор Лукьянов)

EU는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EU-동부 파트너십’ 정상회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야누코비치 대통령에 유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좋은 시나리오’는 없다, 표도르 루키야노프)

위 경우 역시 번역사가 본문 안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번역문 독자의 이해를 도운 사례에 해당한다.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에 편입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유럽연합과의 협력 협정이 빌뉴스 정상회의에서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갑자기 반대의사를 밝히며 회의를 무산시켰고 우크라이나에는 격렬한 반러 시위가 촉발되었다. 위 예문에서 살필볼 부분은 Вильнюсский саммит(빌뉴스 정상회의)이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한 빌뉴스 정상회의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사는 본문 안에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에서 열린 'EU-동부 파트너십'이라는 부가 설명을 덧붙여주었다.

위 두 예문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가 추가되었다. 한국 독자들에게 생소한 러시아 인물에 대한 언급에서도 본문 안에 정보를 추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Фильмы о Гагарине, Высоцком и Харламове не только выполняют просветительную функцию, но и несут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нагрузку.

(Новый тренд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или создать аналог Голливуда,
Андрей Архангельский)

최근 러시아에서는 인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과 시인 겸 배우 비소츠키, 하키 선수 하를라모프 등의 생애를 다룬 전기 영화들처럼 계몽적 기능은 물론이고 이데올로기적 사명을 띤 영화들이 대거 제작되고 있다.

(러시아 영화의 새 트렌드, 또는 러시아판 할리우드 만들기, 안드레이 아르한겔스키)

가가린, 비소츠키, 하를라모프 등은 러시아인이자 당연히 알고 있고, 전기 영화가 제작될 정도로 큰 업적과 영향력을 가진 입지전적인 인물들이다. 한국 독자들에게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류 최초의 우주인', '시인 겸 배우', '하키 선수' 등의 부가 설명이 본문 안에 첨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문 내에 괄호 첨가

Для радикально антироссийски настроенных украинских националистов "Голодомор" 1933 года, вызванный действиями давно уже ушедшего в мир иной сталин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краины, но и в России и Казахстане, кончился как будто вчера.

(Бей Ленина, чтоб русские боялись? Дмитрий Бабич)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스탈린 정권이 자행한 1933년 '홀로도모르(Голодомор, Holodomor: 1932~33년 우크라이나에서 500~1,0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도 극단적 반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보인다. 게다가 대기근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됐다.

(러시아인을 겁주려면 레닌을 때려라? 드미트리 바비치)⁶⁾

6) 본 예문에는 원문에는 명시화되지 않은 인물에 대한 정보를 번역문 본문 안에 추가한 예도 발견할 수 있다. вызванный действиями давно уже ушедшего в мир иной(이미 오래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이 자행한)으로 되어 있는 원문의 표현에 '스탈린 정권'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주었다.

레닌의 동상을 쓰러뜨려 부순 후 그 조각을 시위 참여대에게 나누어주는 등 우크라이나인들이 최근에 보여준 반러 성향의 과격 행동이면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원인을 러시아의 탓으로 돌리는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원문의 저자는 홀로도모르를 예로 든다. 1930년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당시 소련에 소속되어 있던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을 휩쓸고 지나간 대기근인 홀로도모르가 마치 러시아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러시아 비판에 여념이 없다는 것이다. 번역사는 홀로도모르라는 현상에 대한 번역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 '1932~33년 우크라이나에서 500~1,0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이라는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역사적 사실, 대상에 대해 괄호를 덧붙여서 추가 설명을 제시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Не стоит забывать, что и объединилась-то украинская нация(впервые за тысячу лет!) в 1939 году в результате и вправду циничного пакта Молотова-Риббентропа, ...

(Там же.)

우크라이나 민족의 통일(천 년만에 처음으로!)도 1939년 정말 이해타산적인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독소 불가침조약)의 체결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의 기사)

Синий том Ахматовой покапался за немислимые шесть долларов в "Березке"(за что, кстати, грозил срок)

(Пересвеченное прошлое, Дмитрий Губин)

아흐마토바의 푸른색 시집은 '베료스카' 상점(Березка, 소련 시절 외국인을 대상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외화를 받고 판매하던 상점 망)에서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인 6달러에 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

('소련이라는 과거'의 재조명, 드미트리 구빈)

괄호 안에 부가 설명을 덧붙인 사례는 역사적 사실,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러시아 정치 체계나 러시아적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발견되었다.

Снятие кандидатов, актив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фильтра", который позволяет действующим главам регионов подбирать себе соперников по вкусу, ...

(Уроки выборов, Глеб Черкасов)

상대후보 사퇴 강요, 현직 지방 수장들이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경쟁자를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지방의회 필터(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ильтр, 지방의회 전체의원의 5-10%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만이 지방정부 수장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한 법)의 적극적 활용, ...

(선거의 교훈, 글레프 체르카소프)

Радостно воспринятое как в России, так и как минимум в восточной части Украины единоголосное решение членов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поддержавших обращени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Право на защиту, Антон Хашенко)

러시아 연방회의(상원)가 우크라이나의 사회, 정치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 ...

(러시아의 자기방어권, 안톤 하센코)

В СССР интеллигенция означала круг, где знанием гордились, где знание добывали, и нередко с боем.

(Пересвеченное прошлое, Дмитрий Губин)

소련 시절 인텔리겐치아(지식인)란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때로는 투쟁을 통해 지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소련이라는 과거'의 재조명, 드미트리 구빈)

원문과 번역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Russia Focus의 노한 번역에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 본문 안에서의 정보 추가, 본문 내에 괄호 첨가 등의 지식 중개 방법이 활용되었으며, 그 대상은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 속 특정 사물, 러시아의 지명, 인명을 이용한 표현, 러시아 정치체제와 개념, 러시아 관련 국제정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문 분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번역사는 번역문이 독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체, 정보 추가 등의 방법을 동원해 부족한 사전 지식의 간극을 메우고 해석적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정보를 추가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독자층을 겨냥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문기사와 같이 그것을 소비하는 독자층이 넓은 경우, 번역사가 주관적 생각, 개인적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면 자칫 정보의 부족 혹은 정보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무수히 겪게 되는 선택과 결정은 결국 번역사 개인의 몫이고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역사들이 공통으로 지식 중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이 번역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독자들이 느끼는 필요성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적 기준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장에서는 지식 중개의 수요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위해 파일럿 스터디의 일환으로 잠재적 번역사와 잠재적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번역사와 독자 대상 설문을 위해서는 Russia Focus에 게재된 기사의 원문과 번역문의 일부가 각각

사용되었다⁷⁾. 번역사 설문에는 현재 러시아어-한국어 전문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8인이 참여했으며, 독자 설문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5인의 한국 학부생들이 참여했다. 번역사 설문을 위해서는 러시아어 원문이, 독자 설문을 위해서는 실제 번역된 원고에서 번역사가 추가한 부가 정보가 삭제된 상태의 번역문이 제시되었다.

본인이 실제 번역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시하거나 원문을 수정, 보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 번역사 8인의 답변을 빈도수가 높은 항목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식 중개 필요 응답

| 지식 중개 필요 항목 | 응답인원 | 비중(%) |
|-------------------------------|------|-------|
| Ходорковский(호도르코프스키) | 7 | 87.5 |
| Том Клэнси (톰 클렌시) | 7 | 87.5 |
| День чекиста (정보부의 날) | 6 | 75 |
| список Магнитского (마그니츠키 명단) | 6 | 75 |
| Генри Киссинджер (헨리 키신저) | 4 | 50 |
| масонская ложа (프리메이슨 롯지) | 4 | 50 |
| Солженицын (솔제니친) | 3 | 37.5 |

8인 중 7인의 번역사(87.5%)가 호도르코프스키, 톰 클렌시에 대해 지식 중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뒤로는 정보부의 날, 마그니츠키 명단, 헨리 키신저, 프리메이슨 롯지, 솔제니친 등이 지적되었다.

8인의 전문 번역사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을 보면 러시아 인물이나 역사, 정치 관련 항목이 4개(호도르코프스키, 정보부의 날, 마그니츠키 명단, 솔제니친), 러시아와 관련 없는 일반 지식 관련 항목이 3개(톰 클렌시, 헨리 키신저, 프리메이슨 롯지)로 거의 비슷하다.

번역 방법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각주의 필요성을 언급한 번역사가 3인이 있었고, 3인을 포함 전체 응답자가 본문 안에서의 정보 추가나 본문 내 괄호 첨가,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위 항목 중 호도르코프스키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7인의 응답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호도르코프스키 응답 예시:

| 응답자 | 설문 예시 |
|-----|--|
| 1 | 탈세 등의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던 호도르코프스키가 석방되었다. |
| 2 | 푸틴에 맞서다 지난 2005년 사기, 탈세, 횡령죄로 형을 선고받아 10년간 복역해온 전 러시아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의 사면 과정에는... |
| 3 | 전 러시아 석유 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가 수감 10년만 |

7) ‘크렘린은 왜 호도르코프스키를 석방했나’ 중 호도르코프스키의 석방과 관련된 의문, 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다룬 진반부에 해당한다.

| | |
|---|--|
| | 에 사면됐다. |
| 4 | 러시아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
| 5 | 호도르코프스키가 누구인지, 언제 왜 구속되었으며 푸틴 정권에서 어떤 부담을 주었는지가 설명되어야 함. 이는 괄호 등으로 간단히 처리되기 어려우므로 배경 정보가 되는 문장을 삽입해야 한다고 봄 |
| 6 |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 각주 첨가 |
| 7 |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각주: 전 러시아 석유회사 유코스 회장으로 사기,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고 서방측에서는 이를 호도르코프스키가 야당을 후원하며 대권에 도전한 데에 대한 푸틴의 보복으로 보고 있음) |

본인이 신문기사의 독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가 제시되거나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표시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대학생 15인의 답변을 빈도수가 높은 항목 순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지식 중개 필요 응답

| 지식 중개 필요 항목 | 응답 인원 | 비중(%) |
|-------------|-------|-------|
| 마그니츠키 명단 | 13 | 86.7 |
| 호도르코프스키 | 11 | 73.3 |
| 툼 클렌시 | 8 | 53.3 |
| 솔제니친 | 8 | 53.3 |
| 정보부의 날 | 8 | 53.3 |
| 프리메이슨 롯지 | 6 | 40 |
| 교환 작전 | 5 | 33.3 |

잠재적 독자를 가정한 대학생 15인의 답변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은 13인(86.7%)이 지적한 마그니츠키 명단이었고, 호도르코프스키, 톼 클렌시, 솔제니친, 정보부의 날, 프리메이슨 롯지 등이 빈도수에서 그 뒤를 이었다. 번역사 설문과 독자 설문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식 중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 중 호도르코프스키, 톼 클렌시, 정보부의 날, 마그니츠키 명단, 솔제니친, 프리메이슨 롯지 등 6개가 일치한다. 번역사 설문에서는 호도르코프스키와 톼 클렌시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던 반면, 독자 설문에서는 마그니츠키 명단이 가장 높았다.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스터디 형식의 설문 조사이고, 설문 조사가 실제 번역 상황에 비해 추가 정보 제시 및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두 피설문자 집단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관련 전공자나 유관 분야 종사자에게 호도르코프스키는 기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실존 인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식 공유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재적 번역사나 독자 모두 공유되지 않은 정보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장애를 피하기 위해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솔제니친의 경우 노벨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 명성이 높고 러시아와의 관련 여부를 떠나서 많은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인 만큼 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호도르코프스키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났다. 하지만 번역사와 독자 집단에서 모

두 추가 정보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헨리 키신저와 프리메이슨 루지의 경우, 번역사들은 모두 추가 정보의 필요성을 지적한 반면, 독자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톰 클렌시와 정보부의 날, 마그니츠키 명단은 두 집단 모두가 번역사의 적극적 지식 중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번역사들이 호도르코프스키 다음으로 선택한 항목이 톰 클렌시와 정보부의 날인데, 이는 실제 번역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번역문에서 추가 정보가 제시된 것이 톰 클렌시와 정보부의 날, 두 가지였다.⁸⁾ 9). 이를 독자층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해당 번역문은 독자층을 본 설문의 대상이었던 일반 대학생보다 지식수준이 높은 혹은 러시아 관련 정보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중으로 설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대상 독자층을 어떻게 구상하는가에 따라 번역 방법은 달라질 수 있고, 역으로 번역 방법에 대한 관찰을 통해 독자 설정에 대한 유추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Russia Focus 노한 번역에서 나타난 지식 중개 방법을 관련성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러시아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인 원문이 번역문을 통해 한국 독자들에게 관련성 있는 정보로서 기능하고, 더 나아가 상응하는 맥락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번역사는 러시아 독자들에게는 경험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식, 번역문 독자들에게는 공유되지 못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야 한다.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Russia Focus 노한 번역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 본문 안에서의 정보 추가, 본문 내에 괄호 첨가 등의 지식 중개 방법이 관찰되었다. 대상은 주로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 속 특정 사물, 러시아 지명과 인명을 이용한 표현, 러시아 정치체제와 개념, 러시아 관련 국제정세 등이었다. 지식 중개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적 조사를 위해 잠재적 번역사와 잠재적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번역사와 독자 모두 번역문을 통한 적극적인 추가 정보의 제시,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언어권 내에서의 소통과 마찬가지로 번역 역시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결합되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의 중개자로서 번역사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제한된 지면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신문기사 번역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식 중개 방법에 대한 번역 일반론적 논의도 기대한다.

8) 톰 클렌시(2013년 10월 작고한 미국작가. 첩보 스릴러로 특히 유명함)가 살아있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푸틴 대통령의 전 직장인 정보부 종사자들을 기념하는 국경일 '정보부의 날'에 그가 석방됐다는 점도 흥미롭다.

9) 텍스트 일부에 대한 파일럿 스터디의 결과와 전체 텍스트에 대한 실제 번역 결과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설문에서 제시된 항목들을 이해하는 데에 텍스트 전체의 논리 전개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조정래. (2006). 『인간연습』. 서울: 실천문학사.

2차 자료

곽성희. (2000). 「정보성과 번역전환」. 『번역학연구』, 2(1), 77-9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8). 『연세한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이혜승. (2010). 「외국인에 의한 한국문학번역 고찰-러시아어 문학번역 실습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199-219.

Cheong, H. J. (2003). *Translated text expansion and contraction phenomena: A corpus-based study of quantitative target text changes as reflective of translator medi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illmore, C. (1982). Frame semantics. In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pp.111-138). Seoul: Hanshin.

Gutt, E. (1992). *Relevance Theory-A guide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translation*. New York: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United bible society.

Gutt, E. (2000).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Oxford: Blackwell.

Kussmaul, P. (1995). *Training the Translator*.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Lakoff, G. & Turner, M.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and London: The Univ. of Chicago Press.

Lederer, M.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Le modél de interprétatif*. Paris: Hachette.

Schäffner, C. (1997). Strategies of translating political texts. In A. Trosborg (Ed.), *Text Typology and Translation* (pp.119-4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Sperber, D. & Wilson, D. (1995).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Oxford: Blackwell.

Wilson, D. & Sperber, D. (1988). Representation and relevance. In Ruth M. Kempson (Ed.), *Mental Representations: The interf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pp.133-1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및 번역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I. 연구문제

- [1] 한국어와 영어 의성어·의태어 간에는 어떤 격차가 존재하는가?
 [2] 한국어 의성어·의태어를 영어로 옮길 때 어떤 기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장단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II. 한-영 의성어·의태어 비교

표 1. 한국어-영어 의성어·의태어 비교

| |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 영어 의성어·의태어 |
|---|---------------------|-----------------|
| 1 | 반복형이 일반적 | 단독형이 일반적 |
| 2 | 의태어의 수적 우위 | 의성어의 수적 우위 |
| 3 | 의성어·의태어를 통한 동사의 구체화 | 의성어·의태어의 동사화 |
| 4 | 기본 품사가 부사 | 기본 품사가 감탄사 |
| 5 | 폭넓은 장르·연령층에서 사용 | 한정된 장르·연령층에서 사용 |

III. 의성어·의태어의 번역

1.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 사용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1

(가) 서역 십만 리로 꿈무니에 불을 달고, 두 귀에 방울 달고 **왈강달강 왈강달강** 벼락 같이 떠나거라. (김동리 1936/2005, p. 426)

(나) With fire on your tail, and the bells on your ears, “**jingle-jangle, jingle-jangle**” go off to the West, like the thunder, go to the

hundred-thousand miles West. (김무홍 옮김 1975, p. 217)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2

(가) 그 순간이었다. **광광!** 굴 안이 미어지는 듯하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하근찬 1957/1994, p. 25)

(나) That was the instant. **Wham!**—the dynamite exploded and it was as if the inside of the cave was being torn to shreds. (O'Rourke 옮김 1981, p. 22)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3

(가) **둥둥.** 북이 우노라. (신석초 1959/1985, p. 69)

(나) **Ding, ding,** beats the drum. (김재현 옮김 1980, p. 131)

영어 의성어·의태어(감탄사)를 사용한 번역 4

(가) “**허허.**” 나쁜 일을 하다가 들킨 때처럼 석은 까닭 없이 잠깐 얼굴이 붉어졌다. (안수길 1953/1994, p. 163)

(나) “**Huh, huh.**” As if he had been caught out in some shameful act, for no reason, Suk briefly blushed. (김무홍 옮김 2000, p. 70)

2.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 사용 기법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1

(가) 나는 **킬킬** 웃는다. (천상병 1979/1995, p. 9)

(나) I **giggle.** (안선제와 김영무 옮김 2010, p. 135)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2

(가)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한림 1990, p. 4)

(나) The hunter **dashed** in the direction the woodcutter pointed. (Vorhees & Mueller 옮김 1990, p. 4)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3

(가) **바드득** 이를 갈고 죽어 볼까요? (김소월 1925/1994, p. 39)

(나) Shall I **gnash** my teeth and die? (김재현 옮김 1996, p. 38)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4

(가) **바르르** 꽃잎이 훈김에 떠다. (김춘수 2002, p. 30)

(나) Petals shiver in the warmth. (고창수 옮김 2002, p. 31)

영어 의성어·의태어(동사)를 사용한 번역 5

(가) 눈물 아롱아롱 (서정주 1948/1980, p. 107)

(나) Tears glinting (김재현 옮김 1980, p. 40)

3. 설명적 어구 사용 기법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1

(가)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 (김소월 1925/1994, p. 112)

(나) The road spokes off in myriad directions [...] (김재현 옮김 1996, p. 82)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2

(가) 여자가 기웃기웃하며 내 옆을 따라 내려왔다. (윤대녕 1996, p. 48)

(나) The woman followed me, by my side, looking around distractedly. (김술자 옮김 2002, p. 54)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3

(가) 영달이는 손을 잠바 호주머니에 처박고 연신 꼼지락거렸다. (황석영, 1973/2000, p. 398)

(나) Youngdal kept his hands in his pockets. He constantly worked them to keep warm as best as he could. (김유창 옮김 2000, p. 186)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4

(가) 옆방 여자가 와 있나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 사이에 횃집 사내가 바다에서 비를 맞으며 처벅처벅 걸어 나왔다. 턱수염에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윤대녕 1996, p. 53)

(나) While I was looking around the group for the woman from room 209, the restaurant owner came walking heavily out of the sea, with the rain falling on him. (김술자 옮김 2002, p. 64)

설명적 어구를 사용한 번역 5

(가) 길 건너 언덕에서는 알록달록한 뱀 한 마리가 돌 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김동리 1936/1994, p. 46)

(나) A snake on the hill opposite, its back a maze of designs, disappeared through a crack in the rock. (O'Rourke 옮김 1981, p. 38)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8).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원.
- 김경희. (2011). 「의성어와 의태어의 번역전략 고찰—한국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58, 33-53.
- 김미옥. (2004). 「초등학교 국어과 흥내말 지도 방안」, 『어문학교육』 28, 39-75.
- 김순임. (2003). 「독일어와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비교 연구」, 『독일언어문학』 21, 23-54.
- 남풍현. (1993). 「중세국어의 의성의태어」, 『새국어생활』 3(2), 93-115.
- 노진서. (2008). 「한-영 시 번역 텍스트에서 활용된 의성어·의태어 번역 전략」,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45-63.
- 목정수, 연재훈. (2000).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89-118.
- 박동근. (2008). 『한국어 흥내말의 이해』, 서울: 연락.
- 배성봉, 박혜원. (2012). 「한국 아동의 의성어와 의태어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01-115.
- 신지선. (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연구: 가독성과 가화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ooks LLC. (2011). *Onomatopoeia*, Memphis, TN: Author.
- Bussmann, H. (Eds.). (1998).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Routledge.
- Collins Cobuild. (2012). *Advanced Dictionary of English* (7th ed.), Glasgow: HarperCollins.
- Fromkin, V., Rodman, R., & Hyams, N. (2010). *An Introduction to Language* (9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 Macaulay, R. (1994). *The Social Act: Language and Its Us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am-Webster's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2008).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 Mossop, B. (2005). What practitioners can bring to theory?: The good and the bad. In J. Peeters (Ed.),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nslation Theory and Translation Practice* (pp. 23-29), New York: Peter Lang.
- Nida, E. A., & Taber, C.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haries, D. A. (1979). *Sound Symbolism in the Romance Languages*. Doctoral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ym, A. (2000). Why common ground is not automatically space for cooperation: On Chesterman versus Arrojo, *Target* 12(2), 334-337.
- Schourup, L. (1993). Contrastive study of Japanese and English onomatopoeia, *Gengo* 22(6), 48-55.
- Sharp, H., & Warren, B. (2009). The semantics of onomatopoeic words, *Folia Linguistica* 29(3-4), 437-448.
- Society for Pure English (SPE). (1931/2006). *Phonetic Symbolism* (S.P.E. Tract No. 69), Oxford: Clarendon Press.
- Strunk, W., Jr., & White, E. B. (2000). *The Elements of Style* (4th ed.), New York: Macmillan.
- Takashi, S. (2011). *Onomatopoeia in Spoken and Written English: Corpus- and Usage-based Analysis*, Doctoral thesis, Hokkaido University.
- Tamori, I., & Schourup, L. (1999). *Onomatopoeia: Morphology and Semantics*, Tokyo: Kurosio.
- Ullmann, S. (1981).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예문 발췌 문헌>

- 김동리 (1936/2005) 「무녀도」, 김종년(편저) 『한국단편소설 35』(400-423), 서울: 리베르.
- 김무흥 옮김 (1975) 'Picture of a Sorceress', 공병희(편저) *Korean Short Stories* (190-227), 서울: 일지사.
- 김동리 (1936/1994) 「바위」,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1』(41-50), 서울: 타임기획.
- O'Rourke, K. 옮김 (1981) 'The Rock',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31-43),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김소월 (1925/1994) 「길」, 윤주은(편저) 『김소월시 전집』(112), 서울: 학문사.
- 김재현 옮김 (1996) 'Road', *Sowol Kim, Korea's Greatest & Best Loved Lyric Poet of the Century: Unforgettable Love* (82), 서울: 백문사.
- 김춘수 (1957/2002) 「꽃」, 김춘수(편저) 『한국대표시인 101인 선집: 김춘수』, 서울: 문학사상사.
- 고창수 옮김 (2002) 'Flower 2', *Korea's Golden Poems* (31), 서울: 한림출판사.
- 서정주 (1948/1980) 「歸蜀道」, 『西으로 가는 달처럼』(40), 서울: 문학사상.
- 김재현 옮김 (1980) 'A Journey to Cathay',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since*

1920 (40), 서울: 시사영어사.

신석초 (1959/1985) 「바라춤」, 『바라춤』(69), 서울: 용성출판.

김재현 옮김 (1980) 'Bara Dance',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since 1920* (131), 서울: 시사영어사.

안수길 (1953/1994) 「제삼 인간형」, 김기웅,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4』(153-182), 서울: 타임기획.

김무홍 옮김 (2000) 'The Third Human Type', 공병희(편저) *Korean Short Stories* (54-98). 서울: 일지사.

윤대녕 (1996) 「천지간」, 박공근(편저)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20』(23-61), 서울: 문학사상사.

김술자 옮김 (2002) *Between Heaven and Earth*, 서울: 지문당.

천상병 (1979/1995) 「계곡흐름」,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92), 서울: 답게.

안선재, 김영무 옮김 (1995) 'Flowing Stream', *Back to Heaven: Selected Poems of Chon Sang Pyong* (204), 서울: 답게.

하근찬 (1957/1994) 「수난 이대」, 김병학(편저) 『한국단편 99선 5』(19-30), 서울: 타임기획.

O'Rourke, K. 옮김 (1981) 'The Suffering of Two Generations', 연세대학교 출판부(편저) *Ten Korean Short Stories* (19-29),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림 (1990) 「선녀와 나무꾼」, 한림출판사(편저) 『선녀와 나무꾼, 불개』(2-29), 서울: 한림출판사.

Vorhees, Duance, & Mueller, Mark 옮김. (1990).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한림출판사(편저)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 The Firedogs* (2-29), 서울: 한림출판사.

황석영 (1973/2000) 「삼포 가는 길」, 김성은, 염종선, 김명재(편저) 『황석영 중단편전집 2』 (200-225), 서울: 창작과비평사.

김유창 옮김 (2000) 'The Road to Sampo', 정정화(편저) *Modern Korean Short Stories* (176-201). Hong Kong: Heinemann.

세션 2: 특별세션
공공번역 실태조사 및 사례 발표

2:00-4:00

일반대학원 4층 BRICS홀

좌 장: 이 소 희 (서울외대)

발표자:

| | | |
|---------------------|---|----|
| 박 현 주 (한국외대) | 국내 공공번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번역 결과물 분석을 중심으로 | 25 |
| 왕 기 맹 (중앙대) | 한중 공공번역의 현주소 | |
| 임 순 정 (이화여대) |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 수립을 위한 한불 번역 실태 조사 | 40 |
| 이 승 재 (경희대) |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과 추정연구 | 47 |

토론자: 조 재 범 (한국외대), 강 수 정 (숙명여대), 이 주 연 (한국외대)

국내 공공번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번역 결과물 분석을 중심으로

박 현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I. 한국 공공번역의 현 주소

현재 우리 공공기관의 번역은 한마디로 '시스템의 총체적 부재' 상태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1.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공공번역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 일반 대중에게 공개, 사용되는 번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공번역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번역이므로 공공번역에 있어 정보 전달과 소통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문서나 법률 등의 공공번역은 이해관련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공유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의 한-미 FTA,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사태는 공공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또한 공공번역은 국가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도 직결되는 문제임. 외국어로 제공되는 관광 정보, 문화유산 정보 등의 공공번역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이용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나 호감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K-POP, 한류 인해 우리 문화컨텐츠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문화컨텐츠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수준 높은'번역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음. 하지만, 이들 문화컨텐츠 번역을 '공공번역'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해 우리 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공공번역 수요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움

또한 공공번역 전체 수요를 총괄적으로 파악, 관리하는 기구의 부재로 인해, 공공번역 전체 수요 및 수급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부처 (2013년 11월 기준, 17부, 3처, 17청) 내에서도 각 부처별 번역 수요 및 수급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범부처 차원의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 부처가 자체적으로 내주 및 외주 번역사를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번역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부처를 비롯, 각 공공기관별로 어느 정도 번역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번역 수요가 어떻게 처리되고, 번역 수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공번역 전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공공기관 내 번역 수요나 번역 현황을 파악하는 주체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개별 기관 내에서도 기관의 번역 수요를 총괄하는 부서나 직위가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별 번역 업무 담당자가 번역 수요를 내부에서 소화할지 혹은 외주 처리할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

3. 중복 발주로 인한 국가 예산 낭비

공공번역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총괄적인 공공번역 수요 파악 및 관리 부재로 인해 공공번역의 중복 발주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결과 공공번역 관련 프로젝트나 연구들 역시도 중복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

-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다국어사전』구축 사업” (2010년 ~현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 사전』 (2010년)
- 한국연구재단: 『통번역 분야의 실용적 활용 토대 마련을 위한 <한국문화 번역 용례집> 구축』(2013년~2015년)

상기 3개 프로젝트는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컨텐츠의 번역을 위한 용어 표준화와 그 결과물의 서비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발주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 또한 동일한 용어에 대해 서로 다른 번역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용어 표준화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가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단일 주체가 통합적인 예산과 기획을 갖고 집행할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번역 부문에서의 중복 발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4. 수준 낮은 번역물의 난립 및 일관성 결여

한편 공공번역의 경우, 전반적인 번역 수준이 낮고 <표 1>과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번역물이 난립하고 있다.

표 1. 번역 일관성 결여 사례

| 음식 종류 | 한국관광공사 | 한식재단 | 민간출판사(한림) “The Beauty of Korean Food” |
|---------------|---|--|--|
| 비빔밥 | bibimbap/ Bibimbap (Rice Mixed with Vegetables and Beef) | bibim bap/ Steamed rice topped with sautéed beef and a variety of colorful vegetables | Bibimbap/ Rice mixed with Vegetables, Beef and Fried Red Pepper Paste |
| | 韩国拌饭/韓國拌飯 (*간제/번체순) | 韩国拌饭 (拌饭) | 항목 없음 |
| 불고기 (쌈/쌈밥) | bulgogi (ssambap) / Bulgogi with Leaf Wraps | Bulgogi/ Bulgogi wrapped in leafy greens | Bulgogi/ Korean Barbecue |
| | 韩国烤肉/韓國烤肉 | 烤肉饭团 | 항목 없음 |
| 김밥 | Gimbap/ Dried Seaweed Rolls (Korean Rolls) | Gim bap/ Dried Seaweed Rolls (Korean Rolls) | Gimbap/ Rice Rolled in Laver |
| | 紫菜卷饭/紫菜卷飯 | 紫菜饭卷 | 항목 없음 |
| 떡볶이 | Tteokbokki/tteokbokki | topokki | Tteokbokki |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외국어 자료나 외국어 웹사이트의 경우, 오역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부 경우에는(예: 공공데이터포털) 심각한 비문(非文) 수준의 번역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호정, 2013).

II. 실태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

이상에서 지적한 공공번역이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그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자, 2건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통역번역학회의 공공번역표준화 연구팀은 2013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배경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BK사업단이 수행한 ‘국내공공기관의 번역 현황’(2001)과 한국문학번역원이 발주한 ‘국가 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공공분야 번역을 중심으로’(2007)라는 두 건의 선행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통역번역학회의 공공번역 표준화 연구팀은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2013)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1) 기존 영어 중심의 번역결과물 분석 범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 언어로 확대하였으며, 2) 공공기관의 번역 결과물뿐만 아니라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등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고, 3) 번역 수급 및 수준 관리 과정을 조사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 번역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 번역을 수주받아 수행하는 전문 번역사들도 포함시켰으며, 4)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공공번역 표준화 모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2.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외국어 표기 기준 분석

□ 분석 대상

- 영어: 5개 기관에서 발표한 6개 번역 지침 및 외국어 표기 기준¹⁾
- 일본어: 3개 기관에서 발표한 5개 번역 지침 및 외국어 표기 기준²⁾

□ 분석 방법: 언어별 번역 지침 및 외국어 표기 기준 상호 비교분석

1) 전반적 검토 결과 (영어)

[1] 국립국어원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기준 원칙으로 삼음

- ✓ 모든 검토 대상 표기 기준 및 지침에서 공통적 채택
- ✓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외에 도로표지판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새주소 도로명판은 안전행정부, 문화재명의 경우는 문화재청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명시

[2] 의미역 병기 원칙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 ✓ 문화재청: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표기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의미역을 생략, 의미역을 중시

1) 국립국어원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00),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2012),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가이드 번역 가이드라인’(2012),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2013),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2013),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 및 기타 자료 편집을 위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2012)

2)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일본어’(2012),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가이드 번역 가이드라인’(2012), 문화재청 ‘문화재명칭 일문표기 기준 규칙’(2013),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명 일본어 표기 기준’(2010), 한식재단 ‘한식 메뉴 외국어 표기안 제작과정’(2012)

- ✓ 한국관광공사: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설명)을 동시에 제공하되 반복되는 경우는 의미역을 생략
- ✓ 서울시: 로마자표기법을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의미역을 추가
- ✓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만 제시

[3]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 의미역 병기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
- ✓ 문화재청
 -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라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단일 구성 명칭의 경우, 대개 명칭 전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로마자 표기를 하되, 의미 단위로 로마자 표기 띄어쓰기를 하거나 복수의 로마자 표기 방식을 취함

[사례 1]

삼국유사:Samguk yusa

[사례 2]

동해안별신굿:Donghaean Byeolsingut

- ✓ 한국관광공사
 - 한글 표기에서 붙여 쓰는 용어를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아 전체를 로마자 표기한 후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 설명어를 붙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지 못함

[사례 3]

해미읍성: Haemieupseong Fortress

[사례 4]

남목마성: Nammok Horse Ranch Wall

2) 항목별 세부 검토 결과 (영어)

[1] 인명 표기

- ✓ 국립국어원: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쓰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 사용을 허용.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음

- ✓ 한국관광공사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국립국어원 인명 표기 방식 수용
- ✓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쓰고 이름의 음절 사이에는 하이픈(-)을 사용,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되, 붙임표(-)를 넣는 방식을 표준으로 인정
- ✓ 문화재청: 국립국어원 인명 표기 방식 수용
- ✓ 서울시: 인명, 회사명, 단체명, 기관명 등은 그 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기존 표기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취함

[2] 국가 · 왕조명 표기

- ✓ 한국관광공사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국가명은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고 한 단어로 씀
- ✓ 기타: 다른 기준이나 지침에서는 국가명 표기를 따로 언급하지 않음
- ✓ 한국 역사, 문화 관련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대명, 국가명, 왕조명에 대한 표준화 및 보완이 시급히 필요해 보임

[3] 기관/단체명 표기

- ✓ 인명 표기와 마찬가지로 기관/단체명의 경우 기존 표기 방식을 존중하는 입장이 다수
- ✓ 표준화된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기관명이나 단체명을 표기하고 있어 로마자 표기법에 위배되는 표기 방식이 빈번히 등장하고, 영문 명칭 표기만 보아서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성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4] 지명 표기

- ✓ 행정 지명
 - 관리기관별로 표기 방식이 상이함
 - 행정구역명을 고유명칭의 일부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 특히 행정구역명이 포함된 문화재명칭 표기에 있어 일관된 표기 방식이 절실함

[사례 5]

화천수력발전소: Hwacheon Hydropower Plant

화천 꺼먹다리: Kkeomeokdari Bridge in Hwacheon

[사례 6]

여주계신리 마애여래입상: Yeosu Gyesilli Standing Rock-carved Buddha
 예산화전리 사면석불: Hwajeonli Stone Buddhas of Yesan

✓ 자연지명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국어원: 속성지명을 로마자로 바꾸어 고유지명과 붙임표 없이 표기
- 문화재청, 한국관광공사: 전체를 로마자 표기하고 후부요소의 의미역 표기를 함께 병기

사례 7. 자연지명 ‘남산’의 기관별로 상이한 표기 방식

| | |
|---------|--------------------------------|
| 국립국어원 | Namsan |
| 한국관광공사 | Namsan Mountain |
| 문화재청 | Namsan Mountain |
| | Namsan (도표 표지판 등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 |
| 서울시 | Namsan (Mountain) |
| 국토지리정보원 | Namsan |

✓ 문화재 및 인공지명

- 국토지리정보원: 자연지명과 동일한 표기 방식 적용, 실제 번역된 사례에서는 로마자만 표기하는 경우와 의미역을 병기하는 경우가 혼재함
- 한국관광공사: 문화자원의 경우, 우리말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고유명사의 뜻을 풀이하여 표기
-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은 문화재 분류 방식을 따라 작성되어 세분화되어 있음
- 서울시: 문화재명의 영문표기는 문화재청의 표기 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는 있지만,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에서는 495개의 영어 문화재명칭 항목만이 검색 가능한 정도에 그침

3)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차적으로 번역 지침 및 외국어 표기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번역결과물의 일관성 결여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차역과 의미역 병기 기준이 기관별로 상이하며 한 기관 내에서도 실제 번역 사례에서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음차역 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에 통용되어 온 표기방식과 로마자 표기

방식 혹은 기관이 제안하는 새로운 표기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표 2. 번역 지침 일관성 결여 사례

| | | |
|------------|--|--|
| 기관 (기준) | 서울특별시 “주요 기관명과 지형지물 등에 대한 영 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 기준안” | 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정안” 행 정예고 중(문화재청 공고 제2012-311호) |
| 괄호 사용 | 산, 강, 섬, 도로, 사찰, 교량, 문화재* 등 의 경우 (중략) <u>괄호를 사용한다.</u> 예)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 자연지물 또는 인공건축물 (중략) 분류어의 의 미역 표기를 (중략) <u>괄호 없이 덧붙인다.</u> 예) 경복궁 Gyeongbokgung Palace 남한산성 Namhansanseong Fortress |
| 문장 부호 | 영문 약자의 경우 영어권 국가에서 통용되 는 약지만을 사용토록 하고 반드시 apostrophe(‘) 또는 period(.)를 병기한다. 예) 빌딩 Bldg. / 산 Mt. | (중략) 로마자 표기상 발음을 구분하는 불임표(-) 와 아포스트로피(‘) 등의 부호는 사용하지 않음 을 원칙으로 한다. 예) ‘산’을 ‘Mt.’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 |
| 번역어 | - ‘섬’을 Islet으로 번역 예) 밤섬 Bamseom (Islet) | - ‘섬’을 Island로 번역 예) 밤섬 Bamseom Island |

3. 공공기관 번역 결과물 분석

□ 분석 대상

- 총 30개 공공기관의(<별첨 1> 참조)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웹사이트

□ 분석 방법: 10개 오류 유형을 (<별첨 2> 참조)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외국어 용례집 및 웹사이트 번역결과물 분석

1) 영어 번역 결과물 분석 소결

영어 번역 결과물의 경우, 전반적인 번역 수준은 이전 연구들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문법 오류의 경우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공공데이터포털 사이
트의 경우는 심각한 비문 수준의 번역이 제시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한편 문
법 오류 및 문장 부호 오류와 같은 표면적 오류가 줄어든 반면, 어휘 차원의 의미 손실 혹은
추가, 도착어에서의 관용성 위배, 수명성이 부족한 번역은 여전히 문제가 될 정도로 다수 발
견되었다. 여러 오류 유형 중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일관성 결여. 일관성 결여 문제는 상이한
여러 기관의 번역 지침들 간에는 물론, 동일 기관의 번역결과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문화재

등의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문화소 표기 역시 일관성 부족이 심각한 분야로, 문화소는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표기하고 이를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해당 문화소의 국제적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문화소 표기의 표준화 및 통일성 제고 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문화소 번역의 경우 음가만 제시하는 ‘음차 번역’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음차 번역은 해당 문화소가 어떤 의미나 유래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전달을 포기한 번역으로 문화소의 확산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번역지침 변경 및 개선이 절실히 보인다.

2) 중국어 번역 결과물 분석 소결

중국어의 경우, 웹페이지 관리 소홀로 중국어 대신 일본어 번역이 들어가는 등 기초적인 오류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주요 부처 및 한국학 관련 기관의 웹페이지가 관리 소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총 19개 공공기관의 중국어 웹사이트 분석 결과, 번역 수준이 높은 소수 기관과 수준 이하의 번역을 제시하는 다수 기관이 혼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어에서 함께 사용되지 않는 어휘들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고, 수용성이 부족한 문장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이트는 단지 중국어 웹페이지를 갖추어 구색을 맞추고자 했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전반적인 번역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의 중국어 번역에서는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용어 사용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이나 서울시 외국어 표기 사전’의 표기와 달라, 중국어 번역 결과물 역시도 일관성 결여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소 번역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한식 용어를 적극적으로 번역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식메뉴 외국어 길라잡이’의 경우 중역(重譯)이라는 번역 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하였으나, 오히려 이것이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는 중국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번역의 경우, 중국어 간체자와 번체자의 혼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3) 일본어 번역 결과물 분석 소결

내용 전달이나 기본적인 표기 오류로 인한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본어 원어민이 읽어서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번역 수준을 가진 사이트는 드물었다. 홈페이지 번역에 있어 특히 기관장 인사말 번역에서 오류가 자주 발견되었다. 또한 동일한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서도 섹션별로 번역 수준이 평준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는 웹사이트의 특성상 업데이트시 동일한 번역사가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그만큼 홈페이지 번역 수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어,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역시도 여러 기관의 표기 지침간 일관성 결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4) 프랑스어 번역 결과물 분석 소결

프랑스어 번역 결과물의 경우는 중역으로 인한 부정확한 번역 혹은 원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번역이 다수 발견되었다. 문화소 번역 및 표기 통일의 필요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 전문가와 프랑스어학자, 프랑스어 아웃바운드 번역전문가간의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어의 경우도 기관간 및 동일 기관 내 번역 일관성 결여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기관 홈페이지 내에서도 섹션별로 번역수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프랑스어의 경우는 기본적인 철자 오류 역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III. 분석 결과 종합

이상의 연구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여러 공공기관에서 용어 표기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으로 이는 공공번역 표준화의 첫 단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번역 지침 및 표기 기준 간에 상이한 점들이 많고, 이 기준들을 개발 구축한 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과 공유하거나 상호 조정하여 통일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서로 상이한 지침 및 기준의 존재가 오히려 번역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외국어 웹사이트의 경우 중국어 웹사이트임에도 일본어 내용이 채워져 있거나 내용이 일본어에 준하여 표기되어 있는 충격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웹사이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중요한 채널인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하는 매체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어 웹사이트의 현 관리 상태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웹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번역의 수준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사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도착어 사용자들의 언어사용관습에 위배되거나 수용성이 떨어지는 표현으로 어색하게 받아들여지는 번역이 아직도 많이 발견된다. 한편 일본어와 중국어의 경우는 해당 도착어에 맞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무신경하게 한국어 한자어가 섞여 쓰이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일부에서 우리 문화콘텐츠나 한식명의 음가를 전달하기 위한 음차번역이 의도하는 발음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언어별로 번역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언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를 통틀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번역의 문제는 일관성 결여였다.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현상은 서로 다른 기관에 의한 번역은 물론이고 동일기관 웹사이트 안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났다.

또한 중국어와 프랑스어 번역의 경우 중역(重譯)이라는 번역전략을 의도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자연스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문장을 낳고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역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별첨 1>

표 6. 번역결과물 수준 평가 및 분석 대상 기관 및 홈페이지

| 구분 | 분석 대상 공공기관 | 홈페이지 |
|-------------|------------|----------------------------|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 공공데이터포털 | www.data.go.kr |
| | 대검찰청 | www.spo.go.kr |
| | 관세청 | www.customs.go.kr |
| | 기상청 | www.kma.go.kr |
| | 농촌진흥청 | www.rda.go.kr |
| | 법무부 | www.moj.go.kr |
| | 산림청 | www.forest.go.kr |
| | 산업통상자원부 | www.motie.go.kr |
| | 서울메트로 | www.seoulmetro.co.kr |
| | 청와대 | www.president.go.kr |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 www.seoul.go.kr |
| | 부산광역시 | www.busan.go.kr |
| | 제주특별자치도 | www.jeju.go.kr |
| 문화관광번역 관련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 www.gogung.go.kr |
| | 국립민속박물관 | www.nfm.go.kr |
| | 국립중앙박물관 | www.museum.go.kr |
| | 한국국제교류재단 | www.kf.or.kr |
| | 문화재청 | www.cha.go.kr |
| | 문화체육관광부 | www.mcst.go.kr |
| | 한국관광공사 | www.visitkorea.or.kr |
| | 한국콘텐츠진흥원 | www.kocca.kr |
| 기초예술번역 관련기관 |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
| | 국립극장 | www.ntok.go.kr |
| | 대한민국예술원 | www.naa.go.kr |
| | 서울예술단 | www.spac.or.kr |
| | 예술의전당 | www.sac.or.kr |
| | 한국문학번역원 | www.klti.or.kr |
| 한국학번역 관련기관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www.e-kyujanggak.snu.ac.kr |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www.unesco.or.kr |
| | 한국학중앙연구원 | www.aks.ac.kr |

<별첨 2>

번역결과물 평가 분석 틀

| | 오류 유형 | 정의 |
|----|--------------|--|
| 1 | 부정확한 번역 |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틀린 번역 |
| 2 | 부적절한 번역 | 사회문화 관습과 관행에 맞지 않아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3 | 상위어/하위어 번역 | 구체적 하위 범주화 혹은 추상적 상위 범주화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4 | 생략/첨가 | 정보의 누락 혹은 첨가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5 | 일관성 결여 | 자료 내, 자료 간 통일성 부재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6 | 관용성 위배 | 관용적 언어 사용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7 | 수용성 부족 | 도착어로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어색한 표현으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8 | 문법 오류 | 문법 규칙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9 | 철자 및 문장부호 오류 | 철자 표기 및 문장부호 표기 규칙 위배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 10 | 발음 표기법 오류 | 음차 표기 문제로 정보 전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번역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2000).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서울: 국립국어원.
- 문화재청. (2013). 『문화재명칭 영문 표기 기준 규칙』. 서울: 문화재청.
- 박경희. (2007). 국가 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 한국문학번역원.
- 이승재 외.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 연구』, 2(2), 57-107.
- 정호정 (2013).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원.
- 한국관광공사. (2012).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지침』. 서울: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2012). 『스마트투어 번역가이드라인』. 서울: 한국관광공사.

<인터넷 자료>

- 국립국악원. (2013). Retrieved 2013년 9월 30일 from <http://www.gugak.go.kr:9001/eng/index.jsp>
- 국립극장. (2013). Retrieved 2013년 9월 30일 from <http://www.ntok.go.kr/english/jsp/board/education.jsp?cate1=B0007&cate2=B71>
- 국립민속박물관.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7일 from http://www.nfm.go.kr/language/english/htm/info3_conven.htm
- 국제교류재단. (2013). Retrieved 2013년 9월 30일 from http://www.kf.or.kr/eng/09_pro/pro_esc.asp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5일 from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3z03z01&method=view>
- 공공데이터포털. (2013). Retrieved 2013년 9월 30일 from <https://www.data.go.kr/engMain.jsp#L3B1YnMvcG90L0lyb3NFbmdJbnRyb0luc3R0JEBeMTAx>
- 대한민국예술원.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5일 from <http://e-kyujanggak.snu.ac.kr/kiks/board.do?m=03z03z01&method=view>
- 문화재청.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7일 from http://jikimi.cha.go.kr/english/search/search_new.jsp
- 문화체육관광부.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7일 from <http://www.mcst.go.kr/english/aboutus/history.jsp>
- 법무부.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0일 from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98&strOrgGbnCd=104080&srWrtNo=31&strRtnURL=ENG_4010&strAnsNo=A
- 부산시.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0일 from http://etour.busan.go.kr/board/list.busan?boardId=ENG_ATTRACTION&menuCd=DOM_000000202001002000&contentsSid=219
- 서울시 외국어표기사전. (2013). 서울시 외국어(영어) 표기 기준. Retrieved 2013년 9월 28일 from <http://dictionary.seoul.go.kr/spelling/html/page/notation>

서울예술단.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4일 from http://www.spac.or.kr/eng/eng_repert.asp

예술의전당.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4일 from <http://www.sac.or.kr/eng/space/space.jsp>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4일 from
<http://eng.unesco.or.kr/wp/location/>

제주특별자치도.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4일 from

<http://english.jeju.go.kr/index.php/contents/AboutJeju/info/seogwipo/history>

청와대.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5일 from

http://english.president.go.kr/tours/place_buildings/place01.php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Retrieved 2013년 10월 15일 from

<http://www.koreanhistory.or.kr/eng/intro/viewHomeInfo.jsp>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 수립을 위한 한불 번역 실태 조사*

임 순 정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가적 위상 재고와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홍보물³⁾을 제작·번역하고 있다. 해외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표현을 자제하고 우리 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번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다수의 문화권 독자들이 접하게 될 해외홍보물을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제작·번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해외홍보물 번역 시 특히 난제로 지적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칭하는 인명, 지명, 문화재명, 음식명, 전통 놀이명, 서책명, 미술품명 등 외국인 독자들에게 생소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 등가(equivalence)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고유어(culture specific term)의 번역이다. 외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번역 전략과 번역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 문화의 홍보 방향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고유어의 번역은 중대차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주지하여, 본 연구는 범국가적인 해외홍보물 번역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외홍보물의 번역 실태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문화고유어와 번역지침

번역은 서로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으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언어적·사회적·문화적

3) 류정영(2010: 90)은 정부의 해외홍보활동에 활용되는 각 부처에서 제작한 정책소개책자, 연감, 홍보 간행물, 국가이미지 홍보 영상물, 화보집, 국가이미지 CF, 온라인 웹사이트 등을 해외홍보물로 간주하고 있다.

행위이다. 따라서 번역을 통해서 문화적 특징이 온전히 전달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타 문화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된다.

타 문화권의 이국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문화고유어는 음역(transliteration)과 의미역(semantic translation)이라는 두 가지 번역 방식으로 주로 번역되어왔다. 음역은 출발어 발음을 도착어 문자를 사용하여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이며, 의미역은 출발어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듯 풀어서 전달하는 방법이다. 문화고유어를 번역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지, 어떠한 번역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도착어 국가 독자들의 수용성(acceptability)⁴⁾이다. 여기에서 ‘수용성’이란 ‘도착어 언어권 독자들이 번역문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착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개입 정도와 번역어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나 사물을 독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번역 방법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출발어 문화의 인지도, 출발어 문화에 대한 동조 현상, 잠재적 독자의 유형 그리고 출발어 텍스트의 기능과 번역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고유명사는 보통명사와 달리 일반적으로 의미번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번역을 추구한다⁵⁾. 의미번역이란 등가번역으로 ‘의미(meaning)’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번역으로 출발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표현의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해당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 가장 적합한 등가의 도착어 표현을 찾는 것이다. 반면, 음성번역은 말 그대로 출발어 표현의 음가를 도착어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라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음가’라는 객관적인 개념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명사 번역의 경우, 번역가의 주관적 해석이나 개입 여지가 적고 객관적 기준만 존재한다면 그 누가 번역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과연 어디까지를 고유명사의 범위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기준 적용의 문제, 다양한 표기법 공존의 문제, 표기법 관련 기준의 변화 등 복잡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홍보물에 등장하는 문화고유어의 번역은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번역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만한 번역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해외 홍보

4) 뚜리(Toury 1995: 26-28)는 번역을 통해 문화적 결핍을 보충하게 되며, 번역으로 인해 도착어 문화가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번역을 통해 소개되는 문화가 도착어 문화 독자의 입장에서 타당하고 수용가능하며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어야 받아들여지고 기존의 문화를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5) 유명우(2000)는 적절한 의미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어를 받아들이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음성번역(Phonetic Translation)이라고 설명하며, 번역은 다음의 3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 ㄱ) 원어차용(Zero Translation) :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Sports
- ㄴ) 음성번역(Phonetic Translation) : 외래어-스포츠
- ㄷ) 의미번역(Phonetic Translation) : 일반적 번역-운동

물 제작 및 번역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번역 지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 지침 목록

| | 발행기관 | 자료명 | 발행연도 | 해당 언어 |
|---|---------|----------------------------------|-------|-----------|
| 1 | 국립국어원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2000년 | 로마자 사용 언어 |
| 2 | 한국관광공사 | 외국어 관광안내 표기 지침 | 2012년 | 영·중·일 |
| 3 | 한국관광공사 | 스마트투어가이드 번역 가이드라인 | 2012년 | 영·일 |
| 4 | 문화재청 |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 2013년 | 영·중 |
| 5 | 서울시 | 외국어 표기 기준 | 2013년 | 영·중 |
| 6 | 국토지리정보원 | 지도 및 기타 자료 편집을 위한 지명의 국제적 표기 지침서 | 2012년 | 영 |

위의 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번역 지침은 영어로 제작되고 있으며, 영어 이외에 번역 지침을 보유하고 있는 언어는 일어와 중국어가 전부였다. 앞서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법이 실제로는 영어 표기법과 동일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통용되는 번역 지침은 유럽어를 별도로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번역 지침을 제작·발간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 간에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에 발간된 자료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미역과 음역을 적용하는 기준이 기관 간에 상이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처럼 번역 지침마다 제시하는 기준이 상이할 경우,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감안했을 때, 해외홍보물 번역은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번역 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III.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불어로 번역된 해외홍보물로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코퍼스 목록

| | 기관 | 자료 유형 | 자료명 및 홈페이지 주소 |
|---|--------|-------|---|
| 1 | 한식재단 | 책자 |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 |
| 2 | 한국관광공사 | 웹페이지 | http://french.visitkorea.or.kr/fre/index.kto |

| | | | |
|---|---------|------|---|
| 3 | 서울시 | 웹페이지 | http://french.seoul.go.kr/ |
| 4 | 국립중앙박물관 | 웹페이지 | http://www.museum.go.kr/site/main/index018 |
| 5 | 국립민속박물관 | 웹페이지 | http://www.nfm.go.kr/language/french/main.jsp |
| 6 | 국립국악원 | 웹페이지 | http://www.gugak.go.kr/site/gugak/menu/1901.do |

웹페이지의 경우,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2013년 8월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분석 대상은 총 160만 1847단어에 달하며, 한식재단 책자는 200페이지에 달한다.

해외홍보물이라는 자료의 특성상, 언어별로 해당 언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어 텍스트와 출발어 텍스트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는 홍보물을 접할 대상과의 효과적인 소통⁶⁾을 위해 용어 선택, 문장의 길이, 부연 설명 그리고 더 나아가 콘텐츠의 수정 및 선별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출발어 텍스트와의 등가 실현이 아닌 도착어 독자들에게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⁷⁾ 전달 유무를 분석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1. 발음 표기 오류

김치(kimchi), 동치미(donchimi)
 오이소바기(oisobagi)와 우거지(Ugeoji)
 회(hoe)

2. 상위어 번역

가래떡-떡(Tteok)
 양념간장-간장(sauce de sauja)

3. 단순화 및 생략

꾸덕꾸덕하게
 짹짹한
 자작하게

6) 류정영(2010: 96)

7) 정보의 정확성은 일반인의 상식에 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4. 부정확한 정보

김치찌개-전통적으로 매 끼니 밥과 함께 곁들여먹는 찌개

육개장 재료-abat(허드레고기)

열무김치-맵지 않다

쓰레기 종량제-배출하는 쓰레기의 질

총각김치-kimchi des vieux garçons(노총각김치)

5. 일관성 부족

떡-ttoek vs Tteok

녹두-nokdu(haricots mungo) vs haricots verts

오이소박이-l'oisobagi vs Oisobaegi vs oi sobagi

나물-légumes(야채) vs namul

전-galette, crêpe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고유어 번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로마자표기 기준과 도착어 발음체계의 불일치로 인한 발음 표기

로마자표기법의 경우, 영어 발음체계 위주로 제작된 만큼 다양한 유럽어 발음 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음역한 번역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감안하여 언어별로 해당 외국어 발음 체계를 감안하여 문화고유어를 번역하게 될 경우, 외국어 표기법의 일관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로마자표기법을 번역 시 표준으로 삼되 한국어 발음을 재현할 수 있는 도착어 음역을 주석이나 괄호 안에 병기하여 정확한 발음을 알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체계적·일관적·세부적 기준

해외홍보물 번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기관에서 제작한 자료는 물론 타 기관에서 제작된 자료 간의 번역 기준과 번역어 간의 불일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관 별로 자체적인 번역 지침을 마련하며, 타 기관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비용·시간·노력 면에서 상당히 소모적이며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번역 지침을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단일 번역 지침을 제작하여 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번역 지침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한국학, 언어학, 번역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우수성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 및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도차어로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학제적인 접근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4) 주무 기관의 선정 및 홍보 활동

기존의 번역 지침 및 코퍼스 분석을 통해 그간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홍보물 제작과 번역 및 번역 지침 제작을 담당해왔고, 이들 간의 조율이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간행물과 웹페이지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담당 기관 중심으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진 결과, 기존 자료의 분석이나 타 기관과의 협업 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홍보물 제작 및 번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무 부처를 지정하여 번역 업무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결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중복 업무를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0). 『로마자 표기 용례 사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경희. (2002). 「문화차이의 번역에 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50, 626-652.
- 김정우. (2008). 「번역의 관점에서 본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 『번역학연구』, 9(2), 67-93.
- 김혜림. (2012). 「한·중 간 음식명 번역양태 비교」. 『통역과 번역』, 14(1), 49-69.
-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 75-101.
- 양병선. (2000). 「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번역학연구』, 1(1), 145-167.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유정영. (2011). 「해외홍보물에서의 번역의 중요성」. 『통번역학 연구』, 14(2), 87-106.
- 정경일. (2012). 『국어 로마자 표기의 오늘과 내일』. 서울: 역락.
- 정호정 등. (2013). 『공공번역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서울: 국립국어원.
- 정호정 등. (2007). 『국가번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정호정. (2008). 「번역된 문화텍스트의 정보성 증가와 로마자 표기 방식의 문제점」.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0(1), 161-188.
- 한국교열기자협회[편]. (2000). 『한국어 로마자 표기사전』. 서울: 한국교열기자협회.
- Ballard, M. (2001). *Le Nom Propre en Traduction Anglaise ↔ Français*. Paris: Ophrys.
- Cordonnier, J-L. (1995). *Traduction et Culture*. Paris: Les Editions Didier.
- Jeanmaire, G. (2008). Etude sur la traduction en français des anthroponymes coréens. 『프랑스어문교육』, 27, 275-307.
- Nord, C.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Nord, C. (2003). Proper names in translations for children: Alice in Wonderland as a case in point. *Meta*, 48(1-2), 182-196.
- Toury, G.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과 추정연구

이 승 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I. 서론

본고에서 2012년 관광공사 주최로 발주된 가칭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서에 근거하여 2014년 현재 번역센터 설립의 진척여부를 추정조사하여 향후 공공번역업무를 담당할 공공번역청 설립의 가시적인 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12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서'를 살펴보고 주요한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서의 향방을 비교해 보고 제안된 사업들의 진행정도를 점검해 본다. 이는 정부나 공사에서 발제한 대형 사업에서 흔히 지적되는 지속적인 성과와 사업적인 현실성보다는 일회성·가시성 제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안서의 현실적 적용과 실용성을 높여 산·관·학 협동의 일례를 보여줌과 동시에 향후 발족될 가칭 '공공번역청' 설립에 가시적 모델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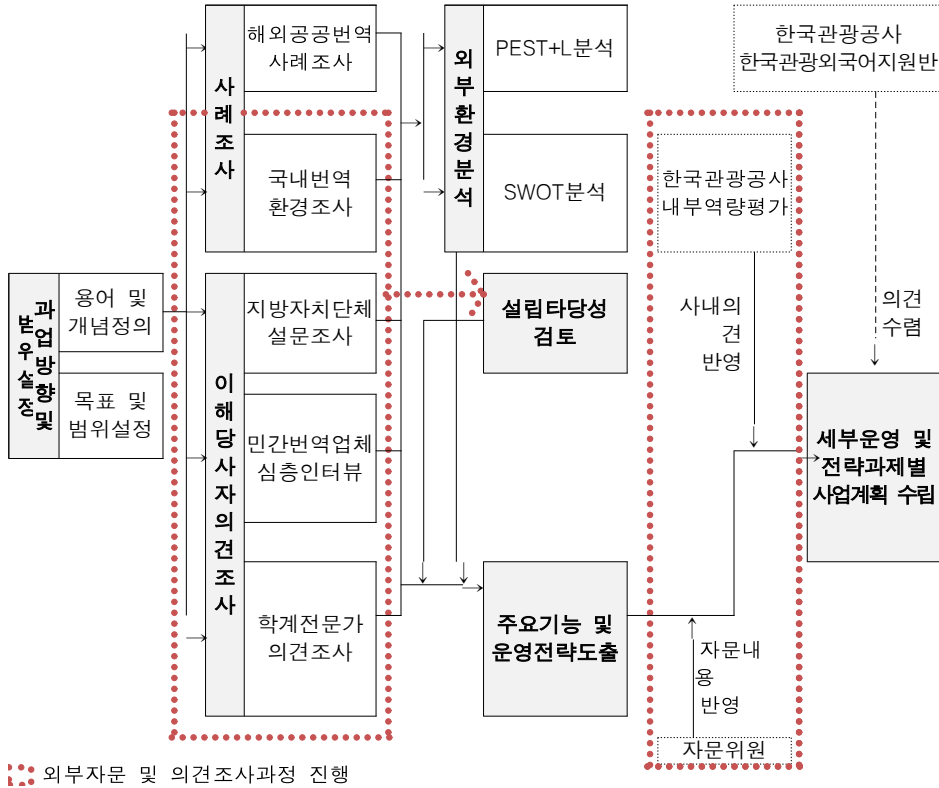
1. 과업지침과 목표

공사와 지자체의 한국관광 외국어 홍보간행물의 품질제고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한국관광 번역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차별화된 번역센터 설치 및 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주요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3월에서 6월 이내에 1) 한국관광번역센터 설립 타당성 및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2) 한국관광번역센터 설치,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

위에 주어진 과업지침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도표 1)의 과업수행 모형도를 도안하여 과업 방향과 범주를 선정하고 국내외 번역환경에 대한 문헌 혹은 심층조사를 하였으며, 설문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의 자료에 근거하여 번역환경을 분석하여 번역센터 설립타당성과 운영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설립타당성과 운영전략의 현

실적 적용을 탐지하기 위해 공사내부 역량에 대해 내부 종사자의 의견 및 자문을 반영하여 세부운영 및 사업계획을 도출하였다.

도표 1. 과업수행 모형도



2. 과업수행의 선행작업

1) 과업방향 및 범주설정

관광번역은 문화번역, 관광지, 이벤트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상호관계하고 있으므로 관광번역의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광번역의 범주를 관광객 및 관광객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정보성, 홍보성 문헌을 관광번역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관광번역의 범주는 추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립하였다.

2) 관광공사 외적번역환경

(1) 유관기관의 번역환경

국제문화교류재단, 해외홍보원,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한국의 관광과 관련된 유사한 홍보물들이 번역되거나 발간되고 있다. 위의 기관에서 발간된 홍보물에서 같은 내용에 대한 용어상 불일치나 철자의 불일치가 흔하게 발견되므로 용어와 철자의 통일이 필요하다.

(2) 유사기관의 번역환경

관광 홍보물은 250여개 지자체의 자체 홍보와도 직결되므로, 각 단위 지자체에서 지역홍보물을 필요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이 지자체소속이므로 홍보물의 발간과 번역의 품질에 대해 관광공사가 감시나 관여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시에만 공사가 서비스차원에서 번역을 대행하거나 감수를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의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관광안내자료의 번역에 있어서 외부번역사를 활용하는 (77%)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식으로 제작된 관광안내자료는 16개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만 2010년 추산 4개 언어 총 243종 1,471만부에 해당된다.

3) 관광공사 내적번역환경

2012년 3월 본 과업을 수행할 시점에 관광공사의 외국어번역에서 내부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은 번역을 담당하는 유사기관들의 업무의 중복성과 비전문성이다. 즉 번역업무가 하나의 채널로 수렴되지 못하고 관광안내팀(관광안내표기), 서비스개선팀(음식표기), 인터넷운영팀(홍보물 및 사이트 운영)에 분산되어 있어 인력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팀에서 담당하는 업무 또한 유사하거나 중복이 가능하여 용어사용 및 언어사용에서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업무관할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인해 업무상 중복이나 업무소지, 역할분담에 문제가 있었다. 또한 관할 부서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사에서 발간한 홍보물에서도 용어와 철자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표 2. 한국관광공사 조직구성 및 관광번역 유관부서



3. 운영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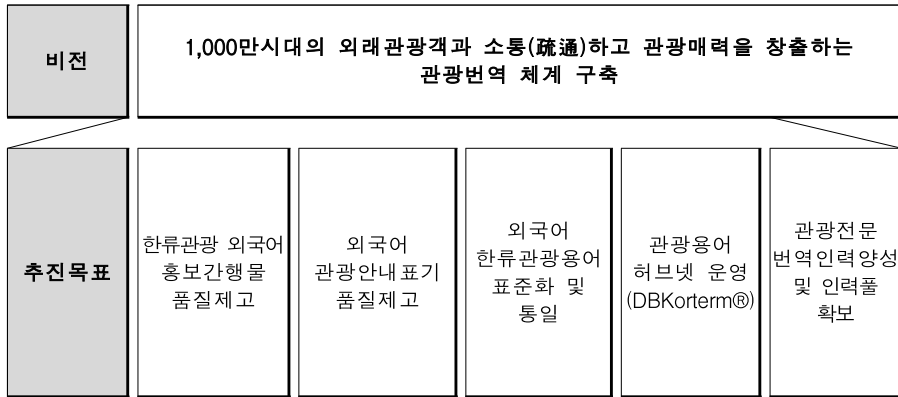
1) 비전 및 추진목표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는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외래관광객과 소통(疏通)하고 관광매력을 창출하는 관광번역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략과제를 단기와 중장기계획으로 구분하여 정량·정성적 추진목표를 제공하였다.

정성적으로 외국어 홍보간행물 품질제고,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품질제고 및 데이터베이스

화, 외국어 관광용어 표준화 및 통일, 관광용어 허브넷 운영(DBKorterm®), 관광전문 번역인력양성 및 인력풀 확보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표기 개선, 특화 시범사업, 관광홍보물 번역·저술·감수,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 외국어표기 표준화, 관광용어 DB 구축·운영, 번역인력 발굴 및 관리로 두었다.

도표 3.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의 비전 및 추진목표



2) 기본전략

(1) 시범운영을 통한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

본 제안서에서는 [시범운영을 통한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를 주축으로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즉 설립원년인 2012년에는 TFT(task force team) 구성을 통하여 본 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2013년에 한류관광외국어 지원센터로 조직을 구성하여 외국어 번역이 한국관광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한류 관광객을 유인하며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궁극적 목표하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범 운영체계에 돌입하게 된다. 점진적인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센터 운영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하며, 2015년 이후 센터 운영이 정착되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던 외국어 관광안내자료 원고감수 서비스 및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 서비스를 비롯한 여타 부서의 번역과 관련한 사업 결과물을 취합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확보한다. 2013년부터는 '한국방문의 해' 등 대형 이벤트와 연계하여 관광홍보간행물의 제작지원을 시범실시하고 관광용어 데이터베이스를 유관기관의 DB까지 탑재하여 번역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취급 언어의 확대 시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확대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되 관광안내자료 원고의 원어 저술 및 번역서비스에 한하여 수익자부담으로 실시하여 번역의 품질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사 재원의 무리한 투입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한다.

(2) 관광번역 감수지침 및 관광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번역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축된 인프라는 번역의 학문적·산업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대의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며, 관광용어 데이터베이스는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태로 제작하여 대국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수지침 및 관광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속적인 정교화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므로 주기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한다. 외래어 표기 기준 등은 간헐적으로 개선되지만 사용자에게 의해 한 번 습득된 자료는 쉽게 최신자료로 대체되지 않으며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간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관업체와 협조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번역품질 제고 시스템 구축

관광안내자료의 번역에는 노하우가 축적된 업무수행 주체가 필요하므로 한국관광공사와 수년간의 협력을 통하여 한국관광공사의 표기규정 및 용례를 숙지하고 있는 업체와의 업무협약(PPT,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하여 관광안내자료의 번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독과점 민간업체와의 다년간 협력을 통한 번역 업무의 수행은 노하우 축적, 인력풀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여타 업체의 협력 희망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공정한 기회의 제공이 어려워지므로, 민간업체 선정 기준 및 조건을 확정하여 격년으로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고, 기 등록된 업체는 향후 대규모 행사를 위한 번역 업무의 발생 시에도 유연하게 활용한다. 번역센터의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인턴제도 실시 및 상근인력 고용은 고급 인력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국가적 숙원인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4) 번역품질의 고도화

기존의 서비스는 접수양식 및 분량을 제한하여 제한된 발행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접수 콘텐츠에 대한 감수불가로 저품질의 홍보간행물이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본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는 콘텐츠의 발행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관광홍보물과 관광안내 표기, 메뉴표기까지 통합적으로 개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번역업의 사회적 기피현상을 타파하고 관광번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번역인력을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고급 번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한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포함하여 향후 진행할 독어, 불어, 서반아어, 노어 등의 다양한 외국어의 표기기준을 완비하여 번역품질의 고도화에 기여한다.

3) 주요기능

(1) 관광홍보물 저술·번역·감수지원

역사, 문화, 관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수위원 pool을 운영하여 내용의 정확성 추구 및 우수한 콘텐츠 확보하고 정확성 및 일관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외래어 간행물 제작 시 해당 언어가 반영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독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성 차원'의 번역 및 감수지원한다. 외국인에게 소구력을 가지는 간행물 발간을 위한 한국의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조예가 깊은 주한 외국인의 원어원고 저술 지원한다.

(2)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관광지명, 음식명, 관광지·문화재 설명문 등에 대한 관광안내표기 번역 및 감수지원한다.

(3) 외국어 관광표기 표준화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내에서 진행되는 저술,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지침수립하고 관광 관련용어의 로마자 표기용례 및 외국어별(일어, 중국어) 표기 가이드라인 정립한다.

(4) 외국어 관광용어 DB구축 운영(DBKorterm®(가칭))

관광번역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Korterm®(가칭))를 구축하여 향후 번역 작업의 효율성 및 정확성에 기여한다. 문화재청,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부처에서 선정한 외국어 표기법을 DBKorterm®(가칭)에 탑재한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관광용어웹사전의 솔루션 구축을 통한 일반 번역가의 관광관련용어 표기 통일안에 대한 접근성 향상시킨다. 센터 운영을 통하여 적립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매년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용례집' 발간한다.

(5) 번역인력 발굴 및 관리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가 수행하는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표기 번역을 위한 인력의 발굴, 선발 및 관리체계 수립한다. 우수 민간번역기관의 선정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 번역인력 확보한다. 현재 전문적인 번역교육기관이 적고, 전문 번역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관광번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학계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인력 고용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부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양성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인턴제도 및 감수-번역인력 간 도제형식 업무추진을 통하여 번역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4) 사업추진단계

(1)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사전준비단계(TFT): 2012년 하반기

운영기반 확립단계는 2012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기존에 한국관광공사 내부에서 관광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인력 및 예산 등 제반자원을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향후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의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목적

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며, 외국어 간행물 감수와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지원서비스는 현행을 유지한다. 주요 업무로는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개소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서비스 매뉴얼 제작, 관광번역 및 감수지침을 설정하며, 향후 번역센터이용자를 위한 '번역하기 쉬운 국문 텍스트 작성요령(가칭)' 지침서를 발간하여 번역 작업 수행 시 오역 및 사전 작업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사내 외국어표기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하여 기존에 한국관광공사 내에서 관광번역 관련업무를 처리하던 팀들의 축적된 업무데이터를 통합한 후 표기법 및 지침 등 산출물을 분류 및 정비한 결정사항을 환류하여 기존 업무상 불일치 사항을 통일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던 외국어 관광안내자료 원고감수 서비스 및 외국어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 서비스를 비롯한 여타 부서의 번역과 관련한 사업 결과물을 취합하여 외국어 관광용어 DB(가칭 DBKorterm®)를 구축하고 또한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전용 인트라넷을 구축작업을 실시하여 각 파트별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성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주 인력의 근무관리와 민간협력업체에의 업무연락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2)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기반조성단계: 2013년 ~ 2014년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2년간은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를 설립하여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관광안내표기 번역·감수지원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관광홍보간행물 번역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민간협력번역업체를 통하여 시행하는데(아웃소싱), 2013년~2014년에는 지역방문의 해 선정 도시와 대형이벤트를 개최예정인 도시를 중심으로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응투자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범 실시한다.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표기 시범 특화사업) 2015년부터는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를 통한 번역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협력업체에 의뢰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사 내 유관부서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관광용어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관광관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표준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관기관의 용어 표준화 제정 시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일어와 중국어의 공식 표기기준 제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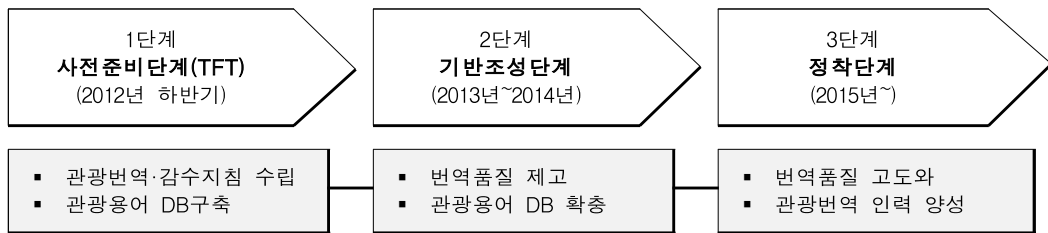
관광용어 DB 50,000 단어 축적을 목표로 기존에 구축한 DBKorterm®(가칭)에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물식품부 등의 여타 유관기관이 지정한 외국어 표기를 추가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감수인력을 추가로 선발하고, 프리랜서 번역인력을 100여명 수준으로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관광안내자료 번역서비스의 인력 풀로 보유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번역업체를 협력업체 리스트에 탑재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3)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정착단계: 2015년~

2015년 이후부터는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의 정착단계로 외국인 원어 저술을 확대하고, 관광홍보 및 안내자료의 번역 품질을 고도화 한다. 인턴프로그램 및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우수 수료생을 선별하여 프리랜서 번역인력 풀에 등록하고 2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영·일·중(간체, 번체) 외에도 독·불·서·노어에 대한 번역 업무도 신설하며, 한류 현상 확대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한 외국인 방문자 수요를 고려하여 태국어 등도 여건에 따라 실시한다. 관광용어 200,000단어를 목표로 DBKorterm®(가칭)을 지속 확대한다. 번역인력양성프로그램과 인턴제도를 실시하여 번역인력풀을 2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도표 4.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사업추진단계



2012년 위의 제안서가 완납된 이후 2년이 경과한 2014년 현재 관광공사의 번역서비스 시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추정연구는 제안서를 작성한 연구팀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이행하는 실무팀 양쪽 모두에게 고무적이며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공사에서 번역서비스를 담당하는 정용문팀장의 자문을 구하여 추정작업을 수행하였다.

III. 2012 제안서 대비 관광공사 사업진척도

도표 5. 관광공사 사업진척도

| 기반조성단계 (2013년~2014년) | |
|------------------------------|---|
| 수행 조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서비스팀 신설 - 5명 규모 |
| 시범 특화사업 실시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울산/경남지역 주요관광지 안내표지판 표기실태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 지자체 통보 (표지판 교체 등 조치) ※ 총 348개 시설 점검 / 854건 오류 파악 |

| | |
|--|--|
| <p>해외발간 한국가이드북 모니터링 사업실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한국관광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유무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추진 - 기간 : 2013.10.10-12.10 - 대상 : 전세계 발간 한국관광가이드북 총 21권 (영어 6권,일본어 6권, 중국어 9권 등) - 감수방법 : 전문인력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 활용 : 공사 해외지사등을 통해 현지 출판사와 접촉, 오류시정 촉구 |
| <p>외국어 감수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고객 외국어 번역감수 지원실적 대폭 증가 * 2013년 : 4,608건(2012년 1,807건 대비 255% 증가) - 공사 지원 단체고객 수 급증 * 2013년 221개 지자체/업계 지원 (2012년 160개 대비 30.7% 증가) |
| <p>공사 외국어 표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일어/중국어 각 5명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 활용 : 한국 대표음식 200개 메뉴명 자문위 상정 및 확정 (영/일/중 각 2회) |
| <p>관광용어 DB 확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용어 DB 대폭 개선 * 접근성 개선 : 공사 홈페이지에서 '외국어 용례사전' 바로가기 서비스 ⇒ 외부고객 상시 개방 - DB 카테고리 재분류 등 전면 개편 * 붙임 참조 - DB 수록 용례사전 확충 * 9,500단어 ⇒ 13,000 단어 |
| <p>유관기관 관광용어 DB 탑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외국어 표기사전 DB - 문화재청 문화재명 표기 - 한국학 영문용어/용례 사전 - 국립국어원 로마자 표기 - 안정행정부 도로명 표기 |
| <p>감수인력 선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수 전문인력 선발 및 활용 (일어, 중국어 각 1명) |
| <p>·번역인력풀 데이터베이스 구축(100 명) (X)</p> | |

관광공사는 2013년부터 공사 내 전담팀(번역 서비스팀) 조직을 신설하여 센터설립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12년 제안했던 사업들 (관광용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외국어 감수 서비스,

번역 및 감수지침 수립, 서비스메뉴얼 제작 등은 완료된 상태이고 번역센터설립을 위한 준비가 꾸준히 진행중이다.

위의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기반조성단계(2013년~2014년)에 진행되어야 할 기존 계획의 상당부분이 진행중이거나 기완료된 상황이므로 제안서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기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번역 인력 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광공사 직원 3명과 전문 번역 인력 2명, 총 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센터가 구축되고 정착되기 위해선 15명 정도의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측의 지원(예산 : 문체부 기금, 인력증원 : 기재부 정원 확대 허가)이 있어야하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단기간 내 센터로의 확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IV.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서와 관광번역의 현실

제안서 2012와 비교해 보았을 때 관광공사에서 진척하고 있는 번역업무와 센터설립을 위한 노력은 사업의 성과로 판단할 때 고무적이다. 공사내의 번역환경을 개선하여 번역서비스 창구를 신설하여 외부를 대상으로 번역서비스를 대행하고, 관광관련 DB 구축을 확대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이행하면서, 번역·감수 서비스에서는 양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번역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공사내의 과업의 빠른 진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번역의 절박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관광공사는 홍보물 관련 번역 뿐 아니라 관광과 관련된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의 핵심이며 관광산업을 리드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관광매력 이미지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산업주체로서 국가 경쟁력과 경제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가 보여준 빠른 성과는 산업주체가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과업을 담당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광번역은 생산된 번역물의 외현적 특성이 명백하고, 번역물 생산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존문헌을 이용하여 홍보물을 생산하는 기존 번역물의 1차 사용자이며 동시에 홍보물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번역은 상당부분 기번역물의 콘텐츠, 명칭, 기표 등에 의존적이며, 기 생산된 홍보물의 재생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관광번역은 전체 번역수주에서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 번역의 규모에서 본다면 번역수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의 영향과 대형이벤트의 발생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된 홍보물의 사회적 영향력과 국가 이미지가 직결되는 국가 산업이 되었다. 한류의 영향과 대형이벤트에 따르는 관광번역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의 대두, 도처에 편재하는 관광번역의 외현성, 그리고 번역수요의 제한성으로 인한 품질관리의 상대적 용이성 등이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의 설립의 기폭제가 되어 센터설립의 주요동기가 되고 사업의 진척에 비교적 시간소요가 절약되어 결과가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이 2012 제안서를 상회할 정도로 잘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번역사풀을 확보하지 못하여 번역관련 전문가와 인력을 공급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번역센터의 하드웨어는 제안서에 제시된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번역의 직접 변수인 소프트웨어에서 여전히 문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번역학 전문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번역사 교육을 담당하고 기 번역센터와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서 번역사 풀을 확장하고 특히 번역과 감수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품질을 관리하도록 적극적인 시도가 요구된다. 더욱이 센터 설립의 요건과 역량을 충분히 입증한 번역서비스팀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번역센터가 정작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의 원활한 공급과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V. 향후 공공번역청 설립과 관련한 시사점

본 제안서 2012의 강점은 관광계와 번역계의 협업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번역계에서는 실무적 지식을 관광계에서는 전략적 지원을 함으로써 두 분야가 협업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제안서 2012에서 제안한 운영전략, 추진계획 등은 향후 공공번역청을 설립하는데 원용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는 관광이라는 한 분야에 집중하여 얻어진 산출물이지만, 여러 자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번역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번역을 일관된 체제하에 자체품질을 검증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번역에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이며, 동시에 컨트롤 타워를 통한 업무의 일원화가 보여주는 효율성 증대라고 할 수 있다.

공공번역에서도 각처에서 다양하고 자발적인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번역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번역의 전분야로 확대하여 번역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관리 적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제안서 2012에서 제시한 점진적인 확대와 유관기관과의 DB공유, 및 번역수주와 납품체계를 일원화시켜 환류하는 과정은 타 공공번역에서도 적용가능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2012 제안서를 원용하여 공공번역단일 전담기구 설립의 과정을 가상적으로 도식화하였다. 공공번역단일 전담기구 설립에 앞서서 과업수행 모형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미 기존선행연구에서 사업범주와 개념정리, 사례조사, 이해당사자 인터뷰 등으로 설립타당성에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박현주 2014, 이상원 2014, 정호정 2014) (도표 6)에 근거하여 본 과제의 비전과 목표를 (도표 7)로 도식화하였다.

도표 6. 공공번역단일 전담기구 과업수행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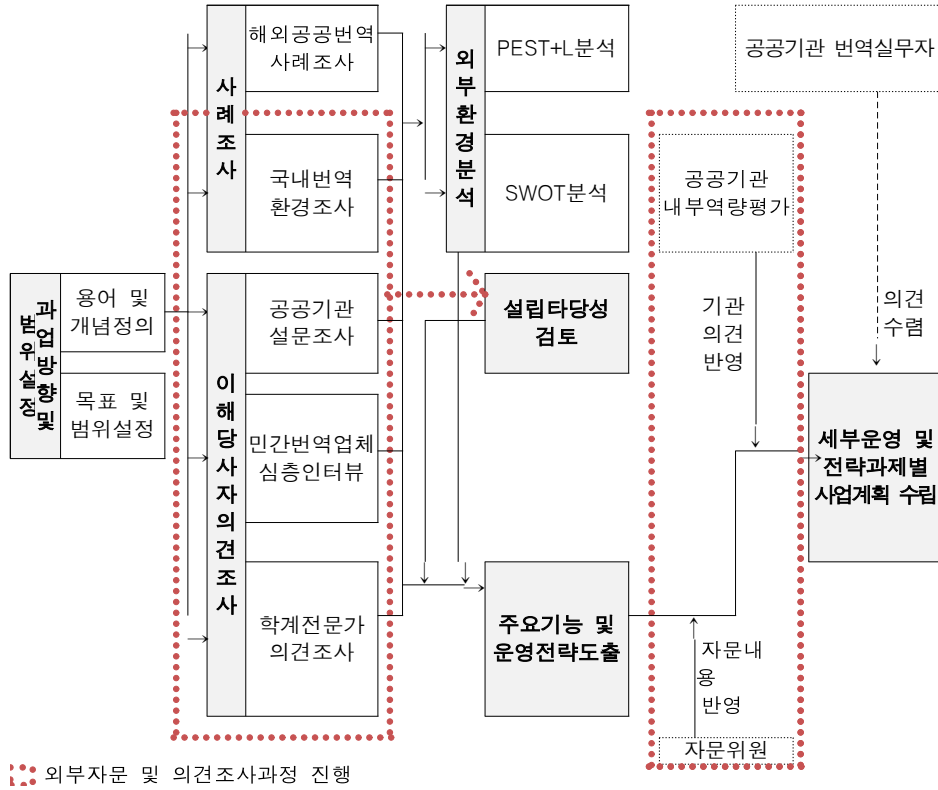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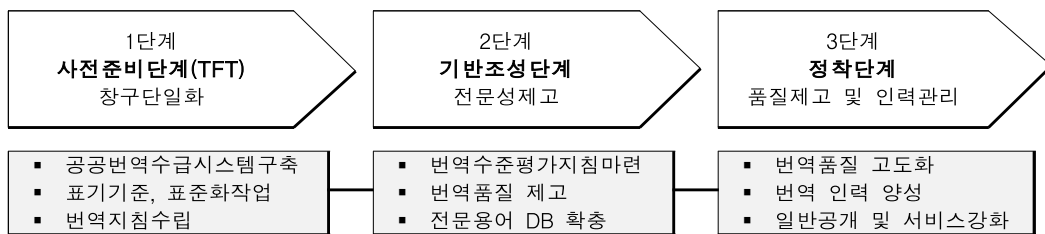


도표 7. 공공번역단일 전담기구의 비전 및 추진목표

| | | | | | |
|------|--------------------------------|----------------------------------|---------------------------|---------------------------------|--------------------------------|
| 비전 | 공공번역수급 및 수준관리를 위한 공공번역 전담기구 구축 | | | | |
| 추진목표 | 표준화된 번역수급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일원화 | 공공번역 수준관리 및 제고를 위한 번역실무부 (제1/제2) | 전문용어통일 표기기준화 및 공공번역 DB 구축 | 번역사 양성 및 번역결과물 품질 제고를 통한 번역수준관리 | 번역관련 연구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관리 및 행정지원 |

정호정(2014)에서 장단기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분류하였듯이 본 사업에서도 점진적인 단계적 사업추진을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단계-기반조성단계- 정착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별 추진사업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공공번역의 창구단일화를 목표로 유관기관과 협력구도하에 시스템을 공유하고, 용어 및 철자의 표준화작업을 실시한다. 외현적으로 표준화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공공번역의 기반조성단계로 번역의 품질 제고 및 전문성 제고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번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번역품질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개선해 나간다. 한편 번역용어의 DB화를 확대하여 번역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정착단계에서는 번역사의 인력관리 및 번역품질의 고도화에 힘쓰며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

도표 8. 공공번역단일 전담기구 사업추진단계



참고문헌

관광공사. (2012). 한류관광 외국어번역센터 설립 제안서. 관광공사.

박현주. (2014, 1월). 『국내공공번역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공공기관 번역 지침 및 번역결과물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번역과 국가 경쟁력강화 토론회 발표자료.

신지선. (2007). 「공공기관 번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번역학연구』, 8(2), 75-101.

이상원. (2014, 1월). 『공공기관 번역업무 담당자 심층면접조사』. 공공번역과 국가 경쟁력강화 토론회 발표자료.

이승재 외.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현황」, 『번역학 연구』, 2(2), 57-107.

정호정. (2014, 1월). 『해외선진사례 연구와 한국 상황에 대한 함의』. 공공번역과 국가 경쟁력강화 토론회 발표자료

세션 3-A:
신진연구자 세션

4:15-6:00

일반대학원 4층 BRICS홀

좌 장: 이 태 형 (한양대)

발표자:

| | | |
|---------------------|---|----|
| 이 정 순 (중앙대) | 한중 동시통역시 동시성 확보방안연구: 선형동시통역기법과 사역문을 중심으로 | 63 |
| 정 영 란 (이화여대) |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번역 양상 고찰 | 80 |
| 이 주 은 (부산대) | Theme 분석을 적용한 통역 품질 평가 | 89 |

토론자: 한 정 은 (한국외대), 허 지 운 (이화여대)

한중 동시통역 시 동시성 확보방안 연구: 선형동시통역기법과 사역문을 중심으로

이 정 순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I. 서론

1. 연구 동기 및 목적

1) 듣기, 말하기 그리고 기억하기

- 듣기, 말하기, 기억하기 과제의 동시 수행
- 동시통역에 필요한 능력과 통역사의 배분 가능 능력의 불일치
- 언어유형적 차이가 큰 언어 간 동시통역 시 어려움 가중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유형적 차이

- 어순 차이: 한국어(SOV) / 중국어(SVO)
- 정보배열 구조의 차이: 한국어(긴 관형어 + 중심어)
중국어(짧은 관형어 + 중심어 혹은 중심어 + 긴 관형어)
- 통역의 지연(pause), 누락, 오류발생개연성증가

□ 사례 1. 동시통역 교육생의 통역 사례

ST: 기술연구, 표준화 전략, 주파수 발굴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가 /체결돼 / 우리나라가 / 5G 이동통신 시장선점과 / 표준화 분
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TT1: 技术研究、标准化战略\ 频率\ 等有关ICT的领域进行深入\ 进行了深入讨
论\ 为韩国\ 提供了机遇。

TT1': 기술연구, 표준화전략\ 주파수\ 등 ICT 관련 분야, 깊이 있게 진행\ 깊이
있는 논의 진행, 한국에\ 기회를 제공했다.

□ 솔루션 1. 선형 동시통역의 원칙

- 선형 동시통역(Syntactic Linearity): ST의 통사적 순서를 따라가며 동시통역
→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 최소화

□ 솔루션 2. 사역문 만들기

-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인과관계, 사역문의인과성

(예문)

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국제금융연계를 통한

원인 결과

신흥시장국 경제의취약성확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 중-한 번역 사례

(1) ST: 种种历史原因再加上新的因素，导致该地区的安全挑战日益增多。

TT1: 각종 역사적 원인과 새로운 요인이 지역 내 안보 위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했다.

TT2: 각종 역사적 원인과 새로운 요인으로 인해 지역 내 안보 위협이 가중되었다.

(2) ST: 领土争端使日本同中国、韩国和俄罗斯的关系出现紧张

TT1: 영토분쟁이 일본과 중국, 한국, 러시아간의 관계가 긴장되도록 했다.

TT2: 영토분쟁으로 인해 중일, 한일, 러일 관계가 경색되었다.

2. 선행연구 검토

1) 선형 동시통역(Syntactic Linearity) 원칙 및 기법 관련 연구

(1) 선형 동시통역 원칙 관련 연구

① 楊承淑(2002): 촘스키의 '최소주의' 이론 중 '경제성의 원리'를 동시통역에 응용하여 SL로부터 TL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언어의 생성법칙과 마찬가지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이 사용됨.

'順句驅動(순구구동)' → '順譯(순역)'

② 肖晓燕(2001), 李慶明·孫琳(2010): Daniel·Gile의 인지부하모델(Effort Model)의 기반 위에서 영중 동시통역 과정에서 통역사의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형 동시통역'을 제안

(2) 선형 동시통역 기법 관련 연구

① 張維爲(1999) : 분절하기(segmentation)에 기초한 영-중 선형 동시통역

② 劉偉(2007): 반복하기(repetition)에 기초한 영-중 동시통역

- ③ 劉慧林(2008): 예측하기(anticipation)에 기초한 영-중 동시통역
- ④ 仲偉合(2008): 12가지 영-중 동시통역 기법 종합 정리

2) 사역문 관련 연구

- (1) 시바타니(Shibatani 1976), 김성주(1996)
 - 사역 상황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하게 하는 상황
 - 문법적 사역(사역사건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만을 사역표현으로 분류, 접속문이나 담화 형식을 빌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사역표현에서 제외
- (2) 박미정(2001)
 - 사역 상황이란 사역주가 피사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로 변하게 하는 것
- (3) 탈미(Talmy 2000)
 - 의미론적으로 사역의 속성과 특징 분석
 - 사역과 인과는 밀접하게 연관되고, 모든 사역의 의미는 일정한 인과의미를 내포

3.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 다중 과제 수행으로 인한 인지적 부담과 한·중 동시통역의 '동시성' 확보 방안 모색, 동시통역 교육 효과 제고에 일익 담당

2) 연구 방법

- '동시성' 확보가 어려운 원인 규명: Effort 불일치, 한·중 언어유형적 차이
- '선형 동시통역' 원칙의 개념과 원리, 관련 기법, '사역문'의 개념과 범주, 사역문의 유형, 교육생들의 사역문 인식도 조사, 실험 데이터 분석

II. 한중 동시통역 시 '동시성' 확보의 어려움

1. 다중과제 수행으로 인한 인지적 부담

1) 다니엘 질(Danile Gile)의 인지부하모델(Effort Model)

- 통역에 필요한 노력(Effort): L (Listening and analysis)
M (Short-term memory)
P (Production)
- 동시통역: $SI = L + M + P + C$ (C: Coordination, 조율)
- ST과 TL의 언어유형적 차이가 큰 경우: $M, L > P$
→ 통역 지연, 오역, 누락, 비문 생산 가능성 확대

2.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유형적 차이

1) 언어유형학적 분류

한국어: 교착어 혹은 첨가어 (Agglutinative language)

중국어: 고립 (isolating language)

2) 어순 차이

한국어: SOV

중국어: SVO

3) 정보배열 구조의 차이

한국어: 좌분지(left-branching) 언어, 긴 수식어. 수식어 반드시 중심어에 선행

중국어: 좌분지 언어, 짧은 수식어, 수식어가 길어질 경우 중심어에 후행

예문 1. 동양은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제로섬의 체스'가 아닌 협력 공영의 'win-win 하는 바둑'을 두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문 2. 정치,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 시킴으로써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함께 담당해 나가자고 하는 공동발표문의 취지를 양국 의회가 앞으로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제의합니다.

III. 선형 동시통역의 원칙과 기법

1. 선형 동시통역 원칙

1) 개념 정의

- 연사의 발화 순서에 따라 ST 의미단위연결 → ST의 언어 구조 조정 최소화

2) 용어 정의

- '順句驅動(순구구동)' → '順譯(순역)' → 중국 내 두 가지 용어 혼재
- ST의 통사적(의미단위) 순서에 따라 선형(線型, linearly)으로 동시통역
→ '선형 동시통역'으로 명명

3) 작동 원리

- '경제성원리(Economy Principles)'에 기반
- '가장경제적인'(most economical) 문장 생성방식 선택
- 동시통역 시 SL→TL 생성도 가장 경제적인 방식 선택

4) 위치 이동(move)의 원칙

- (1) '위치 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 (2) '위치 이동'을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이를 미룬다.
- (3) '위치 이동'의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면 이를 최소화한다.
- (4) '위치 이동'의 양을 줄일 수 있으면 이를 최소화한다.
- (5) '위치 이동'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면 이를 최대한 단축한다.

예문.

ST: ①2002년에 탄생한 ②여성금융인 네트워크의 ③10주년 기념 리셉션 ④개최를
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T: ①2002년成立的②女金融家联合会③10周年纪念晚宴(在这里)④召开, (我对今天活动的召开)⑤表示热烈祝贺。

TT': ①2002년 설립된 ②여성금융인 네트워크의 ③10주년 기념 리셉션이 (이 곳에서)
④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개최를) ⑤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 명사구(NP)의 동사구(VP) 전환

예문.

ST: ①기축통화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②금융불균형 누적, ③국제금융연계를 통한 신흥시장국 경제의 취약성 확대와 같은 ④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도 수반하고 있다.

TT: ①随着储备货币发行国家继续实行量化宽松政策, ②金融失衡局面持续恶化, ③国际金融挂钩导致了新型国家经济更趋薄弱。④出现了(这些)意想不到的小计外部效应。

TT': ①기축통화국이 양적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②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③국제금융 연계가 신흥국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④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외부성이 나타났다.

2. 선형 동시통역 원칙 하의 동시통역 기법

1) 한·중 선형 동시통역 5대 기법

| 영·중 선형 동시 기법 | 한·중 동시성 확보 기법 | 비고 |
|--------------|---------------|-------------|
| 분절하기 | ○ | |
| 기다리기 | X | 동시성 확보와 무관 |
| 반복하기 | ○ | |
| 예측하기 | ○ | |
| 바꾸어 표현하기 | X | '전환하기'로 수렴 |
| 강조하기 | X | 동시성 확보와 무관 |
| 단순화하기 | ○ | |
| 추가하기 | X | '전환하기'로 수렴 |
| 전환하기 | ○ | |
| 반대로 표현하기 | X | '전환하기'로 수렴 |
| 일반화하기 | X | '전환하기'로 수렴 |
| 개괄하기 | X | '단순화하기'로 수렴 |

(1) 분절하기(segmentation)

- 연사의 발화에서 핵어(head)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통역사가 통사적, 의미적으로 중립적인 단어와 구문을 이용하여 발화를 시작하고 의미단위별로 ST를 처리하는 기법

예문.

ST: ①아태지역 경제는 / ②역동성과 활력으로 / ③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해 왔고, / ④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으로 / ⑤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 ⑥요구받고 있습니다.

ST': ①+②아태지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왔다 / ③세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다 / ④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 ⑤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 ⑥이는 시대적 요구이다.

TT: ①亚太区域经济 / ②欣欣向荣、蓬勃发展 / ③为克服国际经济危机做出了很大贡献 / ④今后也将持续创新 / ⑤为国际经济的复苏发挥火车头作用 / ⑥这是时代的要求。

(2) 반복하기(repetition)

- 한국어 ST의 명시적 연결관계를 중문 TT에 그대로 옮기지 않고 적절한 ‘반복하기’를 통해 TT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기법

예문.

ST: 더욱이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한중의회 정기교류체제 합동회의가// 그 동안 한중의회 간 교류 협력 강화에 앞장서 온 것을 / 기반으로 / 더 다양한 분야로 교류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TT:尤其是，今年举行第八届会议的韩中议会定期交流机制联席会议一直为促进韩中议会之间的交流合作发挥了火车头作用，我希望以此为基础该会议机制能够进一步扩展（两国之间的）交流和合作领域。

(3) 예측하기(anticipation)

- ST의 후행 정보가 미처 발화되기 전 후행문의 논리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TT에서 필요로 하는 문장성분을 발화하는 기법. 화제예측과 언어예측으로 분류.

예문. ‘2013 APEC CEO Summit’에서의 대통령 기조연설문의 일부

ST: ①앞으로 한국은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갈 것이고, 특히 개도국들의 창조경제 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해서 세계경제가 ‘복원력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②저는 개도국의 창조경제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과 개발모델을 전수하고 역내 동반성장을 함께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①전망 + ②희망, 기대, 의지)

TT1: 我恳切希望以发展中国家的创意经济需求为基础，给他们传授创新和发展方式，以实现本地区各国的同步发展。

TT1': 저는 개도국의 창조경제 수요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혁신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이로써 역내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TT2: 我将以发展中国家的创意经济需求为基础，给他们传授创新和发展方式，以促进本地区各国的同步发展。

TT2': 저는 개도국의 창조경제 수요를 기반으로 그들에게 혁신과 발전모델을 전수하고 이로써 역내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4) 단순화하기(simplification)

-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청중이 문맥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ST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으나 없으나한 성분 혹은 TT 표현습관에 위배되는 부분을 생략하거나 압축

하는 기법

예문.

ST: 최근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TT: 最近日本不分政界人士接连在历史等问题上胡言乱语, 这严重威胁亚洲乃至世界和平, 需要中韩两国紧密合作、共同应对。

TT': 최근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잇달아 역사 문제 등에서 망언을 일삼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이 요구됩니다.

(5) 전환하기(conversion)

- 언어유형적 차이가 큰 언어 간 동시통역에서 의미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과 문맥에 맞게 구문 요소와 구문 구조를 변형하는 기법

예문.

ST: 지난 6월 미·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①'이익 합치점'의 첫 번째로서 ②북한의 핵 개발 불용과 ③핵보유국 불인정이라는 북핵 2대 원칙에 합의한 것과……

TT: 今年6月, 中美首脑为了加强两国交流与合作①找到了第一个“利益平衡点”, 两国首脑就②不允许朝鲜发展核武器、③不承认朝鲜拥核国地位等解决朝核问题的2项原则达成了协议……

TT': 지난 6월, 미·중 정상은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첫 번째 '이익 합치점'을 찾고, ②북한의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으며 ③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2대 원칙에 합의……

2) 한·중 동시통역에의 적용

- 한·중 선형 동시통역 5대 기법의 유기적 활용을 통해 통역사의 인지적 부담 저감, 통역의 동시성 확보에 기여

* A: Anticipation(예측하기) / C: Cconversion(전환하기) / '/': Segmentation(분절하기)
R: Repetition(반복하기) / S: Simplification(단순화하기)

예문.

ST: 지난 6월 / 미·중 정상은 / A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 C'이익 합치점'의 첫 번째로서 / A+C북한의 핵 개발 불용과 / 핵보유국 불인정이라는 / 북핵 2대 원칙에 합의한 것과, / 한·중 정상은 / A+C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 높이 평가합니다.

TT: 今年6月 / 中美两国首脑 / A为了加强两国交流和合作 / C找到了第一个“利益平衡点” /
A就C 不允许朝鲜发展核武器、不承认朝鲜拥核国地位等 / 解决朝核问题的2项原则 /
达成了协议 / 此外, 中韩两国首脑 / A+C为了半岛无核化和维持和平与稳定 / 达成协议
/ C继续开展战略合作 / 我对此予以高度评价。

TT': 지난 6월 / 미·중 정상이 /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첫 번째 이익합치점을
찾아내고 / 북한의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 북핵 2대 원칙에 합의했다 / 그 밖에 한중 정상은 / 합의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 나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IV. 한중 동시통역 시 사역문의 적용

1. 사역의 개념과 사역문의 유형 구분

1) 사역의 정의와 범주

□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에서 ‘존재’나 ‘사건’에는 반드시 그것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있기 마련. 근거가 ‘원인’이면, 그것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결과’
→ 인과 관계 형성

□ '사역'이란 인류언어에있어기본적이고보편적인통사의미범주로서, 사람들이 사물간의 인과관
계(Causation)를 인식한 후에 표현하는 언어형식 중의 하나

(1) 시바타니(Shibatani)의 정의

- a. 어떤 두 사건 E_1 (원인사건: causing event)과 E_2 (결과사건: caused event)가 있고, E_1 과
 E_2 는 시간적으로 E_1 이 발생한 이후에 E_2 가 발생한다고 화자는 믿는다.
- b. E_2 의 발생은 E_1 의 발생에 전적으로 의존적이다. 이 때 두 사건의 의존성은 그 밖의 모든
상황이 같다고 가정할 때, E_1 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E_2 는 특정 시간에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화자는 믿는다.

(2) 김성주의 정의

- a. 사역문은 사역 상황을 나타내는 언어 표현이다.
- b. 사역문은 사역주와 사역사건, 피사역자와 피사역사건의 설정이 가능하다.
- c. 사역문은 능동적인 원동사문의 설정이 가능하다.

d. 사역문은 사역 사건을 표현하는 특별한 문법 형식을 가지고 있다.

(3) 박미정의 정의

- a. 형식상 사역주와 피사역자가 있고, 의미적으로 '원인+결과'로 분석될 수 있으면 사역표현이 될 수 있다.
- b. 사역행위는 피사역자의 행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4) 본고의 정의

- a. 한국어의 대표적 사역표지인 '-리-', '-기-', '-게 하-'가 사용된 문장
- b. 중국어 사역표지인 '使', '讓', '叫', '吩', '要' 등이 사용된 문장
- c. 사역주가 피사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사역자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역상황이 표현된 경우.
- d. 형태상 사역주와 피사역자가 있거나 의미상 '원인+결과'로 분석될 수 있는 경우

2) 한·중 사역문의 유형 구분

(1) 어휘적 사역(조종적 사역): : 사역·피사역 사건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단어에 표현

- 한국어: '시키다', '보내다', '주다', '끼치다'

- 예문. a. 한국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b. 회장이 직원들에게 친필 서신을 보냈다.
c. 정부가 세금탈루기업에게 높은 벌금을 물렸다.
d. 어머니가 아이를 씻겼다.

- 중국어: 兼類詞를 이용한 사역문, '放/加/弄+형용사/동사' 구조의 복합동사를 사용한 사역문, '동사+결과보어' 구조의 복합동사를 사용한 사역문

- 예문. a. 为了丰富充实你的暑假生活, 妈妈准备让你报名参加书法班。
(네가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엄마가 널 서예반에 등록시키려고 한다.)
b. 你别吓跑了他。
(그가 놀라 도망가게 하지 말아라.)

(2) 통사적 사역(완곡한 사역, 지시적 사역): 원인과 결과가 분리된 두 동사로 실현

- 한국어: '-게'나 '-도록'에'하-', '만들-' 등의 동사가 연결

- 예문. a.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춤추게 만든/춤추도록 한/춤추도록 만든]다.
 b. 복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한/행복하게 만든/행복하도록 한/행복하도록 만든]다.
- 중국어: '使', '让', '叫', '逼', '劝' 등의 동사를 이용하여 겹어문(兼語文)이라는 구문형식을 통해 실현

- 예문. a. 我们应该让子孙后代永享青山绿水。
 (후손들이 푸른 산 맑은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谁叫你把房租给中国人呢!
 (누가 너더러 방을 중국인에게 세놓으라고 했냐!)
 c. 希望中国力劝朝鲜弃核。
 (중국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적극 설득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중 주어의 의미자질과 사역문

- (1) 한국어와 중국어 주어의 명시성 여부
 - 한국어에서 주어는 비명시적인 경우가 많고 중국어에서는 명시적인 경우가 많다.
- (2) 유정명사(有情名詞)와 무정명사(無情名詞)의 주어 역할
 - 한국어에서는 대부분 유정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무정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는 타동사가 발달했고 사역문의 사용빈도 또한 한국어에 비해 높다.
- (3) 문장 내 주어 지위의 유지 여부
 - 중국어에서는 문두의 주어 지위가 해당 문장 전체에서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 때 자주 활용되는 문형은 사역문이다.

예문.

- a. ST: 联合国安理会一致通过对朝鲜核试验制裁决议。
 TT1: 유엔안보리가 대북핵실험제재결의안을통과시켰다.
 TT2: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핵실험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b. ST: 新型城镇化将催生一亿套住房需求。
 TT1: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가 1억 호의 주택 수요를 낳을 것이다.
 TT2: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로 1억 호에 달하는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c. ST: 发展服务业，有利于增加有效供给，深化社会化专业分工，形成新的经济增长点。

TT1: 서비스업 육성은 유효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전문적 분업을 확대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유리하다.

TT2: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① 유효공급이 늘어나고/ ② 민간부문의 전문적 분업이 확대되어 / ③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성된다.

→ 원인절 + 결과절(①+②+③) 구성 / ST 주어 TT 부사절 / ST 목적어 TT 주어

2. 한중 동시통역과 사역문

1) 한중 동시통역에서의 사역문 범주 확장

- 한중 동시통역 과정에서 어휘적 혹은 통사적 사역문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ST도 사역주 혹은 사역행위, 피사역자, 원인+결과의 의미를 지녔다면 사역문으로 분류가능

예문.

a. 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 실물경제가 구미국가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사역주(사역행위, 원인)

피사역자

사역의 결과

b. 창조경제는 바로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사역주

사역의결과

피사역자

벤처를 하다가 실패한 이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밀려난 중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사역의 결과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준다.

2) 학생 대상 사역문 인식도 조사 결과

| 번호 | 사역주/사역 행위(+/-) | 피사역자(+/-) | 원인결과표지 (+/-) | 사역표지(+/-) | 선택빈도 |
|----|-------------------|-----------|-----------------|-----------|------|
| 1 | + | + | + | - | 3 |
| 2 | + | + | - | - | 1 |
| 3 | + | + | - | - | 2 |
| 4 | + | + | - | + | 5 |
| 5 | + | + | - | + | 4 |
| 6 | + | + | - | + | 4 |
| 7 | + | + | - | + | 6 |
| 8 | + | + | + | - | 2 |
| 9 | + | + | + | - | 2 |
| 10 | + | + | - | + | 7 |
| 11 | + | + | - | + | 5 |
| 12 | + | + | - | - | 0 |
| 13 | + | + | - | + | 5 |
| 14 | + | + | - | + | 4 |
| 15 | + | + | + | - | 3 |
| 16 | + | + | - | - | 1 |

(1) 분석 결과

- ① 한-중 동시 시역 과정에서 중국어 사역문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역주(사역행위), 피사역자, 원인+결과 표지 유무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음.
- ② 사역표지가 없는 무표지 사역문에 대해서는 중국어에서 사역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답한 빈도 낮음.
- ③ 어휘적 사역문과 통사적 사역문을 포함하여 유표지 사역문인 경우 중국어로 사역문 구성이 가능하다고 답한 빈도 높음.

(2) 추정 원인

- ① 원인과 결과의 요소가 명시화되지 않은 경우, 한국어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적 사역문의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② 유표지 사역문의 경우에도 '~게 하다', '~도록 하다'와 '~를 촉발하다' 등의 표지가 후행하므로 문두의 정보를 토대로 후행문의 술어부를 '예측'하였을 것임.

(3) 선택빈도가 높은 유표지 사역문의 문두

- 4.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
- 5.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 6. 우리 정상들은 금년말 이곳 발리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가
- 7. 한국은 발리 WTO 각료회의가...
- 11. (우리는) 마지막으로, APEC내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 13. 우리는 다양한 지류들이 큰강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분석 결과

- 유표지 사역문의 문두 모두 '보조사(은/는) + 격조사(이/가)'의 구조
- '-이/가'에 문장의 초점(focus) 위치
- 사역주 + 피사역자로 인지

3. 동시통역 실험 결과 분석

1) 실험방법

- 피험자: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한중통번역 과정 4학기 재학생 9명
- 실험횟수: 2회
- 실험간격: 2주
 - ① 2주간 4회의 동시통역 세미나 실시
 - ② 선형 동시통역 기법과 사역문 만들기반복강조및동시통역훈련
- 실험 직전
 - ① 선형 동시통역 5대 기법, 사역문 만들기에 대해 상기시킴
 - ② 실험 텍스트의 회의명, 연사, 주요 용어 공지 후 10분간 주제 및 용어 준비
- 실험 후
 - ① 피험자 각자 통역내용 전사 및 제출
 - ② 특정기법사용한 경우 메모창에 이를 표시할 것을 요구
 - ③ 통역지연(pause) 발생 시, 해당 지점에 2초 이하는 '\ '를, 2초 이상은 '||' 를 표시

2) 1차 실험결과 분석

| 번호 | 사역주/사역 행위(+/-) | 피사역자 (+/-) | 원인결과 표 지 (+/-) | 사역표지 (+/-) | 사용빈도 |
|----|-------------------|---------------|----------------------|---------------|------|
| 1 | + | + | - | - | 3 |
| 2 | + | + | - | - | 3 |
| 3 | + | + | + | + | 9 |
| 4 | + | + | - | - | 4 |
| 5 | + | + | - | + | 5 |
| 6 | + | + | + | - | 7 |
| 7 | + | + | - | - | 5 |
| 8 | + | + | - | - | 6 |
| 9 | + | + | + | - | 1 |

3) 2차 실험결과 분석

| 번호 | 사역주/ 사역행위 (+/-) | 피사역자 (+/-) | 원인결과 표 지 (+/-) | 사역표지 (+/-) | 사용빈도 |
|----|-----------------------|---------------|----------------------|---------------|------|
| 1 | + | + | + | - | 9 |
| 2 | + | - | - | - | 9 |
| 3 | + | + | - | - | 4 |
| 4 | + | + | - | - | 5 |
| 5 | + | + | + | - | 6 |
| 6 | + | + | + | - | 6 |

4) 1·2차 실험결과 종합분석

(1) 1·2차 실험 결과 비교

| 분류 | 1차 실험 | 2차 실험 |
|------------------|-------|-------|
| 선형 동시통역 기법 활용 빈도 | 3회 | 5.3회 |
| 메시지 누락 | 2회 | 1회 |
| 2초 이상 통역지연 | 2.8회 | 1.2회 |
| 2초 이하 통역지연 | 3.1회 | 3.5회 |
| 사역문 앞 통역지연 | 0.5회 | 0.17회 |
| 사역문 사용빈도 | 4.8회 | 6.5회 |

* 표 안의 모든 수치는 평균치를 나타냄(빈도의 합/예문 수 = 횟수)

(2) 예문 분석

실험2 예문(4)

사역주 + 사역행위 + 사역의 결과/사역행위/원인 + 피사역주 + 사역의 결과

①글로벌 유동성은 ②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계성과 결부되어 ③공여국-유입국 간, 민간-공적 부문 간 상호작용을 통해 ④신흥국 경제 및 국제 원자재·금융시장에 ⑤광범위하고 복잡한 파급효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 '①이 행한 ②의 행위로 인해 ③의 결과가 발생되고, ③의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 ④에게 ⑤의 결과를 일으킨다'

V. 결론

1. 연구 결과

- 1) 사역문에 대한 인식도: 유표지 사역문 > 무표지 사역문. 단, 일부 한국어 무표지 사역문도 중국어 사역문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인식. → 사역문의 범주 확장
- 2) 1·2차 동시통역 실험에서는 한국어의 유표지 사역문 뿐만 아니라 무표지 사역문도 적극적으로 중국어 사역문으로 전환하려는 경향 관찰. 문장에 내재된 원인+결과 의미를 분석하여 중국어 사역문으로 전환한 비율 제고.
- 3) 실험 결과 한-중 동시통역에서 사역문 TT가 구성될 때 후행문에 대한 '예측하기'가 선행되는 현상 관찰. 그 외, 분절하기, 그리고 단순화하기, 반복하기, 전환하기 기법이 함께 활용됨.
- 4) 과도하게 긴 관형어와 여러 개의 내포문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중국어 TT로 처리하는데 있어 어려움 상존.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 1) 한국어에서 사역의 자질이 내포된 문장을 유형화하여 동시통역 수업에 적용할 경우 한-중 동시통역의 동시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
- 2) 선형 동시통역 원칙 하의 제(諸) 기법의 반복훈련과 '사역문 만들기'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육한다면 한-중 동시통역의 동시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특히 '예측하기'가 '사역문 만들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화제예측과 어휘예측 등 예측의 표지를 유형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
- 3) 상기 기대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주어의 의미 자질, 정보배열 구조의 차이 등을 포함하여 두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필요. 한국어 문장의 명사구(NP)를 중국어의 동사구(VP)로 전환하는 교육 필요.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번역 양상 고찰

정 영 란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I. 서론

제목은 다양한 예술 작품 고유의 이름이자 그 작품의 모든 것을 몇 개의 단어나 문장 안에 오롯이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의 대상이 되는 독자 혹은 관객은 제목을 통해 그 작품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작품을 소개 받을 것인지, 작가의 초대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문학작품의 제목은 전체 텍스트의 수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이며, 텍스트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오해를 방지할 수도 있는 기능을 한다 (Jovanovic, 1990). 또한 문학작품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과 함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제작되는 예술 작품으로서, 그 제목 안에 텍스트와 관련한 예술성과 더불어 상업적 잠재력을 내포해야 하므로 제목의 번역은 이중으로 복잡하고 중요해진다.

문학작품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동문학¹⁾의 경우, 제목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많다. 아동문학은 이해력이나 사고력의 정도에 있어 특성이 다른 어린이와 어른의 두 독자층 내지는 직간접의 소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역된 제목을 통해 두 계층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한다.

아동문학 제목 번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아동문학 번역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번역에 비해 아직도 탐구하고 개척해야 할 연구 분야가 무궁무진한 학문이며, 다민족화, 다문화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문학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타 언어권과 문화권의 번역서를 통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통해 교류함으로써 자아를 재정립하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문학 번역의 사회적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문화적인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미적으로도 뛰어난 제목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국내에서 번역되어 출판된 영미권 아동문학 제목의 한국어 번역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통해 아동문학 도서의 연령별 종류와 번역의 양상

1) 본 연구에서 아동문학이란 7-13세의 어린이와 14-18세의 청소년을 모두 독자층으로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문학으로 정한다.

의 형태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 2013년 1-11월까지 약 일 년 동안 국내에서 한국어로 번역, 출판된 아동문학 작품 중 영미문학 소설 249종의 제목을 분석해보았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도서는 국내에서 출판되는 모든 아동청소년 도서를 보관하는 납본도서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도서리스트에서 추출되었다. 연구 대상이 된 도서는 그림책, 동화, 청소년소설로 하위 분류하여 연령별 도서에 따른 번역 양상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 이유를 추론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텍스트로서의 제목의 번역

제목에 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 1970-1980년대에 활동한 두세(Duchet)와 주네트(Genette)를 꼽을 수 있는데, 두세는 제목이 텍스트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지시적(referential) 기능, 독자와 관련해서는 내포적(connotative) 기능,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시적(poetic)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Šidiškytė and Tamulaitienė, 2013, p. 71에서 인용). 제목의 기능을 다른 요소와 관련 지어 논의한 두세와는 달리 주네트(1997)는 제목을 곁텍스트(paratext)의 한 요소로 인식하였고, 제목이 독립적인 곁텍스트 요소로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내용을 명시하고(designation), 암시(indication)하며, 대중을 유혹(seduction)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두 연구자의 시각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목에 관한 연구는 오랜 동안 제목을 텍스트 자체의 일부로서 해석할지, 아니면 반대로 독립적인 요소로서 인정하고 곁텍스트로서 해석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법은 제목의 번역과 연구에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문학의 제목을 본 텍스트의 일부인 텍스트의 형태로 간주하고 번역된 제목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작품의 제목은 텍스트의 일부이자 텍스트로 다루어 번역할 때 전체 작품의 완성도와 조화를 높일 수 있지만, 제목을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번역할 경우 자칫 본 텍스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이 텍스트의 일부 또는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는 번역학에서 기능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제목을 연구한 노드(Nord)에게서 찾을 수 있다. 노드(1995: 265)에 따르면 제목은 목표어 독자에게 수행해야 할 잠재적 기능으로 볼 때 전형적인 텍스트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목이 주어진 텍스트를 구별하게 해주는 차별적(distinctive) 기능, 비언어적 방식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메타텍스트적(metatextual) 기능, 제목의 길이와 연상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친화적(phatic) 기능,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문화적 지시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지시적(referential) 기능, 최상급,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감이나 형용사, 동사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표현적(expressive) 기능과 잠재적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제

목을 읽거나 도서를 구입하게 하는 호소적(appellative) 기능의 여섯 가지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한다.

번역학에서 제목에 관한 또 다른 연구로 뉴마크(Newmark, 1988)의 문학작품 제목 번역에 대한 제안이 있다. 뉴마크는 문학작품의 제목을 텍스트의 주제를 설명하는 서술적 제목(descriptive titles)과 주제를 언급하거나 비유하는 암시적 제목(allusive titles)으로 구분하고, 문학 작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제목 번역 방식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 작품의 경우 서술적 제목은 번역에서도 직역을 이용해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고, 암시적 제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드와 뉴마크의 연구가 번역학에서 제목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이기는 하지만 제목의 번역 양상을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드(1995)는 제목의 텍스트적 특성을 강조하지만 번역과 관련해서는 제목의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텍스트 차원의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뉴마크(1988)는 직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번역 방식을 강조하고 있지만 텍스트로서의 제목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2. 번역에서 드러나는 양상의 분류

그렇다면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 번역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양상을 어떤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번역 보편소의 개념을 활용해보았다.

번역 보편소란 베이커(Baker)의 코퍼스 연구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번역의 보편적 특성이란 원본보다는 번역된 텍스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다” (Baker 1993: 243). 체스터만(Chesterman, 2004: 3)은 번역 보편소란 모든 번역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으로서 번역물과 비번역물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어떠한 특징이 번역 보편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언어 쌍, 텍스트 유형, 번역가, 역사적 시기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도 그 특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번역 보편소란 번역된 텍스트를 접하게 될 목표어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언어적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베이커(1996)는 대표적인 번역 보편소로 단순화(simplification), 명시화(explicitation), 규범화(normalization) 또는 관습화(conservatism)와 균일화(leveling out)를 제시하고 있다.

단순화(simplification)란 번역가가 목표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언어나 메시지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으로 주로 단어의 생략, 삭제 또는 구두점을 변경하면서 이루어진다. 단순화는 해석적인 번역을 하지 않고 메시지나 언어의 모호함을 해결함으로써 명시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시화와 구분된다(Baker, 1996: 181-183). 명시화(explicitation)란 번역 텍스트에서 의미를 함축하기 보다는 배경 지식을 전하기 위해 접속사나 서술적 어휘를 첨가함으로써 번역 텍스트의 메시지가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Baker, 1996: 180-181). 이러한 점은 비번역문과 비교했을 때 번역문의 양적인

길이 증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범화(normalization) 또는 관습화(conservatism)란 번역 텍스트가 목표 언어의 전형적인 패턴이나 특징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Baker 1996: 183-184). 번역문에서 규범화가 이루어질 경우 출발어 텍스트에서 작가가 실험적으로 사용된 구두법이나 표현 등은 도착어의 전형적인 통사구조나 상투적 어휘로 바뀌게 된다. 마지막으로 균일화(leveling out)란 그 동안 문학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번역 보편소로서 번역된 텍스트가 평균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Baker 1996: 184).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개념 중 단순화, 명시화, 규범화와 번역물에서의 독특한 현상인 아닐지라도 흔히 발생하는 직역(literal translation)을 추가하여 영한 제목 번역을 분석해 보았다.

III.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번역 양상 분석

1.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작품의 제목이 텍스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노드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목의 영한 번역 과정에서 나타난 번역 변이의 양상을 관찰해보았다.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2013년 1월-11월까지 한 해 동안 영한 번역되어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웹사이트에 영미문학 소설 단행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370종을 검토하였다. 이 중에서 유아용 활동북, 플랩북 등은 제외하였고, 아동문학의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작품들과, 애니메이션 각색 작품, 고전 소설의 청소년용 축약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1. 아동문학 제목의 한영 번역 연구 대상 도서

| 분류 | 도서 수 |
|-------|------|
| 그림책 | 146종 |
| 동화 | 51종 |
| 청소년소설 | 52종 |
| 합계 | 249종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총 249종의 도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다시 그림책 146종, 동화 51종, 청소년 소설 52종으로 하위분류 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선 대상 도서들의 영어 원문 제목과 한국어 번역 제목 249쌍을 병렬로 기록하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이후 원문의 제목이 목표어인 한국어로 번역된 결과물에서 드러난 양상에 따라 도서의 제목을 분류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 번역에서 가장 빈도 있게 드러난 번역 양상은 무엇인지, 연령별 도서의 종류와 제목의 번역 사이

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 분석 결과

1) 직역(Literal translation)

2013년 1월-11월까지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아동문학 소설 제목의 영한 번역 중 직역의 결과를 보이는 작품은 총 56종이며, 연령별 도서로 볼 때 그림책 38종, 동화 7종, 청소년소설 11종이 이에 해당한다. 제목이 직역된 사례를 일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아동문학 제목 영한번역 양상: 직역에 해당하는 예

| ST 제목 | TT 제목 | 형태 |
|--------------------------|---------|-----|
| <i>Creepy carrots!</i> | 오싹오싹 당근 | 그림책 |
| <i>Exclamation mark</i> | 느낌표 | 그림책 |
| <i>Black dog</i> | 블랙 독 | 그림책 |
| <i>Tikki tikki tembo</i> | 티키티키 템보 | 그림책 |
| <i>Jessica</i> | 제시카 | 그림책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역이 된 출발어의 제목들은 공통적으로 1-3 단어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대개 도착어 제목도 동일하게 단순한 형태를 유지한다. 영어 제목을 그대로 차용하여 음역한 것도 직역된 제목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다. *Black dog*, 『블랙 독』이나 *Tikki tikki tembo*, 『티키티키 템보』처럼 제목이 주인공의 이름인 경우나 한국어에는 없는 의성어가 제목인 경우이다. 청소년소설의 경우 *Pigboy*, 『피그보이』; *Westing game*, 『웨스팅 게임』에서처럼 제목에 음역된 단어는 이미 한국어 문화에서 어느 정도 친숙한 단어들이다. 일부 사례만을 다루기는 했으나 표 2에서 보듯이 직역된 아동문학의 제목은 출발어와 도착어 사이에 형태상 유사성이 보이며 제목에 포함된 단어들이 중의적인 의미 없이 단순한 의미를 전달함을 알 수 있다.

2) 단순화((Simplification)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 번역에서 단순화가 이루어진 제목은 총 13종이며, 그림책 7종, 동화 2종, 청소년소설 4종이 이에 해당한다. 제목 번역에서 단순화를 보이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아동문학 제목 영한번역 양상: 단순화에 해당하는 예

| ST 제목 | TT 제목 | 형태 |
|--|-------------------|-----|
| <i>Perfect yellow rose</i> | 노란 장미 | 그림책 |
| <i>Young Frank, architect</i> | 꿈꾸는 꼬마 건축가 | 그림책 |
| <i>Howard B. Wigglebottom learns about sportsmanship: winning isn't everything</i> | 정정당당 : 밥상머리 인성 교육 | 그림책 |

| | | |
|--|------------------|-----|
| <i>Howard B. Wigglebottom and the monkey on his back: a tale about telling the truth</i> | 거짓말 : 밥상머리 인성 교육 | 그림책 |
| <i>Gus, the dinosaur bus</i> | 우당탕! 공룡 버스 | 그림책 |

위의 표에서 보듯이 단순화가 발견되는 번역 제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Howard B. Wigglebottom learns about sportsmanship: winning isn't everything*과 *Howard B. Wigglebottom and the monkey on his back: a tale about telling the truth*이다. 한국어 제목에서는 각각 『정정당당 : 밥상머리 인성 교육』과 『거짓말 : 밥상머리 인성 교육』으로 원제목의 고유명사를 ‘밥상머리 인성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도서의 시리즈의 성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하워드 B. 위글바텀’이라는 영어 이름이 음역을 하기에는 한국어 독자에게 낯설 뿐만 아니라 제목의 길이도 고려해 원 제목을 대폭 간략화하여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Perfect yellow rose, 『노란 장미』와 *My red balloon*, 『빨간 풍선』처럼 명사의 상태나 소유관계를 드러내주는 ‘perfect’와 ‘my’라는 어휘를 생략하여 단순화시키거나, 고유명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Young Frank, architect*, 『꿈꾸는 꼬마 건축가』; *Mara, daughter of the Nile*, 『나일 강의 딸』에서 보듯이 제목에서 고유명사를 생략함으로써 제목이 단순화되었는데, 이는 작품의 관점을 개방하거나 한국어 제목으로 번역되었을 때 이름에서 느껴지는 낯설음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3) 명시화(explicitation)

제목 번역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된 양상이 명시화이다. 총 94종의 작품의 제목이 명시화 방식을 이용하였다. 여기에는 그림책 57종, 동화 18종, 청소년소설 19종이 해당한다. 제목이 명시화된 사례를 일부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아동문학 제목 영한번역 양상: 명시화에 해당하는 예

| ST 제목 | TT 제목 | 형태 |
|--------------------------|--------------------|-----|
| <i>Pirates next door</i> | 옆집에 이사 온 올바르다 해적단 | 그림책 |
| <i>Terrible suitcase</i> | 나의 컷 책가방 | 그림책 |
| <i>Jemmy Button</i> | 제미 버튼 : 문명을 거부한 소년 | 그림책 |
| <i>Olanna's big day</i> | 올란나의 목도리 | 그림책 |
| <i>Oddrey</i> | 나는 오드리야! | 그림책 |

명시화된 제목 번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도착어 제목의 길이가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Pirates next door*, 『옆집에 이사 온 올바르다 해적단』; *Oddrey*, 『나는 오드리야!』; *The paper house*, 『나이로비의 종이집』에서 보듯이 원제목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앞에 본 텍스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적 어휘를 포함함으로써 독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제목에 부제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Jemmy Button*, 『제미 버튼 : 문명을

거부한 소년』; *Why pick on me?*, 『왜 나한테만 그래? : 빨간머리 마빈의 억울한 이야기』는 원제목에 부제목 역할을 하는 어휘군을 첨가하여 작품의 캐릭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다. *White lilacs*, 『하얀 라일락 : 캐럴린 마이어 장편소설』과 *My sister lives on the mantelpiece*, 『누나는 벽난로에 산다: 애너벨 피처 장편소설』은 제목에 작가의 이름을 삽입한 사례인데, 외국에서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나 작가일 경우 도착어의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화가 나타난 작품의 제목은 의미가 확장되고 명료해진 만큼 제목의 시각적 길이도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규범화(normalization)

아동문학 작품에 내재된 문화적 특성이 도착어의 문화권에 친숙하지 않거나 규범과 상이한 경우 번안이나 창작을 통해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규범화를 통해 제목이 번역된 도서는 총 86종이며, 그림책 44종, 동화 24종, 청소년소설 18종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예를 볼 수 있도록 제목이 규범화된 사례를 일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아동문학 제목 영한번역 양상: 규범화에 해당하는 예

| ST 제목 | TT 제목 | 형태 |
|---|-------------------|-----|
| <i>Sally sore loser: a story about winning and losing</i> | 이겨야 꼭 행복할까? | 그림책 |
| <i>Silence can be beautiful</i> | 아름다운 나의 소리가 들리나요? | 그림책 |
| <i>Too shy for show-and-tell</i> | 난 발표가 정말 싫어! | 그림책 |
| <i>Rocket writes a story</i> | 글 쓰는 강아지 몽치 | 그림책 |
| <i>All creatures great and small</i> | 모두 모두 예뻐요 | 그림책 |

두 언어권 제목의 번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Red sky in the morning*, 『내 동생이 떠나고 + 365』처럼 두 제목 쌍이 서로 연관이 적어 보인다는 점이다. 출발어인 영어 제목의 스타일이 한국어에서 익숙한 스타일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목이 그대로 번역될 경우 호기심보다는 거부감을 유발하기 쉽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규범화된 도착어 제목의 형태에서 현재 한국 아동문학계에서 선호하는 제목의 스타일을 유추해 볼 수 있다. *Sally sore loser : a story about winning and losing*, 『이겨야 꼭 행복할까?』; *Too shy for show-and-tell*, 『난 발표가 정말 싫어!』; *Lost for words*, 『멋진 글을 쓰고 싶어!』 등의 제목에서 보듯이 출발어 제목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한국 아동문학 작품의 제목에서 많이 등장하는 감탄문과 의문문을 사용해 창의적인 제목 번역을 보이고 있다.

규범화된 제목의 또 다른 특징은 고유명사를 이미 잘 알려진 이름으로 대체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How Rocket learned to read*에서 주인공 강아지인 Rocket은 한국어 작품에서는 ‘몽치’가 되었고, *Hans and Matilda*는 한국어 작품에서 ‘티미와 마티’로 대체되었다. 규범화가 나타난 제목의 번역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 친숙도와 매우 상관이 있다.

IV. 결론

이제까지 2013년 영미권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출판된 도서의 제목에서 한국 아동문학 제목의 영한번역에 나타난 양상을 직역과 번역보편소의 대표적 개념인 단순화, 명시화, 규범화를 기준으로 분석해보았다. 문학작품의 제목을 결텍스트가 아닌 텍스트의 한 형태이자 전체 텍스트의 일부로 간주하여 제목 번역의 양상을 텍스트 분석처럼 살펴볼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목 번역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 양상은 명시화와 규범화였는데, 이는 아동문학 장르의 독자층의 특성과 문화를 포함하는 텍스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순화는 모든 도서 형태에서 가장 낮게 취한 번역 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제목 번역이 단순한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텍스트의 번역처럼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루어짐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연령별 도서 종류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책의 제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명시화와 익숙한 제목 패턴으로 작품에 대한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규범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출발어의 제목 자체가 단순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번역한 직역도 많았다. 동화와 청소년소설의 제목은 규범화와 명시화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 한국어 제목의 스타일과 유사한 제목이 여럿 있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 아동문학 제목의 한영 번역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아동도서의 영한 제목 번역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번역 보편소의 요소와 직역이라는 번역 전략을 활용했으나 텍스트로서의 제목을 번역하기 위한 전략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분석한 한계가 있으며, 텍스트적인 분석에 머물다 보니 아동문학 번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출판사와 번역사들의 의견을 포함하지 못해 실질적 측면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관심이 절실한 아동문학 번역의 한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아동문학 번역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Baker, M.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Baker, M., G. Francis, and E.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H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 Baker, M.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Somers, H.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ur of Juan C. Sager*. Amsterdam: John Benjamins.
- Chesterman, A. (2004). Hypotheses about translation universals. In Hansen, G., K. Malmkjær, and D. Gile (eds.), *Claims, changes and challenges in translation studies: selected contributions from the EST Congress, Copenhagen 2001*. Amsterdam: John Benjamins.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vanovic, M. (1990). On translating titles. *Babel*, 36: 213-222.
- Munday, J.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Nord, C. (1995). Text Functions in Translation: Titles and Headings as a Case in Point. *Target*, 7(2): 261-284.
- Šidiškytė, D. and Tamulaitienė, D. (2013). The Contrastive Analysis of the Translation of English Film Titles into Lithuanian and Russian. *Kalbu Studijos*, 22: 71-77.
- Viezzi, M. (2011). The translation of book titl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In Kujamaki, P., L. Kolehmainen, E. Penttila, and H. Kemppanen (eds.), *Beyond Borders: Translations Moving Languages, Literatures and Cultures*. Berlin: Frank & Timme.

Theme 분석을 적용한 통역 품질 평가

이 주 은
부산대학교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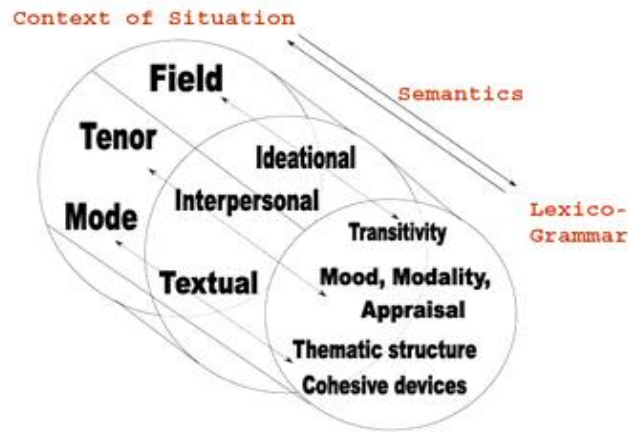
통번역 품질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의 부재로 여전히 주관적인 평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의미의 오류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주된 지적일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잦대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김미라(2009)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Halliday의 SFG(Systemic Functional Grammar, 체계기능문법)를 적용한 번역 평가 모델(표 1)을 제시하면서 의미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경험적(experiential), 논리적(logical), 대인적(interpersonal), 그리고 텍스트적(textual) 층위로 구분하였다.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그는 이러한 접근이 학습자와 교수에게 오류를 분별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에 적절하다고 설명한다(ibid., p. 145).

표 1. 번역 평가 기준

| | | | Lexis | Clause | Text |
|-------|---|-------------|---------|---------|---------|
| Major | Experiential | Accuracy | 1-2 pts | 2-3 pts | |
| | | Naturalness | 1-2 pts | 2-3 pts | |
| | Logical | Accuracy | | 1-3 pts | |
| | | Naturalness | | 1-3 pts | |
| | Interpersonal | Accuracy | 1-2 pts | | 3-5 pts |
| | | Naturalness | 1-2 pts | | 3-5 pts |
| | Textual | Accuracy | | 1-2 pts | 3-5 pts |
| | | Naturalness | | 1-2 pts | 3-5 pts |
| Minor | Graphological mistakes such as spelling | | | | 0.5 |
| | Minor grammar mistakes that do not impact meaning | | | | 0.5 |

Halliday(2014)의 체계기능문법은 언어를 언어 시스템상의 선택의 결과로 보고 생성된 의미에 주목한다. 그는 상황적 맥락(그림 1)을 field, tenor, mode로 구분하는데, 담화에서는 각각 관념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로 실현된다. 체계기능문법에서는 담화의 '무엇'에 해당하는 field와 '누구'에 해당하는 tenor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mode를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림 1. 담화의 의미 층위



본 연구는 체계기능문법을 통역 평가에 적용해보는 시도로서, 먼저 텍스트적 의미를 규명할 수 있는 theme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Eggins(2007)는 theme을 담화 구성 요소의 순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절(clause) 단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theme에 해당한다. Halliday & Matthiessen(2004)은 theme을 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려주는 메시지의 출발점(starting-point for the message)이라고 정의한다. 영어에서는 절의 출발점이 중요하고 구별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텍스트 전개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Butt, et al., 2012).

II. 선행 연구

본 연구에서는 통역 평가와 관련하여 특히 순차통역의 노트테이킹에서 나타나는 theme과 통역 결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동안 통역과 관련된 연구에서 노트테이킹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연구 관점도 다양한데, 가령 도착어로 노트테이킹할 때의 교육적 장점을 제시한 연구(이창수, 2001), 학습자를 대상으로 노트테이킹 현상을 분석한 연구(임향옥 2012, 2010, 2006a, 2006b; González 2012), 노트테이킹 교수법을 탐구한 연구(이지은 & 최문선, 2012; Chmiel, 2010), 그리고 노트테이킹의 제반 현상과 특징에 대한 연구(Kohn & Albl-Mikasa, 2002; Ahrens, 2005) 등이 있다.

이들 연구 모두 노트테이킹과 통역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체계기능문법이 국내외 번역 관련 연구에 적용되어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체계기능문법을 국내 통역 연구에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통역 연구를 위한 체계기능문법의 의의를 발견하고, 체계기능문법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I. 분석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통번역 집중 과정(6주)의 참가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통번역 훈련에는 6명이 참가했는데, 이들 모두 통역 교육을 처음 받는 학생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예비 연구 단계로 텍스트 2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한다. 통역 실습을 위해 원고는 제6회 아시아 영화제(2011)의 연설문을 선정했는데,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를 채택함으로써 배경지식의 차이로 인한 통역 품질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고 분량은 한번 듣고 노트테이킹한 후 통역할 수 있는 길이로 선정했다. 분석대상 텍스트는 6주 과정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취합한 결과물이다. 6주 간의 훈련 동안 노트테이킹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전달되었으며, 여기에는 레이아웃, 텍스트 요소 배치 및 구분, 기호 및 약어 활용 등이 포함된다.

노트테이킹을 바탕으로 생성된 통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노트테이킹을 보고 발화를 하는 대신 통역할 내용을 종이에 적도록 하였다. 이는 정확한 재현 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설정이었는데, 노트테이킹상에서의 theme²⁾과 결과물에 나타나는 theme을 명확히 대조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이다. 학생들이 노트테이킹한 결과를 보면, 대개의 경우 문장 단위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절이 아닌 문장 단위로 theme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V. 분석 결과 논의

ST를 기준으로 학생 2명의 노트테이킹과 그에 따라 생성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부생 2명의 노트테이킹 theme에 대한 비교이다(표2). 두 학생이 차이를 보이는 today, starting from 2006, the festival, they 등 4곳인데, A 학생은 ST의 theme을 노트테이킹상에서 그대로 재현했음을 알 수 있다. 단, the festival의 경우 문맥상 유추가 가능했기 때문에 생략이 이루어졌다. 반면, B 학생의 경우 ST의 theme이 누락되었고, 오히려 생략이 가능한 theme은 기록하는 결과를 보였다.

2) Halliday가 theme을 '출발점'으로 정의내린 것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트테이킹에서 좌측에 가장 먼저 기록된 요소를 theme으로 설정하였다.

표 2. 노트테이킹 theme 비교

| ST Themes | Student A | Student B |
|--|-------------------|-------------------|
| Today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I | Ellipsis | Ellipsis |
| The purpose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Starting from 2006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 The Festival | Ellipsis | Thematic Position |
|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 There | Ellipsis | Ellipsis |
| They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 I | Ellipsis | Ellipsis |
| Finally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다음은 A, B 학생 각각의 노트테이킹과 통역 텍스트에 대한 theme 비교이다. 아래(표3,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학생의 경우 ST의 theme을 노트테이킹에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이는 통역 결과물로서의 텍스트에도 나타난다. 단, there는 노트테이킹에서 생략했고, 실제 통역 텍스트에서는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로 전달했다.

표 3. Student A 노트테이킹과 통역 텍스트 비교

| ST Themes | Student A NT | Student A TT |
|--|-------------------|-------------------|
| Today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I | Ellipsis | Ellipsis |
| The purpose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Starting from 2006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The Festival | Ellipsis | Ellipsis |
|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There | Ellipsis | Existent |
| They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I | Ellipsis | Ellipsis |
| Finally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B 학생의 경우, ST의 theme을 생략해도 되는 것까지 노트테이킹에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록해 두어야 하는 theme은 일부 누락하는 등 theme 기록에 있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finally와 같이 노트테이킹에는 기록을 했으나 최종 텍스트에서는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Theme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B 학생의 통역 결과물은 의미 오류와 의미 누락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통역 품질이 저하되었다.

표 4. Student B 노트테이킹과 통역 텍스트 비교

| ST Themes | Student B NT | Student B TT |
|--|-------------------|-------------------|
| Today | Ellipsis | (now) |
|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I | Ellipsis | Thematic Position |
| The purpose | Thematic Position | Thematic Position |
| Starting from 2006 | Ellipsis | Ellipsis (error) |
| The Festival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 Ellipsis | Ellipsis (error) |
| There | Ellipsis | (festival) |
| They | Ellipsis | (here) |
| I | Ellipsis | Thematic Position |
| Finally | Thematic Position | Ellipsis |

V. 결론

이상으로 theme 분석을 통역 품질 평가에 적용해 본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는 예비 연구로 이후 더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통역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역 품질 평가는 단면적이거나 부분적인 조명만으로는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theme 분석만으로 통역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통역 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서 본 연구 결과가 의미 있다고 보았으며, 이후 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지은 & 최문선. (2012). 「효과적인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교수법: 영한 순차통역 노트테이킹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4), 169-195.
- 이창수. (2001). 「Note-taking을 도착어로 할 때의 교육적 장점 연구」. 『통번역학연구』, 5, 97-111.
- Ahrens, B. (2005). Rozan and Matyssek: Are they really different? A comparative synopsis of two classic note-taking schools. *Forum*, 3(2), 1-15.
- Butt, D., Fahey, R., Feez, S. & Spinks, S. (2012).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 Victoria: Palgrave Macmillan.
- Chmiel, A. (2010). How effective is teaching note-taking to trainee interprete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4(2), 233-250.
- Eggs, S. (2007).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Continuum.
- González, M. A. (2012). The language of consecutive interpreters' notes: Differences across levels of expertise. *Interpreting*, 14(1), 55-72.
- Halliday, M. A. K.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 New York: Routledge.
- Halliday, M. A. K. & Mattiessen, C.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Arnold.
- Kim, M. (2009). Meaning-oriented assessment of translations: SFL and its application to formative assessment. In Angelelli, C. V. & Jacobson, H. E.,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 a call for dialogu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p.123-157.
- Kohn, K. & Albl-Mikasa, M. (2002). Note-taking in consecutive interpreting: On the reconstruction of an individualised language. *Linguistica Antverpiensia*, 1, 257-272.
- Lim, H. O. (2012). A critical analysis of note-taking. 『통역과 번역』, 14(2), 233-253.
- Lim, H. O. (2010). Doing a double take on note-taking. *Forum*, 8(1), 161-179.
- Lim, H. O. (2006). A post-mortem of note-taking. *Forum*, 4(2), 89-112.
- Lim, H. O. (2006). Note-taking into B: A constant or constantly changing?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141-162.

[별첨 1]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6th Asian Film Festival**

2011-04-20

By H.E. Ambassador Liu Xinsheng, April 15, 2011

Your Excellency Permanent Secretary Sethi Kamuhanda

My dear colleagues

Ladies and gentlemen,

Today, we get together to hold the opening ceremony for the 6th Asian Film Festival in Dar es Salaam. In the name of the Asian Diplomats' Cultural Forum, and on behalf of the Chinese Embassy, the coordinator of this Festival, I would like to extend our warm welcome to our distinguished guests and audience, to express our sincere thanks to Tanzanian Ministry of Information, Youth, Culture and Sports for its energetic support. I would also like to express my high appreciations to all hosting embassies and high commissions for their kind efforts and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e Asian Film Festival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harmony of our colorful Asian culture. Starting from 2006, to date, it has become a window for Tanzanian people to understand Asian country and people, and an important platform to enhance the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sian countries and Tanzania. The Festival also has deepened the friendly cooperation among Asian diplomatic mission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is Festival shows that respecting cultural diversity and adhering to cultural exchange are conducive to the very important and friendly relations and to the common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Ladies and gentlemen,

There are 10 embassies/high commissions co-hosting this Festival which are China, India, Indonesia, Iran, Japan, the Republic of Korea, Pakistan, Palestine, U.A.E and Vietnam, the most in number since the Festival's establishment. They have selected 10 excellent feature films characteristic of respective culture to be screened from April 15-24. I believe that people would enjoy. Wish the 6th Asian Film Festival a full success!

Finally, on behalf of Asian diplomatic missions and diplomats, I'd like to extend our sincere sympathies to the Japanese Embassy and the Japanese people for the huge life and property loss inflicted by the recent massive earthquake and tsunami in Japan, and wish the Japanese people would overcome the difficulties and rebuild their homeland at an earlier date.

Thank you very much!

세션 3-B:
신진연구자 세션

4:15-6:00
일반대학원 402호

좌 장: 이 지 은 (이화여대)

발표자:

| | | |
|--------------|---|-----|
| 김 훈 밀 (한국외대) | 어휘지식, 독해능력, 주제지식과 번역과의 상관관계: 학부생 데이터를 중심으로 | 99 |
| 송 연 석 (한국외대) | 이데올로기 전파 도구로서의 번역 | 104 |
| 홍 설 영 (이화여대) | 통역사의 문장구역 능력의 관한 고찰 | 109 |

토론자: 성 승 은 (한국외대), 김 순 미 (숙명여대), 최 문 선 (이화여대)

어휘지식, 독해능력, 주제지식과 번역과의 상관관계: 학부 학생들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김 훈 밀
한국외대

I. 서론

번역능력이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은 꾸준히 번역학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접근방식은 학자들 마다 다양하며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을 규명함으로써 번역 능력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번역 하위 능력의 규명은 번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번역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번역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라면,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을 계발함으로써 총체적인 번역 능력의 계발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번역 능력의 하위 능력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는 번역 교육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하위 능력이 각각 번역 능력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번역 커리큘럼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번역능력을 구성하는 하위능력을 정의한 선행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팩트 그룹(PACTE Group, 2002)의 번역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번역모델에서는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을 이중언어능력, 언어의 능력, 번역작업에 대한 지식, 자원활용능력, 번역전략사용 및 문제해결능력, 심리 생리적 능력의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팩트 그룹의 연구는 전문 번역사를 피실험자로 하여 이루어졌다. 전문 번역사로의 번역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 학생들의 경우에는 팩트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학부생들의 경우 전문 번역사의 하위 번역 능력을 그대로 목표로 설정하여 번역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학생들의 목표, 수업의 목적, 및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부생들을 피실험자로 하여 학부생의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번역능력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학부생의 번역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번역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을 검증하고, 검증된 다수의 하위 능력이 번역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학부생의

번역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위 능력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교의 영어학부 1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만 18.7세이고 남녀 학생 수는 각각 23과 37명이었다. 1년 이상 해외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36.7%였다.

1. 어휘 지식, 독해 능력, 주제지식, 번역 성과의 측정

학생들의 일반 어휘지식과 독해능력은 국가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모의고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TEPS는 신뢰도와 공정성이 보고되어 (최인철, 1999) 국내외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검정하는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어휘 영역과 독해 영역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선택되었다.

번역 텍스트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친숙함의 정도는 학생들의 자기보고(self-report)를 통해 이루어졌다.

번역성과는 두 개의 영문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B->A)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두 개의 텍스트 중 하나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주 접해 익숙한 주제인 '독도'에 대한 텍스트였고 (출처: BBC 뉴스),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시금치의 색깔과 업록소에 관한 텍스트였다 (출처:gulfnews). 서로 상이한 주제의 텍스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주제지식이 번역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2. 자료 분석

1) 어휘 지식과 독해 능력

어휘 능력과 독해 능력은 TEPS 모의고사 결과를 백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2) 번역 성과

번역 성과는 번역 점수를 통해 대표되었다. 번역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과 방법은 통번역학 내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의 학생들의 총체적인 번역 능력을 평가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으므로 총체적(holistic)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총체적 평가 기준도 학계에 여러 가지가 보고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전달에 우선순위를 둔 Carroll의 번역 평가 스케일(1966)을 보다 단순화 한 6단계 번역 평가 기준을 사용하였다.

3) 통계 기법

(1)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MR)

학생들의 일반 어휘 지식, 독해 능력, 주제 지식과 번역 성과간의 상환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의 통계기법이 활용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의 하나로 모집단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다수의 독립변수가 존재할 때, 하나의 종속변수와 다수의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다중 회귀분석은 모집단이 가지는 종속변수 상의 편차가 독립변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와 설명될 수 있다면 편차의 몇 퍼센트가 해당 독립변수로 인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사용된다.

(2)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본 분석에서 60명의 학생이 모집단을 형성하며 학생들의 번역 점수가 종속변수, 학생들의 일반 어휘지식, 독해 능력, 주제지식이 3개의 독립변수이다.

(3)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번역 성과가 어휘 지식, 독해 능력, 주제 지식 세 가지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세 가지 독립변수 각각의 영향은 어느 수준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학부 학생들의 번역수업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수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부 학생들의 영한 번역 성적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이며, 여러 가지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번역 성과 세 가지의 독립변수 -출발어 어휘 지식, 출발어 독해 능력, 주제 지식-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각 변수가 독립적으로 가지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출발어 어휘지식, 출발어 독해 능력, 주제 지식 세 요인 중 학생들의 번역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발어 어휘 지식으로 학생들의 번역 성적편차의 19.9%가 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발어 독해 능력으로 번역 성적 편차의 12.8%를 차지한다. 예상과 달리 주제 지식은 학생들의 번역 성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변수를 복합적으로 가지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세 변수가 텍스트1과 텍스트2의

번역 성적 편차에 대해 각각 13.3%와 17.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세 변수 중 어휘 지식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해 능력과 주제 지식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수를 복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번역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휘 지식을 단독으로 반영했을 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휘 지식을 제외한 다른 두 변수는 학생들의 번역 성적의 편차를 의미있는 수준에서 설명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독해 능력은 단독으로는 설명력을 가지나 어휘 지식과 함께 사용될 때는 어휘수준의 설명력에 더하여 추가로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함.)

이러한 결과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전문 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를 통해 학부생 집단과 같이 번역자의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번역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 능력이며 주제 지식은 번역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전문 번역사 집단과 같이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언어 능력 뿐 아니라 주제 지식과 같은 비언어적 능력이 번역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이라 함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적어도 국내 언어 학습자 집단 (TEPS 응시자) 중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거두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통번역 교육이 학부로 많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부 과정에서의 통번역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 연구의 피실험자군의 규모 (N=60) 및 구성을 놓고 볼 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대규모의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의 번역물에 대한 평가가 단일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것으로 다수 평가자간의 평가자간 신뢰도 (inter-rater reliability)가 확보되지 않은 점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 교육에 관한 일고찰-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3(1), 21-52.
- 김련희. (2006). 「번역능력의 구성요소: 원문어휘지식과 원문주제지식」.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2), 31-54.
- 김련희. (2011). 「학부 번역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통역과 번역』, 13(2), 19-52.
- 이은숙, 이은정. (2010). 「학부 번역 수업의 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번역 인식도 조사」. 『언어학 연구』, 17, 215-234.
- Bell, T. (1991). *Translation and Translating*. London: Longman.
- Carroll, J. (1966). An Experiment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s. *Mechanical Translation and Computational Linguistics*, 9 (3 & 4), 55-66.
- Inn Chull Choi, (1999). Test fairness and validity of the TEPS, *Language Research*, 35(4), 571-603.
- Keith, T. (2006). *Multiple Regression and Beyond*. Boston: Pearson.
- Neubert, A. (2000). Competence in language, in languages, and in translation. In Christina Schäffner and Beverly Ada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pp. 3-18).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PACTE. (2011). Results of the validation of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Translation project and dynamic translation index, In O'Brien, Sharon (Eds.), *IATIS Yearbook 2010*, Londres: Continuum.

이데올로기 전파 도구로서의 번역

- 뉴욕타임스 ‘나는 꿈수다’ 관련기사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송 연 석
한국외대

I. 서론

언론사는 영리기관으로서 목표독자층의 이데올로기에 맞는 담론을 생산해야 수익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제약을 받고 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파함으로써 존속하게 되는 셈이다. 언론사가 생산주체인 뉴스번역 역시 해당 언론사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번역이 가치중립적 활동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하티姆과 메이슨, Hatim and Mason, 1997, p.145), 개인과 기관이 번역에 특정 신념, 즉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특정 효과를 내는 행위 또한 수백 년 역사를 갖고 있다(포셋, Fawcett, 1998, pp.106-107). 언론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특히 독자가 신뢰하는 해외 권위지 기사를 특정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따라 번역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사가 번역주체가 되는 뉴스번역에서, 번역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고 이것이 해당 언론사의 이데올로기 전파에 이용되는 양상을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이데올로기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로 꼽히며(판다이크, van Dijk, 1998), 번역학에서도 “개인이나 기관의 세계관을 알려주고 사건이나 사실 등에 대한 해석을 돕는 신념 및 가치”(메이슨, Mason, 1992, p. 25)로 보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집단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 집단을 식별하게 해주고” 정치적, 부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로 보는 관점(셰프너, Schäffner, 2003, p.6)도 있다. 나아가 번역을 이데올로기를 통한 “조작, 정보거부, 위조, 암호생산 행위(Tymoczko and Gentzler, 2002, xxi)”로 간주하는 극단적인 관점도 존재한다.

뉴스번역의 경우, 언론사라는 사회집단의 제도적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특정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체계(판다이크, van Dijk, 2001, p.12)”, “사회집단이 공유하는 암묵적인 가정, 신념, 가치체계(하팀과 메이슨, Hatim and Mason, 1997, p.144)”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이데올로기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의 뉴스번역은 전형적인 제도적 번역으로서 (모섭, Mossop, 1990), 번역생산조건에서부터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번역담당자가 아닌 데스크와 편집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번역할 ST의 선택부터 구체적인 번역 전략까지, 기관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송연석, 2013a).

언론사가 생산하는 뉴스담론은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동시에 여론 조성 등 사회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이데올로기가 강화/약화될 수 있다. 이는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뉴스연구가 CDA 관점에서 이뤄져 왔다. CDA는 판다이크가 이끄는 사회인지적 접근법, 페어클러프(Fairclough)의 변증법적 접근법, 워닥(Wodak)의 담론-역사적 접근법, 논증 및 수사 기반 접근법, 코퍼스 기반 접근법 등 다양한 분파로 나뉘는데(페어클러프, 2011), 특정 시점에 생산된 소규모 번역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할 때는 페어클러프와 판다이크의 접근법이 적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페어클러프는 담론이 생산 및 소비되는 실천적 측면(practice)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를 뉴스번역에 적용하면 텍스트뿐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상황 및 맥락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또한 텍스트 자체의 이데올로기 분석에는 판다이크의 사회인지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다이크(2011)는 이데올로기가 뉴스텍스트의 의미구조와 형식구조에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우리’로 규정되는 내집단(ingroup)과 ‘그들’로 규정되는 외집단(outgroup) 간의 대립구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부정적 함축이나 전제를 깔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III. 분석 방법 및 결과

ST는 2011년 11월 1일자 뉴욕타임스 기사 “By Lampooning Leaders, Talk Show Channels Young People’s Anger in South Korea”로, 2011년 4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18일까지 방송되며 큰 화제를 뒀던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이하 ‘나꿈수’)'를 소개한 기사고, TT는 이를 번역해 보도한 여러 버전의 국내 언론사 기사들이다. 2011년 4월 27일부터 제18대 대선 전날인 2012년 12월 18일까지 방송된 ‘나꿈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노골적이고 신랄한 비판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기성 언론 또한 대안언론으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내 언론사에서 번역해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들 중 가장 많은 버전의 TT(총 16개)가 파생된 기사란 점이 그 방증이다. ‘나꿈수’는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던 방송인 만큼 ST에는 제목을 비롯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보수주의 정부에 불리한 내

용이 많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분석을 위해 먼저 ST인 뉴욕타임스가 보도된 날짜를 기점으로 이후 일주일간 편역해 보도된 국내 언론사들의 관련 기사를 네이버 뉴스검색을 통해 수집했다. 텍스트의 모드(Mode)가 다른 TV나 라디오 방송용 기사는 제외하고, 신문사와 통신사가 작성한 기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TT는 총 16개 버전이 생산됐고 19개 언론사가 이 중에서 선택해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텍스트에서는 제목과 리드가 해당 뉴스 전체의 프레임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목과 부제에 나타난 정부에 대한 보도 태도를 기준으로 TT의 유형을 분류한 뒤, 각 언론사의 이데올로기적 지향과 해당 기사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적 특징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먼저 제목 및 부제는 정부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크게 (1) 정부의 부정적인 면 약화, (2) 정부의 부정적인 면 강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예1]

ST: By Lampooning Leaders, Talk Show Channels Young People's Anger in South Korea

TT1: “‘나꼼수’ 한국인 분노 풍자로 달래다”

IHT 1면 톱기사로 집중 조명 (연합뉴스,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TT2: “토크쇼를 통해 젊은이들의 분노를 전달하다”

NYT해외판, 나꼼수 열풍 조명 (조선일보)

TT3: ‘나는 꼼수다’ 4인방, 국제적 깔때기 되다

미국 ‘뉴욕타임’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1면 톱으로 다뤄

“3개 메이저와 2곳 방송국이 전하지 않은 뉴스를 자세히 전하기 때문”

“정부가 인터넷 여론을 옥죄고 언론자유가 후퇴한 상황에서 해방구 역할” (한겨레)

예1에서 진보주의 매체가 생산한 TT3은 제목의 프레임에서 보수주의 정부와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 같은 태도는 본문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2]

ST: Kang Sang-hyun76, a journalism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said the podcast's success was also a reflection of (ㄱ)a growing disenchantment with the country's three most powerful newspapers,(ㄴ) all of them conservative and accused of favoring Mr.Lee, as well as with the country's two leading television networks,(ㄷ) whose heads are effectively appointed by the government.

TT1 (연합뉴스/동아일보): 저널리즘을 전공한 한 대학교수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팟캐스트

의 성공은 (L) ∅ 보수적인 3개 유력지와 (C) ∅ 2개 주요 방송에 대한 (ㄱ)각성을 보여 준다"며...

TT2 (프레스이안):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의 김상현 교수는 '나꼼수'의 성공은 (L)보수적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고 있다고 비난받는 한국의 3대 유력 신문, 그리고 (C) 정부가 사장을 임명한 TV 방송국 두 곳에 대한 (ㄱ) 국민들의 환멸이 커져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TT3 (한겨레): ... (L)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3개 메이저 신문과 (C) 정부가 임명한 사장이 운영하는 2곳의 방송국 등이 전하지 않는 정보들을 자세히 전해주는 점도 인기의 비결이라고 덧붙였다.

TT4 (조선, 중앙일보): 해당 부분 생략

ST의 'three most powerful newspapers'에 해당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정부와 대통령의 관련성 부분을 생략하거나 생략된 버전의 TT를 전재함으로써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한 반면, 보수주의 정부 및 언론과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프레스이안과 한겨레는 이를 그대로 명시한 번역을 통해 '그들'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각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다른 번역전략을 취했고 결과적으로 번역을 통해 해당 신문 독자들에게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한 한 예다.

IV. 결론

분석 결과 언론사들은 각자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에 맞춰 ST를 재구성하거나 특정 부분을 생략/추가, 강조/약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나꼼수' 단일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분석(송연석, 2013a, 2013b)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그 결과만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후속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데올로기가 인지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진솔함과 자기성찰이 전제된 심층면접조사 등의 보완 연구가 이뤄져야 번역 현상에 대한 단순 기술이 아닌 정확한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 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7-43.
- 송연석. (2013a). 『제도적 번역으로서의 외신번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부와 언론사 간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송연석. (2013b). 「뉴스번역의 이데올로기 - 4대강 사업 관련 외신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7(4), 75-100.
- Fairclough, N., & Wodak, R. (201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T. A. van Dijk (Ed.),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pp. 357-378). London: Sage Publications.
- Fawcett, P. (1998). Ideology and translation. In M.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pp. 106-111). London: Routledge.
- Hatim, B., & Mason, L.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New York: Routledge.
- Mossop, B. (1990). Translating institutions and idiomatic translation. *Meta*, 35(2), 342-355.
- Schäffner, C. (2003). Third ways and new centres: Ideological unity or difference? In M. Calzada-Pérez (Ed.), *Apropos of Ideology* (pp. 23-41).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Tymoczko, M., & Gentzler, E. (2002). *Translation and Power*. Amherst/Bost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van Dijk, T. A. (1998). *Ideology: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s.
- van Dijk, T. A. (2001). Discourse, ideology and context. *Folia Linguistica*, 19(1-2), 11-40.
- van Dijk, T. A. (2011). Discourse and ideology. In T. A. van Dijk (Ed.), *Discourse Studies: A multidisciplinary introduction* (pp. 379-407). London: Sage Publications.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

홍 설 영
이화여대

본 발표는 문장구역 교수·학습법에 관한 연구자의 박사논문의 내용에 근간하여 영-한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에 따른 수업의 구성요소 도출까지의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 서론

“원천 언어(SL)의 문서 텍스트를 목표 언어(TL)의 구어적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Visintin et al. 2009: 612)”으로 정의되는 문장구역은 통역사의 해석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Pöchhacker 2004: 186). 통역사는 실무에서 사전에 작성된 텍스트에 기반하여 통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장구역이란 실무 통역의 중요한 한 유형이다.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 교육을 논할 때 문장구역이 통역 혹은 번역과 어떤 면에서 상이한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장구역은 언어 처리적 기제, 요구되는 인지 능력 및 수행 전략의 측면에서 통역 및 번역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일례로 원천 텍스트(ST)의 입력 형태 기준으로는 문장구역이 번역과 유사하지만 정보 처리에 있어 문장구역은 텍스트가 있는 동시통역과 흡사하다(Pratt 1991). 또한 일회성 청취를 통해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통역이 문장구역에 비해 기억을 위한 인지적 노력이 더 많이 들며, 따라서 통역의 정보처리가 문장구역보다 깊다고 할 수 있다(Viezzi 1989). 한편 문장구역자의 텍스트에 대한 시선 이동의 양상은 번역을 할 때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양청수 2007; Shreve et al. 2010). 또한 문장구역의 TL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통역과는 달리 문장구역에서는 오역보다는 TL의 표현 층위에서 부자연스러운 발화가 많이 발생한다(Agrifoglio 2004; Ivars2008).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연사가 먼저 원고를 읽은 후 통역사가 원고를 보면서 통역을 하는 ‘순차통역식 문장구역’과 연사가 원고를 읽을 때 통역사가 동시에 통역을 하는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이다(양청수 2007: 255). 본고의 대상은 전자에 해당하는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이며, 선행연구 조사 및 실험연구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영-한 순차통역 수업안 개발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1. 수행의 어려움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 통역사는 연사의 텍스트 낭독 시 눈으로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원문을 신속히 파악한 후 발화를 산출하게 된다. 즉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이란 연사의 낭독 중에는 시청각을 모두 동원하고, 낭독 직후에는 눈앞의 원고를 시각적으로 조회하며 해석을 하는 독특한 해석 행위라 하겠다.

이처럼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영-한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 수행의 어려움을 가하는 요인을 1) 언어 간섭, 2) 인지노력 간의 조율의 어려움, 3) 매끄러운 TL로의 표현 도출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째, 수행의 어려움으로 언어 간섭을 들 수 있다. 문장구역의 언어 수용 조건 중 텍스트의 시각적 제시는 언어 간섭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통역에서는 SL의 음성이 통역사의 기억에서 곧 소멸되므로 어휘나 구조가 아닌 의미적 재구성이 가능해지는 반면, 문장구역에서는 단어와 언어의 구조가 수행자의 눈앞에 계속 존재하므로 SL과 TL 간의 간섭의 위험이 극심(Gile 2009: 181)”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언어간섭의 결과 문장구역에서는 직역이 빈발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지혜 2004: 120).

둘째, 인지노력 간의 조율의 어려움이 있다. 통역이란 복합적인 인지 활동이므로 여러 가지 인지노력(cognitive effort)이 원활하게 조율이 되어야 성공적으로 통역을 수행할 수 있다(Gile 2009).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는 언어 입력이 청각에서 시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청각 언어 정보 모두 인지적 처리 용량의 제한을 받으므로 언어 수용자는 각 처리 단계 별로 ‘인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유덕근 2008: 277).

그런데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는 다양한 ‘인지노력’ 혹은 ‘인지적 자원’이 관여한다. 우선 구역자는 ST를 신속하게 독해하고 (Erickson, et al. 2006:2), 텍스트의 의미 단위 중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한지를 결정한다(Judicial Court of California 2001: 2). 텍스트 분석을 마친 후에는 발화를 준비하며 실행하게 되는데, 이때 “텍스트의 시각적 입력과 본인의 구두 발화 간의 주의력을 분할(Agrifoglio 2004: 49)”해야 한다. 한편 발화를 계획 시 구역자는 통역에 도움을 얻는 범위 내에서 텍스트에 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독해를 하는 중에도 자신의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Agrifoglio 2004: 49).

셋째, TL로의 매끄러운 표현 도출의 어려움이다.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 통역사들은 완벽한 통역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한다(홍설영 2012: 248). 순차통역사는 보다 정확한 어휘로 통역을 해야 하는 등(Degueldre & Lichtenberg 1985), 순차통역사의 TL에 대한 기대치는 통역의 여타 유형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장구역에서는 언어의 이해, 전환, 생산 간의 시차가 짧고 압축적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 이것이 TL 산출에 어려움을 가한다(Shreve, et al. 2011: 93). 문장구역의 언어 간섭은 동시통역보다 극심하여 TL의 유창성이 저하되는데 (Agrifoglio 2004: 61), 그 결과 문장구역에서는 ‘non-sens 오류’(Ivars 2008), 군말(filler), 휴지(pause), 주저어(hesitation), 백트래킹(backtracking)등의 비유창성(Hong 2010; Shreve et al. 2011; 홍설영 2012)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렇듯 구역자는 직역, 비유창성,

표현이 모호한 통역 등의 표현 상의 제약을 뛰어넘고 자연스럽게 명확한 TL 발화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교육의 구성요소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교육의 구성요소는 이해, 분석, 표현이라는 3단계를 기준으로 고찰이 가능하다. 통역의 1단계인 이해에서 구역자는 신속하게 텍스트를 분석하고(Weber 1990; Ersozlu 2005), 텍스트를 단어의 연속이 아닌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Pratt 1991).

제 2단계인 분석에서 구역자는 발화에 사용할 대응어를 모색하고(안희영 1993), 발화를 계획하고자 구문 분석하고 단위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Ersozlu 2005). 이때 구역자는 텍스트의 구조를 명시화해 주는 구조적인 단서를 표기하고(정혜연 2007), 발화를 위한 어순 표시를 할 수 있다(양청수 2007).

제 3단계인 표현 시 구역자는 SL을 TL로 재구성하여 발화를 한다. 이때 구역자는 일대일 대응 식의 통역을 지양해야 한다(Weber 1990). 또한 연설문에 적합한 구어적인 발화를 해야 한다(Weber 1990).

이상을 토대로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의 교수·학습의 구성요소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아래와 같다.

III. 사전조사를 통한 문제 인식 및 가설 도출

1. 관찰수업의 개요

연구의 참여자는 2012년 1학기에 연구자의 학급에 있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통역전공 석사 1학년생 10인이다. 이들의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총 3회 관찰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수업일지와 수행평가 및 학습일지의 질적 분석을 근간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을 수립하여 이를 수업 설계에 반영하였다.

1회 수업에서는 영문 텍스트를 단락 기준으로 구역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2, 3회 수업은 연구자가 학습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텍스트 전문을 구역하도록 하였다. 3회의 수업 후 학습자들에게는 문장구역 실습 스터디 과제가 배포되어 자신의 통역을 녹음하여 제출토록 하였다. 한편 모든 수업 및 과제에 대해 학습자들은 학습저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관찰수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와 같다.

그림 1.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의 과정 및 수행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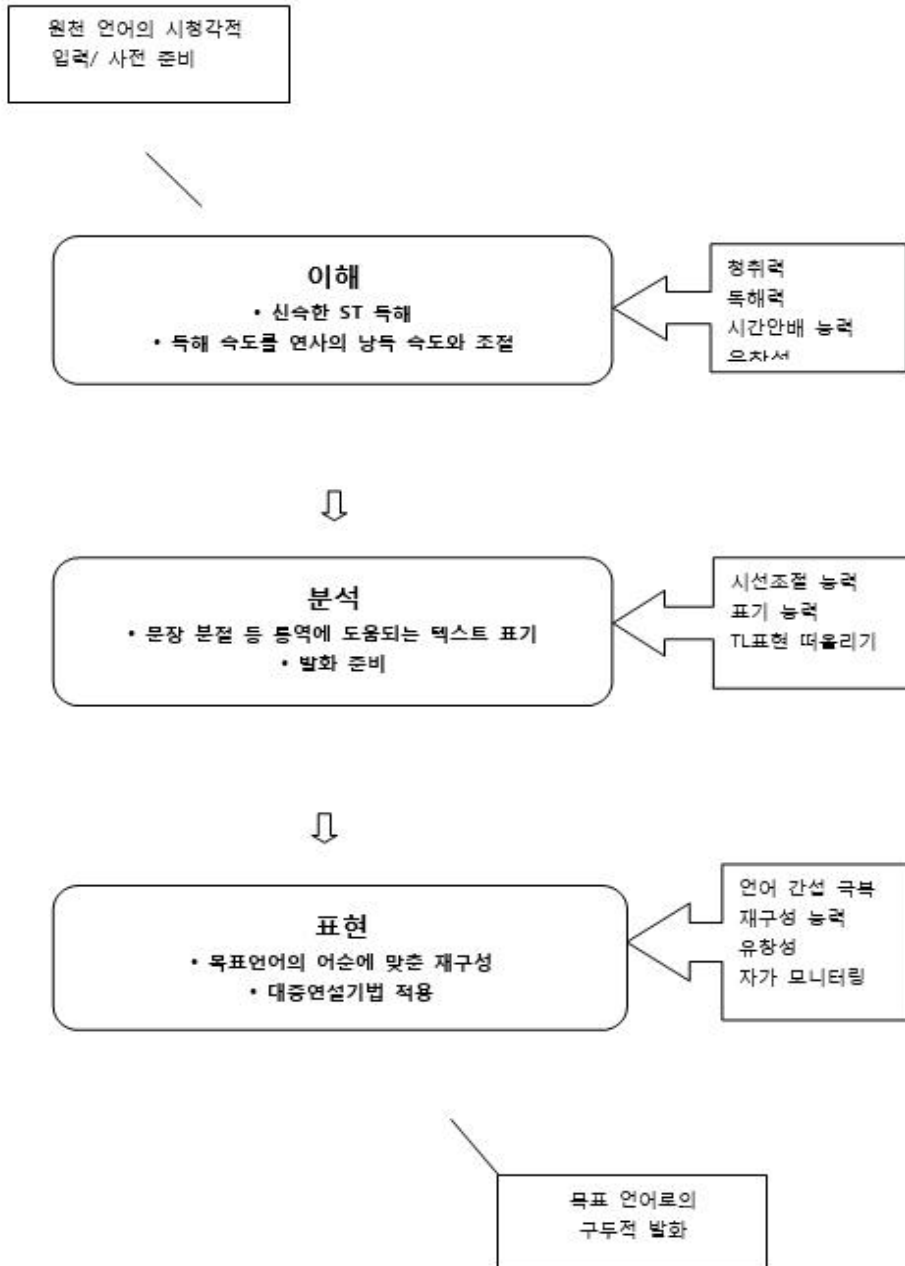


표 1. 관찰수업 개요

| 날짜 | 연습 방식 | 수업 텍스트 정보 | 과제 텍스트 정보 |
|-------------|---|---|--|
| 2012. 4. 7 | 전체 수업에서 단락 길이를 차례대로 문장구역 수행 | 제목: Innovation Offshoring: Asia's Emerging Role in Global Innovation Networks | 제목: Combating AIDS with Compassion and Resolve |
| 2012. 4. 14 | 텍스트 검토 및 사전(事典) 조회 시간 15분 부여 후 연구자가 한 단락씩 낭독함 | 제목: Australia's Evolving Inter-Parliamentary Relationship with Asia & Pacific | 제목: The Strength of the Australian Economy |
| 2012. 4. 21 | 텍스트 검토시간 없이 연구자가 한 단락씩 낭독함 | 제목: Past, Present and Future at the Museum of Fine Arts(MFA) Boston | 제목: Nurturing Artistic Creativity |

2. 분석 결과

연구자는 우선 수업 및 과제물의 녹취록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문장구역 TL에 대한 수업 일시 및 수행 평가를 토대로 문장구역 수행의 극복 영역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문장구역 문제점의 유형은 1) 문장 분절 실패, 2) 직역투, 3) 비유창성, 4) 어색한 한국어 표현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분절 실패의 경우, 학생들이 영어 원문의 문장 길이를 TL 해석에서 그대로 고수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이다. 직역투는 학생들이 SL원천 언어의 영어 텍스트를 자구(字句) 대응으로 해석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휘뿐만 아니라 통사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났다. 한편 비유창성은 군말(filler), 휴지(pause), 백트래킹(backtracking)의 총칭으로 실제로 학습자들의 TL은 비유창성으로 점철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넷째, 문장이 호응이 깨지는 등 비문(非文)에 해당하는 어색한 한국어 표현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한편 학습일지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문장구역 수행 소감과 어려움을 중심으로 6개의 상위 범주, 13개 하위범주, 30개의 단위가 도출되었다. 학습일지의 범주화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습일지에 드러난 영-한 문장구역 수행의 소감과 어려움 범주화

| 1. 범주 | 2. 내용 |
|---------------|--|
| 3. 수행전략 4. | 5. 사전준비 |
| | 6. ▷ 준비 시간 부족하고 효율적 시간 안배가 어려움 7. • 텍스트 준비시간 안배 잘 못함: 뒷부분은 준비 제대로 못함 8. • 문장구역 계획,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개념과 단어 찾기에 급급 |
| | 9. 분절 |
| | 10. ▷ 분절 없이 문장구역을 하여 좋은 통역이 나오지 않음 11. • 긴 문장을 분절 없이 연결하니 알아듣기 힘든 통역이 나옴 12. • 복잡한 문장을 분절 없이 통역하니 pause와 uneven speed 문제가 발생함 13. • 분절 실패는 주술 비호응으로 이어짐, 적절한 곳에서 문장을 끊어서 처리하는 요령 필요 |
| | 14. ▷ 문장을 분절하는 방법과 전략 면에서 혼란을 느낌 15. • 분절 전략 혼란: 앞에서 끊고 차례대로 하자니 한국어 아웃풋이 아쉽 |

| | |
|--------|--|
| | <p>16. 고, 뒷부분이 모두 끌어오자니 문장이 늘어지는 느낌 • 불필요한 분절: 문장을 아직도 너무 짧게 보고 앞부분부터 해석하는 바람에</p> <p>17. • 분절 방법 혼란: 어떻게 분절을 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힘</p> <p>18. ▷ 문장을 부적절하게 분절하여 통역에서 어려움을 겪음</p> <p>19. • 문장 분절 연습이 불충분하여 삽입구 처리가 어려움</p> <p>20. • 앞부터 끊어가다 보니 choppy 해지고 길어지는 느낌</p> <p>21. • 분절실패: 사전 낭독 안 되어 앞에서부터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뒤에 붙은 수식어가 어색하게 연결됨</p> <p style="text-align: center;">22. 문장 재구성</p> <p>23. ▷ 원천 언어를 해석하는 순서를 판단하여 다양하게 목표 언어를 구성하는데 어려움 있음</p> <p>24. • 문장 초반에 등장하는 영어 구간을 먼저 할지 끝에 할지 전략적 판단이 어려움</p> <p>25. • 전향식 vs. 비전향식 고민: 어떻게 해도 잘 안 됨...다 읽고 하려면 누락과 backtracking 나오는 등..</p> <p>26. • 영어 어순 따라가서 문제 생김: 아무 생각 없이 어순 따라가고 주어를 그대로 받아 한국어로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경우 많음</p> <p>27. • 문장을 여러 방식으로 유연하게 구성하는 능력 있다면 수습이 수월할 듯</p> <p style="text-align: center;">28. 텍스트 가시성</p> <p>29. ▷ 눈 앞의 텍스트가 통역에 휘방이 된다</p> <p>30. • 텍스트 제한을 받아 귀로만 듣고 할 때보다 통역이 더 어려워짐</p> <p>31. • 눈 앞의 텍스트로 인해 번역체 통역이 나오는 것을 문장구역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느낌</p> <p>32. • 눈으로 문장을 보니 피상적인 해석을 하고 부자연스러운 한국어가 나옴</p> |
| 33. 이해 | <p style="text-align: center;">34. 원천 텍스트 이해의 어려움</p> <p>35. ▷ 어휘, 문장구조, 내용 파악의 어려움 있음</p> <p>36. • 모르는 단어 걱정, 전체 텍스트 주제 파악의 어려움</p> <p>37. • 복잡하고 긴 영어 문장의 정확한 뜻 파악이 어려움</p> <p>38. • 특정 어휘 해석 난해(commitment, committed)</p> <p>39. • 짧은 시간 내에 지문을 완벽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p> <p>40. • 어려운 단어보다도, 쉬운 단어를 사용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문장구역에서 더 어렵다</p> <p style="text-align: center;">41.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한 목표 언어 표현 실패</p> <p>42. ▷ 오역이 발생함</p> <p>43. • 문장구조 잘못 옮김</p> <p>44. •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일수록: 원문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없는 내용 덧붙이는 실수 발생</p> <p>45. ▷ 이해가 안 되어 목표 언어로의 표현이 힘들어짐</p> <p>46. • 이해 안 가는 영어에 정신이 몰두되어 한국말이 더 더듬더듬 나옴</p> <p>47. • 단락 간 연결이 잘 이해되지 않아 문장구역에서도 연결성이 떨어짐</p> <p>48. • 단락별로 들을 때, 큰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각각의 단어를 어떻게 통역하지 고민하느라 바쁨</p> |
| 49. 표현 | <p style="text-align: center;">50. 한국어 표현 상의 문제</p> <p>51. ▷ 대응어 안 떠오름</p> <p>52. • 문맥상 맞는 대응어를 신속하게 떠올리는 일이 가장 어렵다</p> <p>53. • 바로 대응어 안 떠오르면 당황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 레지스터 낮아짐</p> <p>54. • 이해한 바일지라도 한국어로 풀기가 쉽지 않음</p> <p>55. ▷ 레지스터/격식에 안 맞는 표현</p> <p>56. • 연설문다운 한국어 표현 부족</p> <p>57. •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매끄럽게 표현할 자신 없음</p> <p>58. • 레지스터 낮아서 표현상 다음을 부분 많음</p> <p>59. ▷ 문장 호응이 깨짐</p> <p>60. • 호응 문제: 문장의 시작과 마무리 이상함: 구역을 하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있어서</p> <p>61. • 호응: 문장의 시작과 끝이 심하게 맞지 않는 구역 후 당황함, 다음 구역에도 영향</p> <p>62. • 주술호응 깨짐: 단시간에 처리량이 너무 많아서</p> <p>63. ▷ 부자연스러운 한국어</p> <p>64. • 말이 안 되는 엉터리 한국말을 하고 있음</p> <p>65. • 말꼬임</p> <p>66. • 부자연스러운 내 한국어에 대한 깨달음과 고민</p> <p>67. • 한국말 자체만 들었을 때 너무 어색한 문제</p> <p>68. • 이상한 말들 쏟아냄: 내가 외계어를 하고 있구나: 내 모국어는 한국어인데 왜 이럴까</p> <p>69. • 간결하게 표현하는 능력 부족</p> |

| | |
|--------------------|---|
| | <p align="center">70. 직역투</p> <p>71. ▷ 직역투 발생 원인 72. • 영어 어순과 단어에 대한 집착: 텍스트가 눈에 보이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 73. • 직역투: 아직도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함. 사전적 의미 넘어서 높은 차원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함 74. •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의존해 직역하게 됨 75. ▷ 직역투 표출 양상 76. • 불필요한 복수형 많이 사용 77. • 지나친 직역과 인위적인 말들 78. • 단어를 그 자체로 옮겨 부자연스러우며 의미 전달이 안되고 79. ▷ 직역투의 부작용 80. • 직역투의 위험: 오역이 될 수 있다는 점 81. • 직역 모면하려다 보면 누락되는 단어가 생김</p> |
| <p>82. 유창성</p> | <p align="center">83. 백트래킹(backtracking), 휴지(pause), 균말(filler)</p> <p>84. ▷ 백트래킹 발생원인 85. • 문장 구조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보이는 만큼 구역하다 보면 백트래킹이 발생함 86. • 긴 문장을 분절하지 않는 습관 때문 87. • 다른 표현을 해보려다가 발생함 88. • 너무 뒤에서 끝어다 처리를 하려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발생 89. ▷ 휴지 90. • 몇 단어 말하고 쉬고 또 몇 단어 말하고 쉬는 식의 휴지 발생 91. • 막히는 단어와 문장에서 수십 초 간 침묵 92. ▷ 균말 93. • 균말 끊임없이 나옴</p> <p align="center">94. 속도 및 표현 전반</p> <p>95. ▷ 속도 96. • 속도 개선의 여지 큼 97. ▷ 표현 전반 98. • 단어 늘려 발음함 99. • 말 더듬기, 중언부언 100. • 표현의 완성도와 페이스 유지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힘들</p> |
| <p>101. 심리적 부담</p> | <p align="center">102. 상황적 부담감</p> <p>103. ▷ 사전준비 부족 104. • 준비시간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 낭독 중 이해하고 해석하느라 시간적으로 빠듯 105. ▷ 상황적 긴장감 106. • 녹음 장비와 평소와 다른 수업 분위기 때문 107. • 긴장감: 시험 느낌. 그래서 내용 파악 더 안됨 108. ▷ 텍스트 난이도 및 길이 109. • 이런 수준의 문장구역이 감당이 안 됨 110. • 텍스트의 양적 부담감</p> <p align="center">111. 통역 수행 능력 관련</p> <p>112. ▷ 통역 수행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담감 113. • 속도와 흐름 유지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 114. • 한번에 매끄러운 만장 뱌어야 하는 실전의 부담감 느낌 115. •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한 집착과 그에 따라 목소리와 기분이 영향 받는 것을 잘 관리해야 116. • 어려운 표현 쓸 때 스스로 어색하고, 자신감 없이 들림</p> |
| <p>117. 학습 전략</p> | <p align="center">118. 이해 및 표현력</p> <p>119. ▷ 이해 증진 120. • 다양한 텍스트 많이 접하여 이해속도 높여야 할 것 121. • 문장구조 단시간에 파악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보충해야 함 122. ▷ 한국어 표현 123. • 보다 한국어의 관점에서 통역하는 일 124. • 어휘력 평소 많이 쌓아야 할 것 125. • 연설문 다독으로 연설문 어투 익혀야 할 것 126. • 이해 안 되는 경제 용어, 경제지식 습득의 필요성 127. ▷ 직역투 극복 연습 128. • 영어 원문 구조가 너무 잘 보이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다~~필요한 연습: 명사의 129. • 풀사를 살리지 않고 서술적으로 풀어서 말하는 연습 130. • 직역 아닌 의미 중심: 단어 하나하나 번역하기 보다는 문장의 의미를 생각해서 구역할 필요성 느낌</p> |

| 131. 구체적인 수행 전략 | |
|---|--|
| <p>132. ▷ 분절 133. • 문장분절 연습의 필요성 134. • 영어의 문장구조에서 벗어나 적절히 분절하여 청자가 듣기 편한 한국어로 해석하는 연습</p> <p>135. ▷ 원천 텍스트로부터의 탈피 136. • 영어적인 표현, 문장구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어적인 표현으로 신속하게 옮기는 해석의 유연성 필요 137. • 탈언어화 난제 138. • 내용 전달에 충실하면서 텍스트에 갇히지 않는 통역하는 일</p> <p>139. ▷ 영어 문장 관련 140. • 문장을 길게 보는 능력 부족 141. • 문장에 대한 깊은 처리</p> | |

IV. 결론

이상을 토대로 영-한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의 교수법을 생각할 때,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을 접하는 석사생에게 필요한 교육은 문장구역 고유의 수행전략 및 능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이라 하겠다.

문장구역 고유의 수행 전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분절 기법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구문의 단위 혹은 의미의 단위에 대한 인식을 배양시키고 이에 기반한 분절의 방식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의미 단위에 대한 사고의 유연성을 함양하도록 의미 단위의 다양한 길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분절 후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과 요령 또한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장구역 교육에서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언어 간섭의 극복에 기반한 재구성 능력의 향상이다. 언어 간섭 극복의 출발은 일대일 대응 식의 사전적 해석의 습관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에 기반한 재표현이 통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수자는 재구성의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TL과 수업 및 과제물 저널에서 도출된 영-한 문장구역 학습의 어려움의 범주가 문장 분절, 직역투, 한국어 표현, 비유창성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영-한 문장구역 교수·학습 모형의 내용 역시 이 사항을 중심축으로 구성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처럼 문장구역과 관련된 학습 극복 영역이 명확하게 도출된 만큼, 텍스트 전문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문장구역 실습을 하면서 이 영역들을 다루는 방식보다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특히 연구자는 직역투와 문장분절을 프로그램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한국어 표현과 비유창성은 수업 중 피드백 공유를 통하여 개선책을 공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의 근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대효과를 재구성 혹은 패러프레이즈 능력 함양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문장구역에서 영어의 형태를 답습하는 직역투의 극복과 문장 분절은 유연하게 문장을 재구성하여 발화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지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가 5주차 수업안으로 구성한 영-한 문장구역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3>와 같다.

표 3. 교수·학습프로그램 개요

| 회차 | 연습 명칭 | 기대 효과 | |
|----|------------------|---------------------------------------|-----------------------|
| 1 | 어순 재배치 | 언어 간섭과 영어 어순으로부터의 탈피 | 재구성 능력 향상 실천 |
| 2 | 표층·심층 해석 | 직역투에 대한 인식 및 극복 TT인 한국어 쓰임에 맞게 재표현 | |
| 3 | 의미단위 길이 별 문장완성 | 분절 길이 및 지점에 대한 인식 및 전략 함양 | |
| 4 | 의미단위 재배치 | ST 문장 구조에 따른 TT 어순의 유연한 구성 | |
| 5 | 표기법과 전향식·비전향식 발화 | 표기 기법 선택 및 다양한 시선 처리로 발화 텍스트 전문 실전 연습 | |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한국문화사.
- 안희영. (1993). 「문장구역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4. 69-83.
- 양청수. (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손지봉, 김영민, 안희정 역). 서울: 한국문화사.
- 유덕근. (2008). 「언어이해의 6가지 원리 고찰: 심리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언어이해 과정」. 『독일어문학』, 42. 263-288.
- 정혜연.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통역교육에의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홍설영. (2012).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개방형 설문 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4). 235-267.
- Agrifoglio, M. (2004). Sight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straints and failures. *Interpreting*, 6(1), 43-67.
- Degueldre, C. & Lichtenberg, A. (1985). The teaching of interpretation: Principles and methodology. *Journal of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Erickson A., Bonet J., Festinger N., Framer I., Macfarlane A.G. (2006). Modes of interpreting: simultaneous, consecutive and sight trans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Translators(NAJIT) Position Paper.
- Ersozlu, E. (2005). Some suggestions on sight translation teaching. *Translation Journal*, 9(4).
- Gile, D. (2009).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Revised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ong, S. (2010). Paraphrasing as an anti-interference technique in sight

- translation: An action research-based experiment.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41-170.
- Jiménez Ivars, M.A. (2008). Sight translation and writte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auses of problems, strategies and translation errors within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Forum*, 6(2), 79-104.
- Jeong, C. (2005). Learner needs analysis for T&I program reform. *Meta*, 50(4), 1-17.
- Pöchhacker, F.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Routledge.
- Pratt, S. (1991). *L'importance de la traduction a vue pour l'enseignement de l'interprétation et de la traduction*. Proceedings, XII Congrès International de la FIT, Belgrado.
- Shreve, G. M., Lacruz, I., Angelone, E. (2011). Sight translation and speech disfluency: Performance analysis as a window to cognitive translation processes. In C. Alvstad, A. Hild, E. Tiselius (Eds.), *Methods and Strategies of Process Research*. (pp. 93-120).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Viezzi, M. (1989). Information retention as a parameter for the comparison of sight transl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an experimental study. *The Interpreters' Newsletter*, 2, 65-69.
- Visintin, A. Z. & Campos, V. P. (2009). Sight translation as a cognitive tool in language learning. In Foro de Estudios en Lenguas Internacional FEL 2009. 611-618.
- Weber, W.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D. Bowen & M. Bowen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pp. 44-5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웹사이트>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2001). Exercises for sight translation.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http://courts.michigan.gov/scao/services/access/SightExercises.pdf>